

학생생활연구

(통권 제24호 2020년 2월)

目次

2019학년도 재학생 대학생활 만족도 및 실태 조사연구	—————	1
2019학년도 신입생 대학생활 만족도 및 실태 조사연구	—————	85
2019학년도 재학생 성희롱 · 성폭력 실태 조사연구	—————	154
2019학년도 신입생 흡연 · 음주 실태 조사연구	—————	172

Journal of Student Guidance Research Vol.24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Center, Inje University

February, 2020

CONTENTS

Undergraduates' Actual Condition and Their On-campus Life Satisfaction in Inje University, Academic Year 2019	1
Freshmen's Actual Condition and Their On-campus Life Satisfaction in Inje University, Academic Year 2019	85
Undergraduates'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in Inje University, Academic Year 2019	154
Freshmen's Smoking Habits and Alcoholism in Inje University, Academic Year 2019	172

표 목 차

2019학년도 재학생 대학생활 만족도 및 실태 조사연구

<표 1-1>	응답자 분포	2
<표 1-2>	응답자의 학년별 분포	3
<표 1-3>	응답자의 성별 분포	3
<표 1-4>	대학생활 만족도	4
<표 1-5>	학과생활 만족도	4
<표 1-6>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만족도	5
<표 1-7>	학교에 불만족한 이유	6
<표 1-8>	학과에 불만족한 이유	6
<표 1-9>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대안	7
<표 1-10>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알고 싶은 것	7
<표 1-11>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8
<표 1-12>	대학생활에서 인간관계를 가장 맺기 힘든 대상	8
<표 1-13>	학과 교수님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기대	9
<표 1-14>	동아리 활동이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 되는 정도	9
<표 1-15>	학생활동 중 우리 대학에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10
<표 1-16>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우리 대학에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10
<표 1-17>	앞으로 활동하고 싶은 봉사 분야	11
<표 1-18>	대학 축제 중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12
<표 1-19>	학습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12
<표 1-20>	본교 학습지원 프로그램 중 본인이 알고 있는 프로그램 수	13
<표 1-21>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수	13
<표 1-22>	본교에서 추가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	14
<표 1-23>	가장 관심 있는 학습법 특강 주제	14
<표 1-24>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15
<표 1-25>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시간	15
<표 1-26>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만족 요인	16
<표 1-27>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불만족 요인	16
<표 1-28>	학사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게 되는 방법	17
<표 1-29>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학사제도/시스템	17
<표 1-30>	개인적인 호감보다 강의의 종합적인 내용으로 수업평가	18
<표 1-31>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강의의 종합적인 내용으로 수업평가	18
<표 1-32>	이전 학기 수업평가의 결과를 고려한 수강신청	19
<표 1-33>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이전 학기 수업평가의 결과를 고려한 수강신청	20

<표 1-34>	수업평가의 공정성	20
<표 1-35>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공정한 수업평가	21
<표 1-36>	평생지도교수와의 상담에 대한 만족 여부	22
<표 1-37>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평생지도교수와의 상담에 대한 만족 여부	22
<표 1-38>	평생지도교수제가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준비에 도움 되는 정도	23
<표 1-39>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평생지도교수제의 대학생활 및 진로준비 도움 정도	23
<표 1-40>	평생지도교수의 지도와 상담을 받고 싶을 때 가장 어려운 점	24
<표 1-41>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평생지도교수의 상담을 받고 싶을 때 가장 어려운 점	25
<표 1-42>	진로문제에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기관	26
<표 1-43>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진로문제에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기관	26
<표 1-44>	학교의 진로 지원의 적극성	27
<표 1-45>	진로탐색 관련 과목의 만족도	27
<표 1-46>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탐색 관련 과목의 만족도	28
<표 1-47>	진로개발 사이트 이용 경험에 대한 만족도	28
<표 1-48>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진로개발 사이트 이용 경험에 대한 만족도	29
<표 1-49>	진로개발 활동 중 대학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항목	30
<표 1-50>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대학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진로개발 항목	30
<표 1-51>	취업준비교육과 관련한 과목의 만족도	31
<표 1-52>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취업준비교육과 관련한 과목의 만족도	32
<표 1-53>	대학 취업과 진로 컨설턴트의 상담을 받아본 경험	32
<표 1-54>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취업과 진로상담을 받아본 경험	33
<표 1-55>	대학 취업과 진로 컨설턴트와의 상담 경험에 대한 만족도	34
<표 1-56>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취업과 진로상담 경험에 대한 만족도	34
<표 1-57>	전공 교수와의 취업과 진로상담 경험에 대한 만족도	35
<표 1-58>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전공 교수와의 취업과 진로상담 경험 만족도	35
<표 1-59>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적정 학년	36
<표 1-60>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적정 학년	36
<표 1-61>	본교 취업 준비 교과목에 대한 생각	37
<표 1-62>	해외취업진로센터 인지도	37
<표 1-63>	'성공해외취업전략' 자유선택 교과목(2학점) 개설 운영 인지도	38
<표 1-6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개최하는 해외취업박람회 참여 의향	38
<표 1-65>	'해외 취업과 진로 컨설팅(캠프)' 행사 참여 의향	39
<표 1-66>	해외인턴십 희망 국가	39
<표 1-67>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	40
<표 1-68>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	40
<표 1-69>	해외 취업에 대한 학생의 의사	41
<표 1-70>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해외 취업에 대한 학생의 의사	41
<표 1-71>	해외 취업 희망 국가	42
<표 1-72>	해외 취업 희망하는 이유	43

<표 1-73>	해외 취업 희망 직무	43
<표 1-74>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해외취업 희망 직무	44
<표 1-75>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 힘든 점	44
<표 1-76>	인제스타마일리지 제도 인지도	45
<표 1-77>	인제스타마일리지 제도 도전 경험	45
<표 1-78>	학비의 주된 조달 방법	46
<표 1-79>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학비의 주된 조달 방법	46
<표 1-80>	장학금을 받기 위해 가장 많이 취해본 노력	47
<표 1-81>	교내장학금 등록금 범위초과 학업장려비로 지급	47
<표 1-82>	장학금 제도에 대한 개선점	48
<표 1-83>	학업 유지에 효과적이고 필요한 장학금 종류	48
<표 1-84>	학생기구 단체장에 대한 봉사장학금의 성격	49
<표 1-85>	도서관 이용 횟수	49
<표 1-86>	도서관 방문 시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	50
<표 1-87>	도서관 이용 목적	50
<표 1-88>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공지사항을 얻는 곳	51
<표 1-89>	본교 도서관에서 확충되어야 할 것	51
<표 1-90>	교내 공간과 기자재 이용 및 대여의 용이성	52
<표 1-91>	교내 휴식공간의 충분성	52
<표 1-92>	교내 통학버스 이용의 편리성	53
<표 1-93>	현재 흡연 여부	53
<표 1-94>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현재 흡연 여부	54
<표 1-95>	현재 음주 여부	54
<표 1-96>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현재 음주 여부	55
<표 1-97>	학생상담진로센터 운영 여부에 대한 인식	56
<표 1-98>	심리상담 전문가의 필요성(2019년)	56
<표 1-99>	심리상담 전문가의 필요성(2018년)	56
<표 1-100>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심리상담 전문가의 필요성	57
<표 1-101>	심리적 갈등 및 어려움 발생 시 학생상담진로센터 방문 의향	57
<표 1-102>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심리적 갈등 및 어려움 발생 시 학생상담진로센터 방문의향	58
<표 1-103>	전문가 도움 요청 시 원하는 상담 진행 장소	59
<표 1-104>	본교 학생상담진로센터가 하는 일	59
<표 1-105>	참여 또는 이용희망 프로그램	60
<표 1-106>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학생상담진로센터 참여 또는 이용 희망 프로그램	60
<표 1-107>	상담센터에서 가장 도움받고 싶은 부분	61
<표 1-108>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시도를 해본 경험	62
<표 1-109>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시도를 해본 경험	62
<표 1-110>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우울감 정도	63
<표 1-111>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우울감 정도	63

<표 1-112>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분노감 정도	64
<표 1-113>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분노감 정도	64
<표 1-114>	힘든 경험을 하고 있을 시 상담희망 여부	65
<표 1-115>	현재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66
<표 1-116>	단과대학, 학년에 따른 현재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66
<표 1-117>	본 설문 응답의 충실성	67

2019학년도 신입생 대학생활 만족도 및 실태 조사연구

<표 2-1>	응답자 분포	84
<표 2-2>	응답자의 성별 분포	85
<표 2-3>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86
<표 2-4>	단체 방문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경험	86
<표 2-5>	입시설명회가 인제대학교를 최종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정도	87
<표 2-6>	인제대학교 교직원의 고등학교 방문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경험 여부	87
<표 2-7>	교직원의 고등학교 방문 입시 설명회가 최종 결정에 도움이 된 정도	87
<표 2-8>	입학 전 인제대학교를 선택하는 데 최초로 정보를 얻은 곳	88
<표 2-9>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입학 전 본교를 선택하는데 최초로 정보를 얻은 곳	88
<표 2-10>	대학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	89
<표 2-11>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대학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	90
<표 2-12>	대학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	90
<표 2-13>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학과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	91
<표 2-14>	학과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준 대상	91
<표 2-15>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학과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	92
<표 2-16>	본인이 전공하고 싶은 분야와 현재 소속 학과의 일치도	92
<표 2-17>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본인 희망 전공 분야와 현재 소속 학과의 일치도	93
<표 2-18>	본교 대학에 대한 만족도	93
<표 2-19>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본교 대학에 대한 만족도	93
<표 2-20>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94
<표 2-21>	합격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	94
<표 2-22>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합격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	95
<표 2-23>	학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95
<표 2-24>	학과에 불만족 시 차후 계획	96
<표 2-25>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학과에 불만족 시 차후 계획	96
<표 2-26>	본교 입학 후 가장 알고 싶은 내용	97
<표 2-27>	대학 생활 중 가장 하고 싶은 분야	98
<표 2-28>	교수님에 대한 우선적 기대	98
<표 2-29>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교수에 대한 우선적 기대	99

<표 2-30>	평생지도교수의 지도와 상담에 대한 만족도	99
<표 2-31>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평생지도교수의 지도와 상담 만족도	100
<표 2-32>	평생지도교수제가 대학 생활 적응 및 진로에 도움 되는 정도	100
<표 2-33>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평생지도교수제가 대학 생활 및 진로에 도움 되는 정도	101
<표 2-34>	지도교수의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어려운 점	101
<표 2-35>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평생지도교수와 상담 시 어려운 점	102
<표 2-36>	동아리 활동이 대학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정도	102
<표 2-37>	축제 중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103
<표 2-38>	대학생활에서 인간관계를 가장 맺기 힘든 대상	103
<표 2-39>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대학 생활에서 인간관계를 맺기 가장 힘든 대상	104
<표 2-40>	앞으로 활동하고 싶은 봉사 분야	104
<표 2-41>	통학버스 이용의 편리성 여부	105
<표 2-42>	교내에 휴식공간이 충분성 여부	105
<표 2-43>	교내 공간과 기자재의 이용 및 대여의 용이성	105
<표 2-44>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106
<표 2-45>	알고 있는 본교 학습지원 프로그램 수	106
<표 2-46>	참여하고 있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수	107
<표 2-47>	추가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프로그램	107
<표 2-48>	가장 관심 있는 학습법 특강 주제	108
<표 2-49>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가장 만족스러운 요인	108
<표 2-50>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가장 불만족스러운 요인	108
<표 2-51>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109
<표 2-52>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시간	109
<표 2-53>	학사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게 되는 방법	110
<표 2-54>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학사제도 시스템	110
<표 2-55>	강의의 종합적인 내용을 판단	111
<표 2-56>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강의의 종합적인 내용을 판단	111
<표 2-57>	수강신청 시 이전 학기 수업평가의 결과를 고려하는 정도	112
<표 2-58>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수강신청 시 이전 학기 수업평가 결과 고려 여부	112
<표 2-59>	수업평가의 공정성	113
<표 2-60>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수업평가의 공정성	113
<표 2-61>	본교 인제스타마일리지에 대한 인지도	114
<표 2-62>	본교 인제스타마일리지 제도 도전 여부	114
<표 2-63>	진로문제에 가장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	115
<표 2-64>	진로문제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 지원정도	115
<표 2-65>	진로탐색 관련 과목 만족도	116
<표 2-66>	취업준비 교육과목 만족도	116
<표 2-67>	취업과 진로 컨설턴트와의 상담 경험	117

<표 2-68>	취업과 진로 컨설컨트와의 상담 경험에 대한 만족도	117
<표 2-69>	취업과 진로에 대한 전공 교수와의 상담 경험	117
<표 2-70>	진로개발 웹사이트 이용에 대한 만족도.....	118
<표 2-71>	진로개발지원 활동 중 대학 지원이 가장 필요한 항목	118
<표 2-72>	취업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적정 학년에 대한 생각.....	119
<표 2-73>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취업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적정 학년에 대한 생각	119
<표 2-74>	본교 취업과 진로준비 과목에 대한 만족도	120
<표 2-75>	해외 취업에 관한 관심.....	120
<표 2-76>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해외 취업에 관한 관심	120
<표 2-77>	해외 취업에 대한 의사	121
<표 2-78>	취업하고 싶은 국가	121
<표 2-79>	그 국가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	122
<표 2-80>	해외 취업 희망직무	122
<표 2-81>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해외 취업희망직무.....	123
<표 2-82>	해외 취업에 가장 힘든 점	123
<표 2-83>	교내 해외 취업 진로센터 존재 인식	124
<표 2-84>	성공 해외 취업전략 교과목개설 운영인식.....	124
<표 2-85>	KOTRA 개최 해외 취업 박람회 참가의향	124
<표 2-86>	해외취업과 진로컨설팅 행사 참가의향	125
<표 2-87>	방학 중 진행되는 해외인턴십 참가희망 국가	125
<표 2-88>	학비의 주된 조달 방법	126
<표 2-89>	장학금을 얻기 위해 가장 많이 한 노력	126
<표 2-90>	교내 장학금의 등록금 범위 초과 학업 장려비 지급	127
<표 2-91>	장학금제도에 대한 개선점	127
<표 2-92>	학업 유지에 효과적이고 필요한 장학금 종류	128
<표 2-93>	학생기구 단체장에 대한 봉사 장학금의 성격	128
<표 2-94>	도서관 이용 횟수	128
<표 2-95>	도서관 방문 시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	129
<표 2-96>	도서관 이용 주목적	129
<표 2-97>	도서관에 대한 정보와 공지사항을 얻는 방법.....	130
<표 2-98>	본교 도서관에서 확충하여야 할 것	130
<표 2-99>	학생상담진로센터 운영에 대한 인식	131
<표 2-100>	본교 학생상담진로센터가 하는 일	131
<표 2-101>	심리상담 전문가의 필요성	132
<표 2-102>	심리상담 전문가의 도움 필요 여부	132
<표 2-103>	심리적 어려움 발생 시 상담 진로센터 방문의향	133
<표 2-104>	심리적 어려움 발생 시 상담 진로센터 방문의향.....	133
<표 2-105>	전문가 도움 요청 시 원하는 상담 진행 장소.....	133

<표 2-106>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우울감	134
<표 2-107>	성별에 따른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우울감	134
<표 2-108>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분노	134
<표 2-109>	성별에 따른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분노	135
<표 2-110>	자살 생각·시도를 해 본 경험	135
<표 2-111>	성별에 따른 자살 생각·시도를 해 본 경험	135
<표 2-112>	힘든 경험을 하고 있을 도움희망 여부	136
<표 2-113>	현재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136
<표 2-114>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현재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137
<표 2-115>	참여 및 이용희망 프로그램	137
<표 2-116>	학생상담진로센터 방문 시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	138
<표 2-117>	본 설문 응답의 충실성	139

2019학년도 재학생 성희롱 · 성폭력 실태 조사연구

<표 3-1>	응답자 분포	155
<표 3-2>	응답자의 학년별 분포.....	156
<표 3-3>	응답자의 성별 분포	156
<표 3-4>	성폭력 경험 유무	157
<표 3-5>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성폭력 경험 여부	157
<표 3-6>	성폭력 유형	158
<표 3-7>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성폭력 유형.....	159
<표 3-8>	성폭력의 상대	160
<표 3-9>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성폭력 경험 시 상대	160
<표 3-10>	성폭력 피해 상황 및 장소	161
<표 3-11>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성폭력 경험 시 피해 상황/장소	162
<표 3-12>	경험한 성폭력의 지속 기간	162
<표 3-13>	피해 상황에서의 대처방법	163
<표 3-14>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	163
<표 3-15>	성폭력 발생 시 상황 대처방법	164
<표 3-16>	성폭력 경험 시 사후 대처방법	164
<표 3-17>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경험.....	165
<표 3-18>	가장 도움 되는 예방 교육방법	165
<표 3-19>	성폭력 예방 교육의 성희롱 예방 도움 유무	165
<표 3-20>	본 설문 응답의 충실성	166
<표 3-21>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본 설문 응답의 충실성	166

2019학년도 신입생 흡연 · 음주 실태 조사연구

<표 4-1>	응답자 분포	173
<표 4-2>	응답자의 성별 분포	174
<표 4-3>	흡연 여부	175
<표 4-4>	성별에 따른 흡연 여부	175
<표 4-5>	흡연 동기	176
<표 4-6>	성별에 따른 흡연 동기	176
<표 4-7>	흡연 시기	176
<표 4-8>	성별에 따른 흡연 시작 시기	177
<표 4-9>	흡연 시작 시기에 따른 흡연 동기	177
<표 4-10>	현재 흡연자의 흡연 기간	177
<표 4-11>	성별에 따른 흡연 기간	178
<표 4-12>	교내에서의 금연에 대한 생각	178
<표 4-13>	성별에 따른 교내 금연에 대한 생각	178
<표 4-14>	흡연 기간에 따른 교내 금연에 대한 생각	179
<표 4-15>	현재 흡연 여부에 따른 교내 금연에 대한 생각	179
<표 4-16>	교내 흡연 시 학생에 대한 규제	179
<표 4-17>	성별에 따른 교내 흡연 시 규제에 대한 생각	180
<표 4-18>	금연을 도전한 횟수	180
<표 4-19>	금연을 하게 된 계기	180
<표 4-20>	성별에 따른 금연 도전 횟수	181
<표 4-21>	성별에 따른 금연 계기	181
<표 4-22>	금연 후 다시 흡연을 하게 된 동기	181
<표 4-23>	성별에 따른 다시 흡연하게 된 동기	182
<표 4-24>	교내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사	182
<표 4-25>	성별, 흡연기간에 따른 금연 프로그램 참여 의사	182
<표 4-26>	현재 음주 여부	183
<표 4-27>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음주 여부	183
<표 4-28>	흡연 여부에 따른 음주 여부	184
<표 4-29>	음주 유경험자의 음주 시작 시기	184
<표 4-30>	성별에 따른 음주 시작 시기	184
<표 4-31>	흡연 시작 시기에 따른 음주 시작 시기	185
<표 4-32>	일주일에 음주 횟수	185
<표 4-33>	성별에 따른 음주 횟수	186
<표 4-34>	술을 마시는 이유	186
<표 4-35>	금주를 하게 된 계기	186

<표 4-36>	성별에 따른 술을 마시는 이유	187
<표 4-37>	성별에 따른 금주 계기	187
<표 4-38>	음주를 다시 하게 된 계기	187
<표 4-39>	성별에 따른 다시 음주하게 된 계기	188
<표 4-40>	음주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피해	188
<표 4-41>	성별에 따른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생각	188
<표 4-42>	음주로 인한 학업 방해 경험	189
<표 4-43>	성별에 따른 음주로 인한 학업 방해 경험	189
<표 4-44>	본 설문 응답의 충실성	189

2019학년도 재학생 대학생활 만족도 및 실태 조사연구

김나연* · 김상옥** · 배성윤***

목 차

I. 조사 연구 목적

II. 조사 방법 및 절차

III. 조사 결과

IV. 요약 및 결론

I. 조사 연구 목적

대학생은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어지는 과도기적인 단계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생활방식으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독립과 자아정체성 확립이라는 발달 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시기이다(이민희, 2019). 이러한 발달과업과 함께 대학생 시기는 실제로 취업이라는 사회진출을 준비해야 하는 등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본교 학생상담진로센터에서는 재학생들의 만족스러운 대학생활과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매년 대학생활 만족도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의 변화하는 요구와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대학 당국의 교육환경 개선과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인제대학교 학생상담진로센터 전임상담원

** 인제대학교 학생상담진로센터 전임상담연구원

*** 인제대학교 학생취업처 처장, 학생상담진로센터 센터장

II. 조사 방법 및 절차

1. 조사 대상

<표 1-1> 응답자 분포

단과대학	학과	2019 - 1		2019- 2	
		N	%	N	%
사회과학대학	소비자·가족학과	87	1.5	80	1.5
	공공인재학부	222	3.9	211	3.8
	보건행정학과	174	3.0	171	3.1
	사회복지학과	130	2.3	114	2.1
	상담심리치료학과	90	1.6	90	1.6
	신문방송학과	106	1.8	102	1.9
	유아교육과	76	1.3	77	1.4
	경영학부	240	4.2	241	4.4
	국제경상학부	228	4.0	232	4.2
	경영통상학과(야간)	14	.2	16	0.3
	특수교육과	65	1.1	66	1.2
	통계학과	86	1.5	77	1.4
문리과대학	스포츠헬스케어학과	80	1.4	85	1.5
	인문문화융합학부	195	3.4	187	3.4
	국제어문학부	253	4.4	234	4.2
	의생명화학과	85	1.5	81	1.5
	음악학과	83	1.4	72	1.3
	응용수학과	31	.5	34	0.6
BNIT융합대학	나노융합공학부	198	3.4	191	3.5
	바이오식품과학부	155	2.7	145	2.6
	제약공학과	202	3.5	182	3.3
	바이오테크놀로지학부	153	2.7	141	2.6
	헬스케어IT학과	31	.5	32	0.6
공과대학	건축학과	134	2.3	138	2.5
	실내건축학과	89	1.5	87	1.6
	멀티미디어학부	153	2.7	133	2.4
	디자인엔지니어링학과	73	1.3	65	1.2
	산업경영공학과	81	1.4	82	1.5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부	392	6.8	385	7.0
	토목도시공학부	83	1.4	85	1.5
	환경공학과	85	1.5	85	1.5
	미래에너지공학과	19	.3	17	0.3
	계약학과	3	.1	11	0.2
보건의료 융합대학	물리치료학과	98	1.7	116	2.1
	보건안전공학과	126	2.2	130	2.4
	의용공학부	207	3.6	193	3.5
	임상병리학과	155	2.7	167	3.0
	작업치료학과	97	1.7	94	1.7
의과대학	간호학과	268	4.7	263	4.8
	의예과	58	1.0	61	1.1
	의학과	277	4.8	182	3.3
약학대학	약학과	117	2.0	111	2.0
소프트웨어대학	컴퓨터공학부	190	3.3	184	3.3
	컴퓨터시뮬레이션학과	63	1.1	59	1.1
합계		5,752	100	5,509	100

<표 1-2> 응답자의 학년별 분포

구분	2019-1학기		2019-2학기	
	N	%	N	%
2	1,743	30.3	1,678	30.5
3	1,867	32.5	1,828	33.2
4	1,935	33.6	1,924	34.9
5학년 이상	207	3.6	79	1.4
합계	5,752	100	5,509	100

<표 1-3> 응답자의 성별 분포

구분	2019-1학기		2019-2학기	
	N	%	N	%
남	2,601	45.2	2,508	45.5
여	3,151	54.8	3,001	54.5
합계	5,752	100	5,509	100

2. 조사 절차

본 설문조사는 본교 On-Line 시스템(SAIL System)에서 2~6학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로 실시되었다. 통계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인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에 앞서 조사의 목적과 On-Line 설문조사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사는 많은 설문 문항으로 인한 불성실한 응답을 방지하기 위해 문항을 적절하게 1, 2학기로 나누어, 1학기에는 2019년 7월 5일(금) ~ 8월 25일(일)까지 조사하였으며, 2학기에는 2019년 11월 28일(목) ~ 12월 15일(일), 2020년 1월 3일(금) ~ 1월 19일(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 내용

조사 대상	1학기		2학기	
	주요 내용	문항 수	주요 내용	문항 수
재학생	대학생활 및 대학생활만족도, 학습활동(학습지원), 마일리지제도, 도서관, 취업과 진로, 해외취업, 평생지도교수의 지도와 상담, 학생상담진로센터 및 정신건강 관련	60	수업평가, 장학, 해외취업, 대학축제, 동아리, 교내 공간과 시설이용, 통학버스, 흡연, 음주	24

4. 자료 분석

기술자료 분석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교차분석을 통해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결과 값의 분포를 파악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한 자료처리는 SPSS 26.0K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Ⅲ. 조사 결과

1. 대학(학과)생활 만족도

가. 대학(학과)생활 만족도

1) 대학생활 만족도

2019학년도 재학생(2~6학년)을 대상(N=5,752)으로 대학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54.6%였고 보통이 39.0%, 불만족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6.4%로 나타났다(표 1-4).

<표 1-4> 대학생활 만족도

구분	N	%		
		2019	2018	2017
보통	2,243	39.0	43.8	39.6
만족	2,085	36.2	30.9	33.4
매우 만족	1,058	18.4	14.2	18.4
불만족	229	4.0	7.8	6.4
매우 불만족	137	2.4	3.3	2.2
합계	5,752	100	100	100

2) 학과생활 만족도

2019학년도 재학생(2~6학년)을 대상(N=5,752)으로 학과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53.7%였고 보통이 39.0%, 불만족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7.4%로 나타났다(표 1-5).

<표 1-5> 학과생활 만족도

구분	N	%
보통	2,242	39.0
만족	2,017	35.1
매우 만족	1,069	18.6
불만족	306	5.3
매우 불만족	118	2.1
합계	5,752	100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약학대학, 의과대학에서 만족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전 학년에서 만족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학년(26.9%) 3학년(56.9%), 6학년(57.9%)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대학생활에 대하여 만족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57.4%)이 여학생(52.3%)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1-6).

<표 1-6>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만족도 백분율()

구분	대학생활 만족도					합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단과 대학	공과대학	217(19.5)	389(35.0)	438(39.4)	35(3.1)	33(3.0)	1,112
	문리과대학	133(18.3)	243(33.4)	299(41.1)	31(4.3)	21(2.9)	727
	보건의료융합대학	124(18.2)	268(39.2)	246(36.0)	34(5.0)	11(1.6)	683
	사회과학대학	290(19.1)	540(35.6)	613(40.4)	44(2.9)	31(2.0)	1,518
	소프트웨어대학	39(15.4)	77(30.4)	115(45.5)	10(4.0)	12(4.7)	253
	약학대학	32(27.4)	44(37.6)	32(27.4)	6(5.1)	3(2.6)	117
	의과대학	104(17.2)	244(40.5)	208(34.5)	33(5.5)	14(2.3)	603
	BNIT융합대학	119(16.1)	280(37.9)	292(39.5)	36(4.9)	12(1.6)	739
학년	2학년	323(18.5)	669(38.4)	656(37.6)	68(3.9)	27(1.5)	1,743
	3학년	362(19.4)	700(37.5)	703(37.7)	63(3.4)	39(2.1)	1,867
	4학년	340(17.6)	636(32.9)	813(42.0)	87(4.5)	59(3.0)	1,935
	5학년	21(16.9)	44(35.5)	49(39.5)	4(3.2)	6(4.8)	124
	6학년	12(14.5)	36(43.4)	22(26.5)	7(8.4)	6(7.2)	83
성별	남	609(23.4)	885(34.0)	930(35.8)	82(3.2)	95(3.7)	2,601
	여	449(14.2)	1,200(38.1)	1,313(41.7)	147(4.7)	42(1.3)	3,151

나. 불만족의 원인 및 대안

1)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전체 응답자(N=3,628)를 대상으로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교에 대한 자부심 부족(18.4%)과 기타(18.4%)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족(16.5%), 비용과 거리 등의 통학 여건(13.5%), 교육과정의 구성 및 교육의 질(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7).

<표 1-7> 학교에 불만족한 이유

구분	N	%		
		2019	2018	2017
학교에 대한 자부심 부족	669	18.4	27.0	18.4
기타	669	18.4	-	-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족	597	16.5	21.8	23.5
비용과 거리 등의 통학 여건	490	13.5	15.7	19.9
교과과정의 구성 및 교육의 질	473	13.0	14.2	15.4
희망학과 부재	278	7.7	8.3	8.0
교수에 대한 기대 불일치	255	7.0	8.1	8.9
친구나 선후배 등 대인관계 문제	197	5.4	4.9	5.9
합계	3,628	100	100	100

2) 학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학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학과적성 불일치 문제(24.7%)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교육환경(강의실, 실습실 등의 시설, 면학분위기 등)에 대한 불만족(21.2%), 교과과정의 구성 및 교육의 질적인 문제(16.5%), 전공에 대한 자부심 부족(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8).

<표 1-8> 학과에 불만족한 이유

구분	N	%		
		2019	2018	2017
학과적성 불일치 문제	737	24.7	19.7	18.4
교육환경(강의실 실습실 등의 시설 면학 분위기 등)에 대한 불만족	633	21.2	27.1	27.4
교과과정의 구성 및 교육의 질적인 문제	493	16.5	18.6	18.3
전공에 대한 자부심 부족	472	15.8	12.9	13.2
교수에 대한 기대 불일치	278	9.3	10.0	10.1
친구나 선후배 등 대인관계 문제	264	8.9	7.5	8.9
학과에 대한 주변 사람들(가족, 또는 보호자)의 기대 불일치	103	3.5	4.2	3.7
합계	2,980	100	100	100

3) 불만족 해결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대안

불만족 해결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대안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불만족 해결을 위해 현재의 전공으로 졸업 후 해결방안을 모색한다(40.4%)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18.2%), 복수전공(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1-9).

<표 1-9>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대안

구분	N	%		
		2019	2018	2017
현재의 전공으로 졸업 후 해결방안 모색	1,273	40.4	40.7	40.0
기타	575	18.2	20.2	20.0
복수전공	574	18.2	15.3	15.6
휴학	278	8.8	9.2	10.3
(학사)편입	198	6.4	7.3	5.9
전과	108	3.4	4.0	4.3
대학원 진학	93	2.9	3.3	3.9
연계 전공	53	1.7	-	-
합계	3,152	100	100	100

2. 대학생활

가. 학생생활

1)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알고 싶은 것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알고 싶은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공학과 학문 내용·전망(30.8%)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취업 정보(22.4%), 졸업, 휴학, 제적, 성적 등 학사관리(11.3%), 장학정보(10.4%), 대학이 지원하는 대외활동 정보(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10).

<표 1-10> 대학 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알고 싶은 것

구분	N	%	
		2019	2018
전공학과 학문 내용·전망	1,770	30.8	34.5
취업 정보	1,290	22.4	28.1
졸업, 휴학, 제적, 성적 등 학사관리	650	11.3	16.3
장학정보	597	10.4	-
대학이 지원하는 대외활동 정보	457	7.9	-
효과적인 학습 방법	336	5.8	8.4
기타	278	4.8	-
대학 내 각종 시설물 · 기관 활용 정보	274	4.8	6.9
아르바이트 정보	51	0.9	1.8
동아리(서클)종류·주요활동	49	0.9	2.4
이성교제	-	-	1.5
합계	5,752	100	100

2)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조사한 결과, 해외 활동(전공연수, 교환학생, 해외인턴, 해외봉사활동 등)(24.2%)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전공공부 및 학업(23.8%), 폭넓은 대인관계(22.5%)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1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11).

<표 1-11>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구분	N	%
해외 활동(전공연수, 교환학생, 해외인턴, 해외봉사활동 등)	1,394	24.2
전공공부 및 학업	1,369	23.8
폭넓은 대인관계	1,292	22.5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	1,042	18.1
폭넓은 교양습득	263	4.6
동아리 활동	180	3.1
이성교제	104	1.8
봉사활동	64	1.1
사회문제 참여	44	0.8
합계	5,752	100

3) 대학생활에서 인간관계를 가장 맺기 힘든 대상

대학생활에서 인간관계를 가장 맺기 힘든 대상은 교수(27.3%)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선후배(22.1%), 동급생(13.5%), 기타(13.4%), 이성친구(10.3%), 직원(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12).

<표 1-12> 대학생활에서 인간관계를 가장 맺기 힘든 대상

구분	N	%		
		2019	2018	2017
교수	1,570	27.3	29.1	27.8
선후배	1,274	22.1	22.9	22.4
동급생	776	13.5	11.6	17.2
기타	772	13.4	13.6	12.0
이성친구	594	10.3	9.5	8.9
직원	478	8.3	8.2	7.2
조교	288	5.0	5.1	4.5
합계	5,752	100	100	100

4) 학과 교수님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기대

학과 교수님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기대로는 충실한 강의(학문적 지도)(41.4%)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취업과 진로지도(28.0%), 인간적 사제관계(14.5%), 기타(5.5%), 사회(봉사)활동(4.0%), 엄정한 성적평가(4.0%), 학문연구 전념(2.6%)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13).

<표 1-13> 학과 교수님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기대

구분	N	%
충실한 강의(학문적 지도)	2,384	41.4
취업과 진로지도	1,609	28.0
인간적 사제관계	834	14.5
기타	319	5.5
사회(봉사)활동	232	4.0
엄정한 성적평가	227	3.9
학문연구 전념	147	2.6
합계	5,752	100

5) 동아리 활동이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는 정도

동아리 활동이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34.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대체로 그렇다(33.9%), 매우 그렇다(20.0%), 대체로 그렇지 않다(6.4%), 전혀 그렇지 않다(5.6%)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14).

<표 1-14> 동아리 활동이 대학생활적응에 도움 되는 정도

구분	N	%		
		2019	2018	2017
보통이다	1,882	34.2	38.0	37.7
대체로 그렇다	1,869	33.9	32.8	34.1
매우 그렇다	1,100	20.0	20.1	17.4
대체로 그렇지 않다	352	6.4	5.8	6.4
전혀 그렇지 않다	306	5.6	3.3	4.4
합계	5,509	100	100	100

6) 학생활동 중 우리 대학에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학생활동 중 우리 대학에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응답자의 28.5%가 국외 연수(어학연수, 교환학생 등)를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현장실습(국내현장실습, 인턴, K-move)(17.2%), 공모전(15.8%), 국내·외 봉사활동(13.0%), 취업매칭(국내외 취업컨설팅과 알선)(11.5%), 취업교육(캠프, 아카데미, 박람회 등)(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15).

<표 1-15> 학생활동 중 우리 대학에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구분	N	%		
		2019	2018	2017
국외 연수(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1,568	28.5	28.3	29.8
현장실습(국내현장실습, 인턴, K-move)	945	17.2	13.2	13.7
공모전	871	15.8	16.3	14.3
국내·외 봉사활동	717	13.0	17.0	17.8
취업매칭(국내외 취업컨설팅과 알선)	633	11.5	10.1	10.0
취업교육(캠프, 아카데미, 박람회 등)	480	8.7	8.8	8.2
기타	295	5.4	6.4	6.2
합계	5,509	100	100	100

<표 1-16>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우리 대학에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백분율

구분	우리 대학에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합계
	공모전	국외 연수	국내/외 봉사활동	취업교육	취업매칭	현장실습	기타	
공과대학	238(21.9)	273(25.1)	130(11.9)	85(7.8)	114(10.5)	200(18.4)	48(4.4)	1,088
문리과대학	128(13.9)	287(31.1)	113(12.2)	79(8.6)	116(12.6)	156(16.9)	44(4.8)	923
보건·의료융합대학	90(12.9)	209(29.9)	105(15.0)	60(8.6)	78(11.1)	120(17.1)	38(5.4)	700
사회과학대학	202(16.2)	307(24.6)	150(12.0)	132(10.6)	174(14.0)	214(17.2)	68(5.5)	1,247
소프트웨어대학	53(21.8)	56(23.0)	20(8.2)	20(8.2)	31(12.8)	45(18.5)	18(7.4)	243
약학대학	14(12.6)	55(49.5)	14(12.6)	8(7.2)	3(2.7)	12(10.8)	5(4.5)	111
의과대학	62(12.3)	191(37.7)	113(22.3)	29(5.7)	18(3.6)	41(8.1)	52(10.3)	506
BNIT융합대학	84(12.2)	190(27.5)	72(10.4)	67(9.7)	99(14.3)	157(22.7)	22(3.2)	691
2학년	286(17.0)	453(27.0)	228(13.6)	157(9.4)	156(9.3)	313(18.7)	85(5.1)	1,678
3학년	267(14.6)	525(28.7)	236(12.9)	151(8.3)	201(11.0)	357(19.5)	91(5.0)	1,828
4학년	304(15.8)	553(28.7)	242(12.6)	168(8.7)	272(14.1)	269(14.0)	116(6.0)	1,924
5학년	10(18.2)	26(47.3)	8(14.5)	1(1.8)	4(7.3)	4(7.3)	2(3.6)	55
6학년	4(16.7)	11(45.8)	3(12.5)	3(12.5)	0(0.0)	2(8.3)	1(4.2)	24
남	523(20.9)	636(25.4)	330(13.2)	221(8.8)	265(10.6)	361(14.4)	172(6.9)	2,508
여	348(11.6)	932(31.1)	387(12.9)	259(8.6)	368(12.3)	584(19.5)	123(4.1)	3,001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살펴본 결과, 공모전은 공과대학에서, 국외 연수는 약학대학에서, 국내/외 봉사활동과 기타는 의과대학에서, 취업교육은 사회과학대학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취업매칭과 현장실습은 BNIT융합대학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른 학년에 비하여 3학년은 현장실습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4학년은 취업매칭과 기타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5학년은 공모전과 국내/외 봉사활동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며 6학년은 국외 연수와 취업교육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공모전, 국내/외 봉사활동, 취업교육, 기타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국외 연수, 취업매칭, 현장실습에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1-16).

7) 앞으로 활동하고 싶은 봉사 분야

앞으로 활동하고 싶은 봉사 분야를 조사한 결과, 재능기부활동(교육, 문화, 기술 등)(36.1%)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외 봉사활동(35.2%), 시설·재가(장애시설, 요양원 등) 봉사활동(13.8%), 농촌봉사활동(10.0%), 환경정화활동(4.9%)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17).

<표 1-17> 앞으로 활동하고 싶은 봉사 분야

구분	N	%		
		2019	2018	2017
재능기부활동(교육, 문화, 기술 등)	1,991	36.1	33.7	30.4
해외봉사활동	1,938	35.2	34.6	35.1
시설·재가(장애시설, 요양원 등) 봉사활동	761	13.8	13.6	16.3
농촌봉사활동	550	10.0	13.6	14.3
환경정화활동	269	4.9	4.5	3.9
합계	5,509	100	100	100

8) 대학 축제 중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대학 축제 중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초청공연(가수)(40.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기타(17.9%), 중앙동아리 페스티벌(15.2%) 가요제(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18).

<표 1-18> 대학 축제 중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구분	N	%		
		2019	2018	2017
초청공연(가수)	2,207	40.1	34.6	39.6
기타	987	17.9	33.7	18.1
중앙동아리 페스티벌	836	15.2	13.6	16.8
가요제	790	14.3	13.6	14.7
선후배와의 만남	689	12.5	4.5	10.8
합계	5,509	100	100	100

3. 학습활동

가. 학습지원 프로그램

1) 학습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학습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아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이 32.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학습지원 프로그램 중 온라인 가장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학습유형검사(17.9%)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IU-Together(학습튜터링)(16.3%), 국내현장체험활동(8.9%), 내일로 문화체험활동(6.7%), 학습법 특강(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19).

<표 1-19> 학습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분	N	%
아는 프로그램 없음	1,875	32.6
온라인 학습유형검사	1,029	17.9
IU-Togetehr(학습튜터링)	937	16.3
국내 현장체험활동	511	8.9
내일로 문화체험활동	386	6.7
학습법 특강	311	5.4
Sharing(학습 도우미)	244	4.2
Mentoring(보충학습지도)	194	3.4
Guiding(전공 길잡이)	170	3.0
기억에 남는 좋은 수업 에세이 공모전	53	0.9
학습 UCC 공모전	42	0.7
합계	5,752	100

2) 본교 학습지원 프로그램 중 본인이 알고 있는 프로그램 수

재학생(N=5,752)을 대상으로 본교 학습지원 프로그램 중 본인이 알고 있는 프로그램 수를 조사한 결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9.2%였으며, 본교 학습지원 프로그램 중 2~4개(35.6%)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1개(16.4%), 5~7개 이상(16.4%), 8개 이상(2.8%) 순으로 나타났다(표 1-20).

<표 1-20> 본교 학습지원 프로그램 중 본인이 알고 있는 프로그램 수

구분	N	%
전혀 모름	2,255	39.2
2개~4개	2,048	35.6
1개	943	16.4
5~7개	344	6.0
8개 이상	162	2.8
합계	5,752	100

3) 본교 학습지원 프로그램 중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수

재학생 중(N=5,752)을 대상으로 본교 학습지원 프로그램 중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수를 조사한 결과, 참여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8.2%(n=3,346)였으며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수는 2~4개(19.5%)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개(18.8%), 5~7개(2.3%), 8개 이상(1.3%) 순으로 나타났다(표 1-21).

<표 1-21>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수

구분	N	%
참여경험 없음	3,346	58.2
2개~4개	1,119	19.5
1개	1,082	18.8
5~7개	130	2.3
8개 이상	75	1.3
합계	5,752	100

4) 본교에서 추가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

본교에서 추가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학습 컨설팅(학습상담 및 학습

코칭)(38.8%)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24.4%), 자기 주도적 프로젝트 교육(18.9%), 본교 우수학생의 학습법 특강(17.9%) 순으로 나타났다(표1-22).

<표 1-22> 본교에서 추가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

구분	N	%
학습컨설팅(학습상담 및 학습코칭)	2,231	38.8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	1,402	24.4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교육	1,089	18.9
본교 우수학생의 학습법 특강	1,030	17.9
합계	5,752	100

5) 계열별 우수 학생(본교 재학생)의 학습법 특강을 개최할 경우 가장 관심 있는 주제

계열별 우수 학생(본교 재학생)의 학습법 특강을 개최할 경우 가장 관심 있는 주제를 조사한 결과, 학습동기유발법(24.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외국어 학습법(18.9%), 시험준비법(16.9%)과 전공 교과목 학습법(16.9%), 레포트 작성법(15.5%), 스터디 그룹을 활용한 학습법(7.4%) 순으로 나타났다(표 1-23).

<표 1-23> 가장 관심 있는 학습법 특강 주제

구분	N	%
학습동기유발법	1,401	24.4
외국어학습법	1,087	18.9
시험준비법	974	16.9
전공 교과목 학습법	973	16.9
레포트 작성법	894	15.5
스터디 그룹을 활용한 학습법	423	7.4
합계	5,752	100

6)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고학년(3, 4학년)대상 프로그램 개발(44.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신입생 프로그램 개발(17.3%),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편입생, 장애 학생, 복수전공 신

청 학생, 외국인 학생 등)(17.3%) 개발, 학습 상담(개인 또는 집단)(11.4%), 성적경고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6.7%), 리포트 컨설팅(3.9%) 순으로 나타났다(표 1-24).

<표 1-24>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구분	N	%
고학년(3,4학년) 대상 프로그램 개발	2,533	44.0
신입생 프로그램 개발	993	17.3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편입생, 장애 학생, 복수전공신청 학생, 외국인 학생 등) 개발	957	16.6
학습 상담(개인 또는 집단)	657	11.4
성적경고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386	6.7
리포트 컨설팅	226	3.9
합계	5,752	100

7)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시간

프로그램(설명회, 특강 및 워크숍, 성과발표회 등)이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월요일 오후(16.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월요일 오전(16.4%) 과 수요일 오후(16.4%), 목요일 오후(11.3%), 금요일 오후(10.5%), 화요일 오후(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25).

<표 1-25>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시간

구분	N	%
월요일 오후	967	16.8
월요일 오전	946	16.4
수요일 오후	943	16.4
목요일 오후	649	11.3
금요일 오후	605	10.5
화요일 오후	595	10.3
화요일 오전	399	6.9
수요일 오전	309	5.4
금요일 오전	231	4.0
목요일 오전	108	1.9
합계	5,752	100

나. 학습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1)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만족 요인

재학생(N=5,752)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가장 만족한 요인을 조사한 결과, 60.1%(N=3,456)는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참여한 학생의 경우 예산지원(17.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프로그램 내용(11.0%), 행정서비스(6.1%), 교우관계 확장(3.7%), 우수사례 공유(1.8%)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26).

<표 1-26>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만족 요인

구분	N	%
참여한 적 없음	3,456	60.1
예산지원	992	17.2
프로그램 내용	634	11.0
행정서비스	350	6.1
교우관계 확장	218	3.8
우수사례 공유	102	1.8
합계	5,752	100

2)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불만족 요인

재학생(N=5,752)을 대상으로 학생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가장 불만족한 요인을 조사한 결과, 62.6%(N=3,602)는 참여한 적이 없었으며 참여한 학생의 경우 예산지원(13.6%)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행정서비스(10.2%), 프로그램 내용(6.9%), 학습시설(4.0%), 인프라(온라인)(2.7%) 순으로 나타났다(표1-27).

<표 1-27>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불만족 요인

구분	N	%
참여한 적 없음	3,602	62.6
예산지원	785	13.6
행정서비스	584	10.2
프로그램 내용	396	6.9
학습시설	228	4.0
인프라(온라인)	157	2.7
합계	5,752	100

다. 학사정보

1) 학사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게 되는 방법

학생들이 학사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게 되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 학교 홈페이지(34.0%)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를 통해서(19.1%), 각종 SNS를 통해서(18.7%), 학과사무실(1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28).

<표 1-28> 학사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게 되는 방법

구분	N	%
학교 홈페이지	1,957	34.0
친구를 통해서	1,099	19.1
각종 SNS를 통해서	1,077	18.7
학과사무실	980	17.0
교내 게시판	405	7.0
기타	234	4.1
합계	5,752	100

2)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학사제도/시스템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학사제도/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수강신청시스템(26.9%)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없음(24.1%), 전자출결시스템(11.3%), 졸업학점 제도(9.5%), 제2전공제도(7.6%), 성적 확인 및 이의신청 시스템(6.2%), 전과제도(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29).

<표 1-29>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학사제도/시스템

구분	N	%
수강신청시스템	1,546	26.9
없음	1,388	24.1
전자출결시스템	651	11.3
졸업학점제도	546	9.5
제2전공제도	437	7.6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시스템	355	6.2
전과제도	349	6.1
교육과정	318	5.5
기타	162	2.8
합계	5,752	100

4. 수업평가

가. 수업평가

1) 개인적인 호감보다는 강의의 종합적인 내용을 판단하여 수업평가를 한다.

전체 응답자(N=5,509)를 대상으로 '개인적인 호감보다는 강의의 종합적인 내용을 판단하여 수업평가를 한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71.2%(n=3,918)로 나타났고, 보통이다 26.4%(n=1,455),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2.5%(n=134)로 나타났다(표 1-30).

<표 1-30> 개인적인 호감보다 강의의 종합적인 내용으로 수업평가

구분	N	%		
		2019	2018	2017
매우 그렇다	2,257	41.0	39.2	29.0
대체로 그렇다	1,661	30.2	31.0	34.7
보통이다	1,455	26.4	27.2	32.2
대체로 그렇지 않다	78	1.4	1.3	2.1
전혀 그렇지 않다	58	1.1	1.3	2.0
합계	5,509	100	100	100

<표 1-31>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강의의 종합적인 내용으로 수업평가 ()백분율

구분	개인적인 호감보다 강의의 종합적인 내용으로 수업평가					합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단과대학	공과대학	436(40.1)	313(28.8)	308(28.3)	18(1.7)	13(1.2)	1,088
	문리과대학	353(38.2)	263(28.5)	284(30.8)	15(1.6)	8(0.9)	923
	보건의료융합대학	300(42.9)	214(30.6)	172(24.6)	9(1.3)	5(0.7)	700
	사회과학대학	503(40.3)	394(31.6)	318(25.5)	22(1.8)	10(0.8)	1,247
	소프트웨어대학	92(37.9)	64(26.3)	77(31.7)	1(0.4)	9(3.7)	243
	약학대학	55(49.5)	32(28.8)	19(17.1)	1(0.9)	4(3.6)	111
	의과대학	227(44.9)	155(30.6)	114(22.5)	7(1.4)	3(0.6)	506
	BNIT융합대학	291(42.1)	226(32.7)	163(23.6)	5(0.7)	6(0.9)	691
학년	2학년	704(42.0)	539(32.1)	392(23.4)	25(1.5)	18(1.1)	1,678
	3학년	788(43.1)	566(31.0)	445(24.3)	2(1.1)	9(0.5)	1,828
	4학년	736(38.3)	534(27.8)	596(31.0)	32(1.7)	26(1.4)	1,924
	5학년	16(29.1)	17(30.9)	18(32.7)	0(0.0)	4(7.3)	55
	6학년	13(54.2)	5(20.8)	4(16.7)	1(4.2)	1(4.2)	24
성별	남	1,067(42.5)	670(26.7)	701(28.0)	26(1.0)	44(1.8)	2,508
	여	1,190(39.7)	991(33.0)	754(25.1)	52(1.7)	14(0.5)	3,001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수업평가(개인적인 호감보다 강의의 종합적인 내용으로 수업평가)를 살펴본 결과, 모든 단과대학에서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단과대학과 비교했을 때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률은 약학대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의과대학, 보건의료융합대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5학년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응답률은 감소하였고 부정적인 응답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인 응답률이 더 높았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부정적인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1-31).

2) 나는 수강신청 시 이전 학기 수업평가의 결과를 고려한다.

'나는 수강신청 시 이전 학기 수업평가의 결과를 고려한다.'에 대한 조사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61.1%(n=3,369)로 나타났고, 보통이다 30.7%(n=1,689),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8.2%(n=411)로 나타났다(표 1-32).

<표 1-32> 이전 학기 수업평가의 결과를 고려한 수강신청

구분	N	%		
		2019	2018	2017
대체로 그렇다	1,698	30.8	30.4	29.0
보통이다	1,689	30.7	33.1	35.8
매우 그렇다	1,671	30.3	28.4	22.2
대체로 그렇지 않다	286	5.2	5.3	8.0
전혀 그렇지 않다	165	3.0	2.9	5.0
합계	5,509	100	100	100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이전 학기 수업평가의 결과를 고려한 수강신청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 결과, 타 단과대학에 비하여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률은 보건의료융합대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BNIT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률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으며 약학대학과 의과대학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5학년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응답률은 감소하였고 부정적인 응답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률 및 부정적인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1-33).

<표 1-33>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이전 학기 수업평가의 결과를 고려한 수강신청()백분율

구분		이전 학기 수업평가의 결과를 고려한 수강신청					합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단과대학	공과대학	318(29.2)	320(29.4)	361(33.2)	58(5.3)	31(2.8)	1,088
	문리과대학	274(29.7)	271(29.4)	309(33.5)	50(5.4)	19(2.1)	923
	보건의료융합대학	239(34.1)	216(30.9)	195(27.9)	34(4.9)	16(2.3)	700
	사회과학대학	393(31.5)	407(32.6)	355(28.5)	60(4.8)	32(2.6)	1,247
	소프트웨어대학	66(27.2)	70(28.8)	86(35.4)	7(2.9)	14(5.8)	243
	약학대학	33(29.7)	30(27.0)	30(27.0)	6(5.4)	12(10.8)	111
	의과대학	146(28.9)	138(27.3)	165(32.6)	31(6.1)	26(5.1)	506
	BNIT융합대학	202(29.2)	246(35.6)	188(27.2)	40(5.8)	15(2.2)	691
학년	2학년	564(33.6)	539(32.1)	459(27.4)	80(4.8)	36(2.1)	1,678
	3학년	558(30.5)	601(32.9)	537(29.4)	84(4.6)	48(2.6)	1,828
	4학년	532(27.7)	538(28.0)	664(34.5)	118(6.1)	72(3.7)	1,924
	5학년	8(14.5)	15(27.3)	23(41.8)	4(7.3)	5(9.1)	55
	6학년	9(37.5)	5(20.8)	6(25.0)	0(0.0)	4(16.7)	24
성별	남	789(31.5)	701(28.0)	818(32.6)	104(4.1)	96(3.8)	2,508
	여	882(29.4)	997(33.2)	871(29.0)	182(6.1)	69(2.3)	3,001

3) 나는 공정하게 수업평가를 한다.

'나는 공정하게 수업평가를 한다.'에 대한 조사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74.9%(n=4,126)로 나타났고, 보통이다 23.7%(n=1,303),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1.1%(n=80)로 나타났다(표 1-34).

<표 1-34> 수업평가의 공정성

구분	N	%		
		2019	2018	2017
매우 그렇다	2,462	44.7	26.1	33.6
대체로 그렇다	1,664	30.2	31.2	32.2
보통이다	1,303	23.7	41.1	31.5
대체로 그렇지 않다	45	0.8	0.9	1.2
전혀 그렇지 않다	35	0.6	0.6	1.5
합계	5,509	100	100	100

<표 1-35>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공정한 수업평가 ()백분율

구분		공정한 수업평가					합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단과 대학	공과대학	478(43.9)	323(29.7)	270(24.8)	10(0.9)	7(0.6)	1,088
	문리과대학	394(42.7)	259(28.1)	261(28.3)	5(0.5)	4(0.4)	923
	보건의료융합대학	316(45.1)	225(32.1)	149(21.3)	6(0.9)	4(0.6)	700
	사회과학대학	561(45.0)	397(31.8)	270(21.7)	12(1.0)	7(0.6)	1,247
	소프트웨어대학	104(42.8)	59(24.3)	72(29.6)	3(1.2)	5(2.1)	243
	약학대학	52(46.8)	31(27.9)	25(22.5)	1(0.9)	2(1.8)	111
	의과대학	233(46.0)	153(30.2)	113(22.3)	5(1.0)	2(0.4)	506
	BNIT융합대학	324(46.9)	217(31.4)	143(20.7)	3(0.4)	4(0.6)	691
학년	2학년	771(45.9)	555(33.1)	336(20.0)	8(0.5)	8(0.5)	1,678
	3학년	856(46.8)	560(30.6)	391(21.4)	13(0.7)	8(0.4)	1,828
	4학년	807(41.9)	529(27.5)	550(28.6)	23(1.2)	15(0.8)	1,924
	5학년	14(25.5)	15(27.3)	22(40.0)	0(0.0)	4(7.3)	55
	6학년	14(58.3)	5(20.8)	4(16.7)	1(4.2)	0(0.0)	24
성별	남	1,113(44.4)	675(26.9)	674(26.9)	17(0.7)	29(1.2)	2,508
	여	1,349(45.0)	989(33.0)	629(21.0)	28(0.9)	6(0.2)	3,001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라 공정한 수업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 결과, 모든 단과대학에서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단과대학보다 BNTI융합대학이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보건의료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의 순이었으며, 2~5학년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응답률은 감소, 부정적인 응답률은 증가하였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인 응답률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부정적인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35).

5. 취업과 진로

가. 평생지도교수제

1) 평생지도교수와의 상담에 대한 만족 여부

평생지도교수와의 상담에 대한 만족 여부에 대하여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55.7%이, 보통이다는 32.8%,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11.5%로 나타났다(표 1-36).

<표 1-36> 평생지도교수와의 상담에 대한 만족 여부

구분	N	%	
		2019	2018
보통이다	1,886	32.8	37.4
그렇다	1,781	31.0	28.2
매우 그렇다	1,422	24.7	27.2
그렇지 않다	392	6.8	4.5
전혀 그렇지 않다	271	4.7	2.7
합계	5,752	100	100

<표 1-37>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평생지도교수와의 상담에 대한 만족 여부 ()백분율

구분	평생지도교수와의 상담에 대한 만족					합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단과 대학	공과대학	286(25.7)	370(33.3)	339(30.5)	70(6.3)	47(4.2)	1,112
	문리과대학	193(26.5)	223(30.7)	239(32.9)	44(6.1)	28(3.9)	727
	보건의료융합대학	160(23.4)	207(30.3)	240(35.1)	42(6.1)	34(5.0)	683
	사회과학대학	337(22.2)	441(29.1)	533(35.1)	129(8.5)	7(5.1)	1,518
	소프트웨어대학	67(26.5)	75(29.6)	87(34.4)	12(4.7)	12(4.7)	253
	약학대학	33(28.2)	40(34.2)	31(26.5)	8(6.8)	5(4.3)	117
	의과대학	184(30.5)	193(32.0)	153(25.4)	41(6.8)	32(5.3)	603
	BNIT융합대학	162(21.9)	232(31.4)	264(35.7)	46(6.2)	35(4.7)	739
학년	2학년	445(25.5)	550(31.6)	607(34.8)	96(5.5)	45(2.6)	1,743
	3학년	446(23.9)	592(31.7)	591(31.7)	144(7.7)	94(5.0)	1,867
	4학년	467(24.1)	573(29.6)	633(32.7)	139(7.2)	123(6.4)	1,935
	5학년	36(29.0)	43(34.7)	31(25.0)	7(5.6)	7(5.6)	124
	6학년	28(33.7)	23(27.7)	24(28.9)	6(7.2)	2(2.4)	83
성별	남	756(29.1)	787(30.3)	769(29.6)	166(6.4)	123(4.7)	2,601
	여	666(21.1)	994(31.5)	1,117(35.4)	226(7.2)	148(4.7)	3,151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평생지도교수와의 상담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률은 문리과대학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의과대학, 약학대학, 공과대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 학년에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5학년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부정적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1-37).

2) 평생지도 교수제가 대학생활적용 및 진로준비에 도움 되는 정도

평생지도 교수제가 대학생활적용 및 진로준비에 도움 되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체로 도움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53.6%이었고, 보통은 34.3%, 도움 안 됨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12.2%로 나타났다(표 1-38).

<표 1-38> 평생지도교수제가 대학생활적용 및 진로준비에 도움 되는 정도

구분	N	%		
		2019	2018	2017
보통	1,972	34.3	35.0	32.7
대체로 도움	1,755	30.5	27.5	26.5
매우 도움	1,328	23.1	18.5	24.1
도움 안 됨	446	7.8	12.6	11.2
전혀 도움 안 됨	251	4.4	6.4	5.5
합계	5,752	100	100	100

<표 1-39>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평생지도교수제의 대학생활 및 진로준비 도움 정도 ()백분율

구분	평생지도교수제가 대학생활적용 및 진로준비에 도움 되는 정도					합계	
	매우 도움	대체로 도움	보통	도움 안 됨	전혀 도움 안 됨		
단과대학	공과대학	281(25.3)	343(30.8)	374(33.6)	69(6.2)	45(4.0)	1,112
	문리과대학	175(24.1)	212(29.2)	270(37.1)	45(6.2)	25(3.4)	727
	보건의료융합대학	154(22.5)	214(31.3)	227(33.2)	59(8.6)	29(4.2)	683
	사회과학대학	326(21.5)	436(28.7)	523(34.5)	153(10.1)	80(5.3)	1,518
	소프트웨어대학	60(23.7)	72(28.5)	98(38.7)	13(5.1)	10(4.0)	253
	약학대학	29(24.8)	38(32.5)	39(33.3)	6(5.1)	5(4.3)	117
	의과대학	155(25.7)	208(34.5)	167(27.7)	42(7.0)	31(5.1)	603
	BNIT융합대학	148(20.0)	232(31.4)	274(37.1)	59(8.0)	26(3.5)	739
학년	2학년	419(24.0)	547(31.4)	640(36.7)	99(5.7)	38(2.2)	1,743
	3학년	424(22.7)	573(30.7)	627(33.6)	150(8.0)	93(5.0)	1,867
	4학년	430(22.2)	564(29.1)	650(33.6)	180(9.3)	111(5.7)	1,935
	5학년	28(22.6)	49(39.5)	27(21.8)	13(10.5)	7(5.6)	124
	6학년	27(32.5)	22(26.5)	28(33.7)	4(4.8)	2(2.4)	83
성별	남	724(27.8)	791(30.4)	822(31.6)	150(5.8)	114(4.4)	2,601
	여	604(19.2)	964(30.6)	1,150(36.5)	296(9.4)	137(4.3)	3,151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평생지도교수제의 대학생활 및 진로준비 도움 정도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도움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률은 의과대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다음으로는 약학대학, 공과대학, 보건의료융합대학, 문리과대학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5학년이 긍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인 응답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1-39).

3) 평생지도교수의 지도와 상담을 받고 싶을 때 가장 어려운 점

평생지도 교수의 지도와 상담을 받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결과, 평생지도 교수님에 대한 친밀감이 부족해서(29.1%)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평생지도교수님과 상담시간을 맞추기 어려워(22.4%), 기타(16.1%), 평생지도교수님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16.0%), 나의 개인적인 정보(학점, 가정환경 등) 노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7.5%), 평생지도교수님과의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40).

<표 1-40> 평생지도교수의 지도와 상담을 받고 싶을 때 가장 어려운 점

구분	N	%		
		2019	2018	2017
평생지도교수님에 대한 친밀감이 부족해서	1,673	29.1	25.5	21.6
평생지도교수님과 상담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1,286	22.4	20.6	30.8
기타	926	16.1	2.8	-
평생지도교수님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921	16.0	29.5	30.6
개인적인 정보(학점, 가정환경 등) 노출의 부담	429	7.5	11.7	7.5
평생지도교수님과의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58	6.2	5.1	3.2
평생지도교수님과 세부전공이 달라서	159	2.8	4.8	6.3
합계	5,752	100	100	100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라 평생지도교수의 지도와 상담을 받고 싶을 때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 결과, 친밀감 부족은 보건의료융합대학에서, 상담시간 맞추기의 어려움과 교수에게 부담을 주는 같아서는 의과대학에서, 개인정보 노출 부담과 기타는 약학대학에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는 소프트웨어대학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의 경우 친밀감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4학년은 개인정보 노출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3학년은 세부전공이 달라서라는 응답률도 높게 나타났다. 5학년은 상담시간을 맞추기 어렵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률이 높았고, 6학년은 교수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와 기타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친밀감 부족, 상담시간 맞추기의 어려움, 교수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라는 문항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개인정보노출부담, 세부전공이 달라서,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문항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표1-41).

<표 1-41>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평생지도교수의 상담을 받고 싶을 때 가장 어려운 점 ()백분율

구분	평생지도교수의 지도와 상담을 받고 싶을 때 가장 어려운 점							합계
	친밀감 부족	상담시간 맞추기 어려움	부담 주는 것 같아서	개인정보 노출부담	세부전공이 달라서	필요성 못 느껴서	기타	
공과대학	318(28.6)	262(23.6)	170(15.3)	66(5.9)	21(1.9)	75(6.7)	200(18.0)	1,112
문리과대학	193(26.5)	151(20.8)	130(17.9)	56(7.7)	21(2.9)	41(5.6)	135(18.6)	727
보건의료융합대학	230(33.7)	155(22.7)	96(14.1)	59(8.6)	18(2.6)	36(5.3)	89(13.0)	683
사회과학대학	448(29.5)	349(23.0)	238(15.7)	110(7.2)	42(2.8)	101(6.7)	230(15.2)	1,518
소프트웨어대학	60(23.7)	51(20.2)	42(16.6)	23(9.1)	4(1.6)	21(8.3)	52(20.6)	253
약학대학	33(28.2)	18(15.4)	21(17.9)	12(10.3)	0(0.0)	7(6.0)	26(22.2)	117
의과대학	159(26.4)	181(30.0)	111(18.4)	28(4.6)	6(1.0)	35(5.8)	83(13.8)	603
BNIT융합대학	232(31.4)	119(16.1)	113(15.3)	75(10.1)	47(6.4)	42(5.7)	111(15.0)	739
2학년	568(32.6)	366(21.0)	265(15.2)	131(7.5)	44(2.5)	93(5.3)	276(15.8)	1,743
3학년	519(27.8)	442(23.7)	285(15.3)	141(7.6)	68(3.6)	119(6.4)	293(15.7)	1,867
4학년	544(28.1)	420(21.7)	329(17.0)	147(7.6)	42(2.2)	131(6.8)	322(16.6)	1,935
5학년	23(18.5)	39(31.5)	25(20.2)	6(4.8)	3(2.4)	11(8.9)	17(13.7)	124
6학년	19(22.9)	19(22.9)	17(20.5)	4(4.8)	2(2.4)	4(4.8)	18(21.7)	83
남	760(29.2)	617(23.7)	430(16.5)	149(5.7)	71(2.7)	134(5.2)	440(16.9)	2,601
여	913(29.0)	669(21.2)	491(15.6)	280(8.9)	88(2.8)	224(7.1)	486(15.4)	3,151

나. 진로

1) 진로문제에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기관

재학생 전체 응답자(N=5,752)를 대상으로 진로문제에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기관을 조사한 결과, 친구들(33.3%)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학교 선배들(23.1%), 진로나 취업 관련 인터넷(17.3%), 전공 교수님(12.2%), 부모나 친지

(11.2%), 학교 진로 관련 부서(대학일자리센터)(2.9%)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42).

<표 1-42> 진로문제에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기관

구분	N	%		
		2019	2018	2017
친구들	1,916	33.3	32.7	37.8
학교 선배들	1,330	23.1	19.0	19.3
진로나 취업 관련 인터넷	996	17.3	19.9	17.2
전공 교수님	700	12.2	14.4	12.2
부모나 친지	642	11.2	10.9	11.2
학교 진로 관련 부서(대학일자리센터)	168	2.9	3.1	2.3
합계	5,752	100	100	100

<표 1-43>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진로문제에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기관 ()백분율

구분	진로문제에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기관						합계	
	친구들	학교 선배	전공교수	관련 인터넷	부모·친지	대학 일자리센터		
단과대학	공과대학	393(35.3)	263(23.7)	150(13.5)	160(14.4)	123(11.1)	23(2.1)	1,112
	문리과대학	214(29.4)	124(17.1)	99(13.6)	160(22.0)	102(14.0)	28(3.9)	727
	보건의료융합대학	233(34.1)	203(29.7)	64(9.4)	103(15.1)	59(8.6)	21(3.1)	683
	사회과학대학	490(32.3)	297(19.6)	159(10.5)	327(21.5)	187(12.3)	58(3.8)	1,518
	소프트웨어대학	82(32.4)	68(26.9)	22(8.7)	45(17.8)	26(10.3)	10(4.0)	253
	약학대학	42(35.9)	48(41.0)	12(10.3)	7(6.0)	8(6.8)	0(0.0)	117
	의과대학	233(38.6)	184(30.5)	63(10.4)	59(9.8)	60(10.0)	4(0.7)	603
	BNIT융합대학	229(31.0)	143(19.4)	131(17.7)	135(18.3)	77(10.4)	24(3.2)	739
학년	2학년	594(34.1)	383(22.0)	224(12.9)	284(16.3)	226(13.0)	32(1.8)	1,743
	3학년	616(33.0)	447(23.9)	214(11.5)	309(16.6)	214(11.5)	67(3.6)	1,867
	4학년	630(32.6)	419(21.7)	241(12.5)	391(20.2)	187(9.7)	67(3.5)	1,935
	5학년	35(28.2)	53(42.7)	14(11.3)	7(5.6)	14(11.3)	1(0.8)	124
	6학년	41(49.4)	28(33.7)	7(8.4)	5(6.0)	1(1.2)	1(1.2)	83
	성별	남	905(34.8)	669(25.7)	354(13.6)	334(12.8)	281(10.8)	58(2.2)
여		1,011(32.1)	661(21.0)	346(11.0)	662(21.0)	361(11.5)	110(3.5)	3,151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진로문제에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기관을 조사한

결과, 친구들이라는 응답률은 의과대학이 가장 높았고, 학교 선배라는 응답률은 약학대학 이, 전공교수는 BNIT융합대학, 관련 인터넷, 부모·친지는 문리과대학, 대학일자리센터는 소프트웨어대학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친구들이라는 응답률은 6학년에서, 학교 선배는 5학년에서, 전공 교수와 부모·친지는 2학년에서, 관련 인터넷은 4학년, 대학일자리센터는 3학년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친구들, 학교 선배, 전공 교수에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관련 인터넷, 부모·친지, 대학일자리센터에서 다소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3).

2) 학교가 진로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학교가 진로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전체 응답자(N=5,752)의 42.4%(n=2,441), 보통이다는 40.6%(n=2,336),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16.9%(n=975)로 나타났다(표 1-44).

3)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탐색 관련 과목의 만족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탐색 관련 과목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49.9%(n=1,602), 보통 23.1%(n=1,326), 대체로 불만족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8.8%(n=283), (표 1-45).

<표 1-44> 학교의 진로 지원의 적극성

구분	N	%	
		2019	2018
보통이다	2,336	40.6	42.4
대체로 그렇다	1,284	22.3	21.7
매우 그렇다	1,157	20.1	14.0
대체로 그렇지 않다	687	11.9	14.4
전혀 그렇지 않다	288	5.0	7.6
합계	5,752	100	100

<표 1-45> 진로탐색관련 과목의 만족도

구분	N	%	
		2019	2018
보통	1,326	41.3	43.7
대체로 만족	913	28.4	27.2
매우 만족	689	21.5	6.7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178	5.5	18.9
전혀 만족하지 않음	105	3.3	3.5
합계	3,211	100	100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탐색 관련 과목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 이상은 사회과학대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BNIT 융합대학, 공과대학 등의 순이었으며, 전 학년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나 특히 6학년이 대체로 만족 이상에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은 편이었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1-46).

<표 1-46>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탐색 관련 과목의 만족도 ()백분율

구분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탐색 관련 과목의 만족도					합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단과 대학	공과대학	120(19.9)	179(29.6)	258(42.7)	30(5.0)	17(2.8)	604
	문리과대학	95(21.9)	115(26.6)	181(41.8)	25(5.8)	17(3.9)	433
	보건의료융합대학	80(22.5)	86(24.2)	158(44.4)	20(5.6)	12(3.4)	356
	사회과학대학	213(22.8)	289(30.9)	364(38.9)	47(5.0)	23(2.5)	936
	소프트웨어대학	27(20.0)	31(23.0)	65(48.1)	7(5.2)	5(3.7)	135
	약학대학	13(26.5)	11(22.4)	21(42.9)	1(2.0)	3(6.1)	49
	의과대학	65(24.2)	62(23.0)	113(42.0)	13(4.8)	16(5.9)	269
	BNIT융합대학	76(17.7)	140(32.6)	166(38.7)	35(8.2)	12(2.8)	429
학년	2학년	192(21.5)	257(28.8)	370(41.4)	46(5.2)	28(3.1)	893
	3학년	211(20.2)	296(28.4)	437(41.9)	73(7.0)	25(2.4)	1,042
	4학년	262(22.2)	336(28.4)	483(40.9)	57(4.8)	44(3.7)	1,182
	5학년	14(24.6)	13(22.8)	24(42.1)	2(3.5)	4(7.0)	57
	6학년	10(27.0)	11(29.7)	12(32.4)	0(0.0)	4(10.8)	37
성별	남	361(25.0)	395(27.4)	568(39.4)	75(5.2)	43(3.0)	1,442
	여	328(18.5)	518(29.3)	758(42.8)	103(5.8)	62(3.5)	1,769

4) 진로개발 사이트 이용 경험에 대한 만족도

진로개발 사이트 이용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49.7%(n=1,374)로 나타났고, 보통은 43.9%(n=1,213), 대체로 불만족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6.3%(n=175)로 나타났다(표 1-47).

<표 1-47> 진로개발 사이트 이용 경험에 대한 만족도

구분	N	%	
		2019	2018
보통	1,213	43.9	42.5
대체로 만족	757	27.4	27.7
매우 만족	617	22.3	22.7
대체로 불만족	100	3.6	3.7
전혀 만족하지 않음	75	2.7	3.4
합계	2,762	100	100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진로개발 사이트 이용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사회과학대학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보건의료융합대학, 문리과대학, 공과대학, 약학대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학년에서 진로개발 사이트 이용 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6학년, 4학년 등의 순으로 이용 경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체로 만족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았으며, 응답이 높았으며 대체로 불만족 이하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48).

<표 1-48>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진로개발 사이트 이용 경험에 대한 만족도 ()백분율

구분		진로개발 사이트 이용 경험에 대한 만족도					합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단과 대학	공과대학	126(22.6)	152(27.2)	246(44.1)	13(2.3)	21(3.8)	558
	문리과대학	89(24.4)	95(26.0)	150(41.1)	17(4.7)	14(3.8)	365
	보건의료융합대학	62(20.2)	96(31.3)	138(45.0)	8(2.6)	3(1.0)	307
	사회과학대학	185(23.0)	241(30.0)	338(42.0)	25(3.1)	16(2.0)	805
	소프트웨어대학	31(26.3)	25(21.2)	56(47.5)	2(1.7)	4(3.4)	118
	약학대학	10(24.4)	10(24.4)	15(36.6)	3(7.3)	3(7.3)	41
	의과대학	48(23.3)	38(18.4)	96(46.6)	17(8.3)	7(3.4)	206
	BNIT융합대학	66(18.2)	100(27.6)	174(48.1)	15(4.1)	7(1.9)	362
학년	2학년	140(19.2)	213(29.3)	333(45.7)	17(2.3)	25(3.4)	728
	3학년	203(22.0)	243(26.4)	417(45.2)	37(4.0)	22(2.4)	922
	4학년	245(23.8)	285(27.7)	435(42.3)	40(3.9)	24(0.2)	1,029
	5학년	20(39.2)	8(15.7)	16(31.4)	3(5.9)	4(7.8)	51
	6학년	9(28.1)	8(25.0)	12(37.5)	3(9.4)	0(0.0)	32
성별	남	353(28.7)	299(24.3)	505(41.1)	30(2.4)	43(3.5)	1,230
	여	264(17.2)	458(30.0)	708(46.2)	70(4.6)	32(2.1)	1,532

5) 진로개발활동 중 대학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항목

전체 응답자(N=5,752)를 대상으로 진로개발활동 중 대학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취업준비교육 프로그램(5.7%), 진로탐색 프로그램(18.9%), 기타(11.3%), 전공 관련 진로지도(9.0%), 현장실습 프로그램(8.8%), 진로멘토링(8.5%), 창업교육 프로그램(7.1%), 진로상담(취업과 진로 컨설팅)(4.3%), 진로상담(교수님)(2.7%), 취·창업관련

동아리 활동(2.4%), 진로 관련 웹사이트(1.2%)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49).

<표 1-49> 진로개발활동 중 대학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항목

구분	N	%		구분	N	%	
		2019	2018			2019	2018
취업준비교육 프로그램	1,478	25.7	27.9	창업교육 프로그램	410	7.1	7.0
진로탐색 프로그램	1,085	18.9	18.8	진로상담(취업과 진로 컨설팅)	248	4.3	4.0
기타	652	11.3	11.0	진로상담(교수님)	154	2.7	3.1
전공 관련 진로지도	515	9.0	8.3	취·창업관련 동아리 활동	140	2.4	1.9
현장실습 프로그램	508	8.8	9.5	진로 관련 웹사이트	71	1.2	0.7
진로 멘토링	491	8.5	7.8	합계	5,752	100	100

<표 1-50>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대학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진로개발 항목 ()백분율

구분	진로개발활동 중 대학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항목											합계
	진로탐색 프로그램	취업준비 프로그램	창업교육 프로그램	전공관련 진로지도	진로 멘토링	취창업 동아리	현장 실습	진로상담 (교수)	진로상담 (컨설팅)	진로관련 웹사이트	기타	
공과대학	216 (19.4)	312 (28.1)	76 (6.8)	100 (9.0)	90 (8.1)	23 (2.1)	93 (8.4)	26 (2.3)	34 (3.1)	12 (1.1)	130 (11.7)	1,112
문리과 대학	136 (18.7)	179 (24.6)	67 (9.2)	56 (7.7)	61 (8.4)	13 (1.8)	65 (8.9)	25 (3.4)	30 (4.1)	11 (1.5)	84 (11.6)	727
보건의료 융합대학	127 (18.6)	183 (26.8)	41 (6.0)	82 (12.0)	56 (8.2)	16 (2.3)	55 (8.1)	21 (3.1)	31 (4.5)	5 (0.7)	66 (9.7)	683
사회과학 대학	272 (17.9)	418 (27.5)	112 (7.4)	134 (8.8)	122 (8.0)	38 (2.5)	155 (10.2)	26 (1.7)	83 (5.5)	14 (0.9)	144 (9.5)	1,518
소프트 웨어대학	53 (20.9)	55 (21.7)	27 (10.7)	15 (5.9)	16 (6.3)	7 (2.8)	21 (8.3)	5 (2.0)	9 (3.6)	5 (2.0)	40 (15.8)	253
약학대학	23 (19.7)	15 (12.8)	5 (4.3)	14 (12.0)	19 (16.2)	2 (1.7)	12 (10.3)	8 (6.8)	4 (3.4)	1 (0.9)	14 (12.0)	117
의과대학	148 (24.5)	110 (18.2)	32 (5.3)	42 (7.0)	56 (9.3)	13 (2.2)	23 (3.8)	28 (4.6)	18 (3.0)	15 (2.5)	118 (19.6)	603
BNIT 융합대학	110 (14.9)	206 (27.9)	50 (6.8)	72 (9.7)	71 (9.6)	28 (3.8)	84 (11.4)	15 (2.0)	39 (5.3)	8 (1.1)	56 (7.6)	739
2학년	348 (20.0)	427 (24.5)	104 (6.0)	183 (10.5)	154 (8.8)	46 (2.6)	158 (9.1)	42 (2.4)	82 (4.7)	26 (1.5)	173 (9.9)	1,743
3학년	336 (18.0)	468 (25.1)	121 (6.5)	168 (9.0)	165 (8.8)	47 (2.5)	192 (10.3)	57 (3.1)	91 (4.9)	18 (1.0)	204 (10.9)	1,867
4학년	352 (18.2)	551 (28.5)	164 (8.5)	155 (8.0)	146 (7.5)	44 (2.3)	147 (7.6)	44 (2.3)	67 (3.5)	24 (1.2)	241 (12.5)	1,935
5학년	26 (21.0)	25 (20.2)	11 (8.9)	7 (5.6)	10 (8.1)	3 (2.4)	7 (5.6)	9 (7.3)	6 (4.8)	3 (2.4)	17 (13.7)	124
6학년	23 (27.7)	7 (8.4)	10 (12.0)	2 (2.4)	16 (19.3)	0 (0.0)	4 (4.8)	2 (2.4)	2 (2.4)	0 (0.0)	17 (20.5)	83
남	579 (22.3)	606 (23.3)	258 (9.9)	226 (8.7)	210 (8.1)	55 (2.1)	138 (5.3)	71 (2.7)	80 (3.1)	17 (0.7)	361 (13.9)	2,601
여	506 (16.1)	872 (27.7)	152 (4.8)	289 (9.2)	281 (8.9)	85 (2.7)	370 (11.7)	83 (2.6)	168 (5.3)	54 (1.7)	291 (9.2)	3,151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라 대학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진로개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든 단과대학에서 과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취업준비 프로그램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진로탐색프로그램과 진로관련웹사이트, 기타는 의과대학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취업준비 프로그램은 공과대학에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창업교육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대학에서, 전공관련 진로지도는 보건의료융합대학과 약학대학에서, 진로멘토링과 진로상담(교수)은 약학대학에서, 취·창업동아리활동과 현장실습은 BNIT융합대학에서, 진로상담(컨설턴트)은 사회과학대학에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모든 학년에서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진로탐색프로그램과 취업준비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표 1-50).

다. 취업

1) 취업준비교육과 관련한 과목의 만족도

전체 응답자(N=5,752)를 대상으로 취업준비교육과 관련한 과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수강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45.5%(n=2,618)로 나타났으며 수강을 했던 학생 중 대체로 만족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25.9%(n=1,487), 보통 24.0%(n=1,380), 대체로 불만족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4.6%(n=267)로 나타났다(표 1-51).

<표 1-51> 취업준비교육과 관련한 과목의 만족도

구분	N	%
수강 경험 없음	2,618	45.5
보통	1,380	24.0
대체로 만족	873	15.2
매우 만족	614	10.7
대체로 불만족	168	2.9
전혀 만족하지 않음	99	1.7
합계	5,752	100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취업준비교육과 관련한 과목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사회과학대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문리과학대학, BNIT융합대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취업준비 교과목과 관련된 과목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52).

<표 1-52>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취업준비교육과 관련한 과목의 만족도 ()백분율

구분	취업준비교육과 관련한 과목의 만족도						합계	
	수강 경험 없음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단과 대학	공과대학	495(44.5)	121(10.9)	167(15.0)	277(24.9)	32(2.9)	20(1.8)	1,112
	문리과대학	304(41.8)	81(11.1)	119(16.4)	189(26.0)	17(2.3)	17(2.3)	727
	보건의료융합대학	334(48.9)	73(10.7)	92(13.5)	152(22.3)	22(3.2)	10(1.5)	683
	사회과학대학	609(40.1)	179(11.8)	260(17.1)	401(26.4)	48(3.2)	21(1.4)	1,518
	소프트웨어대학	123(48.6)	24(9.5)	35(13.8)	61(24.1)	5(2.0)	5(2.0)	253
	약학대학	72(61.5)	10(8.5)	10(8.5)	21(17.9)	1(0.9)	3(2.6)	117
	의과대학	346(57.4)	57(9.5)	65(10.8)	111(18.4)	12(2.0)	12(2.0)	603
	BNIT융합대학	335(45.3)	69(9.3)	125(16.9)	168(22.7)	31(4.2)	11(1.5)	739
학년	2학년	919(52.7)	144(8.3)	239(13.7)	383(22.0)	39(2.2)	19(1.1)	1,743
	3학년	855(45.8)	200(10.7)	283(15.2)	443(23.7)	60(3.2)	26(1.4)	1,867
	4학년	730(37.7)	247(12.8)	328(17.0)	516(26.7)	66(3.4)	48(2.5)	1,935
	5학년	63(50.8)	16(12.9)	15(12.1)	24(19.4)	3(2.4)	3(2.4)	124
	6학년	51(61.4)	7(8.4)	8(9.6)	14(16.9)	0(0.0)	3(3.6)	83
성별	남	1,102(42.4)	338(13.0)	423(16.3)	623(24.0)	70(2.7)	45(1.7)	2,601
	여	1,516(48.1)	276(8.8)	450(14.3)	757(24.0)	98(3.1)	54(1.7)	3,151

2) 대학 취업과 진로 컨설턴트의 상담을 받아본 경험

전체 응답자(N=5,752) 중 2019-1학기에 대학 취업과 진로 컨설턴트의 상담을 받아본 경험은 있음이 74.5%(n=4,286), 없음이 25.5%(n=1,466)로 나타났다(표 1-53).

<표 1-53> 대학 취업과 진로 컨설턴트의 상담을 받아본 경험

구분	N	%		
		2019	2018	2017
없음	4,286	74.5	77.9	73.1
있음	1,466	25.5	22.1	26.9
합계	5,752	100	100	100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취업과 진로상담을 받아본 경험을 살펴본 결과, BNIT융합대학에서 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문리과대학 등의 순이었으며, 2~4학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으나 5, 6학년은 감소했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담 경험에 대한 응답률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54).

<표 1-54>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취업과 진로상담을 받아본 경험 ()백분율

구분		취업과 진로상담을 받아본 경험		합계
		있음	없음	
단과 대학	공과대학	284(25.5)	828(74.5)	1,112
	문리과대학	180(24.8)	547(75.2)	727
	보건의료융합대학	162(23.7)	521(76.3)	683
	사회과학대학	459(30.2)	1,059(69.8)	1,518
	소프트웨어대학	48(19.0)	205(81.0)	253
	약학대학	20(17.1)	97(82.9)	117
	의과대학	84(13.9)	519(86.1)	603
	BNIT융합대학	229(31.0)	510(69.0)	739
학년	2학년	316(18.1)	1,427(81.9)	1,743
	3학년	471(25.2)	1,396(74.8)	1,867
	4학년	649(33.5)	1,286(66.5)	1,935
	5학년	16(12.9)	108(87.1)	124
	6학년	14(16.9)	69(83.1)	83
성별	남	687(26.4)	1,914(73.6)	2,601
	여	779(24.7)	2,372(75.3)	3,151

3) 대학 취업과 진로 컨설턴트와의 취업과 진로상담 경험에 대한 만족도

전체 응답자(N=2,123)를 대상으로 대학 취업과 진로 컨설턴트와의 상담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컨설턴트와 상담한 학생 중 대체로 만족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55.2%(n=1,172), 대체로 불만족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6.2%(n=131)로 나타났다(표 1-55).

<표 1-55> 대학 취업과 진로 컨설턴트와의 상담 경험에 대한 만족도

구분	N	%	
		2019	2018
보통	820	38.6	36.7
매우 만족	635	29.9	32.1
대체로 만족	537	25.3	22.9
전혀 만족하지 않음	72	3.4	4.1
대체로 불만족	59	2.8	4.1
합계	2,123	100	100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취업과 진로상담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 이상의 긍정적 응답은 보건의료융합대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BNIT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문리과대학 등의 순이었다. 2~4학년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증가하며 5~6학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체로 만족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56).

<표 1-56>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취업과 진로상담 경험에 대한 만족도 ()백분율

구분		취업과 진로상담 경험에 대한 만족도					합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단과 대학	공과대학	111(27.3)	105(25.9)	170(41.9)	8(2.0)	12(3.0)	406
	문리과대학	86(29.8)	74(25.6)	112(38.8)	6(2.1)	11(3.8)	289
	보건의료융합대학	66(30.8)	60(28.0)	76(35.5)	5(2.3)	7(3.3)	214
	사회과학대학	189(30.0)	167(25.6)	244(38.8)	16(2.5)	13(2.1)	629
	소프트웨어대학	25(29.4)	20(23.5)	34(40.0)	1(1.2)	5(5.9)	85
	약학대학	16(2.5)	7(17.5)	13(32.5)	0(0.0)	4(10.0)	40
	의과대학	42(27.5)	24(15.7)	71(46.4)	3(2.0)	13(8.5)	153
	BNIT융합대학	100(32.6)	80(26.1)	100(32.6)	20(6.5)	7(2.3)	307
학년	2학년	147(28.2)	130(25.0)	213(40.9)	11(2.1)	20(3.8)	521
	3학년	193(28.8)	172(25.7)	265(39.6)	21(3.1)	18(2.7)	669
	4학년	271(40.5)	225(33.6)	324(48.4)	27(4.0)	27(4.0)	874
	5학년	18(50.0)	4(11.1)	10(27.8)	0(0.0)	4(11.1)	36
	6학년	6(26.1)	6(26.1)	8(34.8)	0(0.0)	3(13.0)	23
성별	남	353(33.7)	255(24.4)	380(36.3)	20(1.9)	38(3.6)	1,046
	여	282(26.2)	282(26.2)	440(40.9)	39(3.6)	34(3.2)	1,077

4) 전공 교수와의 취업과 진로상담 경험에 대한 만족도

전체 응답자(N=2,762)를 대상으로 전공 교수와의 취업과 진로상담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 이상이 49.7%(n=1,374), 보통 43.9%(n=1,213), 대체로 불만족 이하는 6.3%(n=175)로 나타났다(표 1-57).

<표 1-57> 전공 교수와의 취업과 진로상담 경험에 대한 만족도

구분	N	%	
		2019	2018
보통	1,213	43.9	38.5
대체로 만족	757	27.4	26.0
매우 만족	617	22.3	26.4
대체로 불만족	100	3.6	4.6
전혀 만족하지 않음	75	2.7	3.9
합계	2,762	100	100

<표 1-58>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전공교수와의 취업과 진로상담 경험 만족도 ()백분율

구분	전공교수와의 취업과 진로상담 경험에 대한 만족도					합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단과 대학	공과대학	123(26.7)	115(25.0)	194(42.2)	16(3.5)	12(2.6)	460
	문리과대학	79(25.1)	94(29.8)	121(38.4)	11(3.5)	10(3.2)	315
	보건의료융합대학	73(30.2)	67(27.7)	84(34.7)	11(4.5)	7(2.9)	242
	사회과학대학	187(27.0)	182(26.3)	268(38.7)	34(4.9)	22(3.2)	693
	소프트웨어대학	30(27.3)	28(25.5)	46(41.8)	2(1.8)	4(3.6)	110
	약학대학	11(26.8)	11(26.8)	15(36.6)	1(2.4)	3(7.3)	41
	의과대학	51(22.4)	44(24.0)	71(38.8)	11(6.0)	6(3.3)	183
	BNIT융합대학	95(26.9)	109(30.9)	118(33.4)	21(5.9)	10(2.8)	353
학년	2학년	170(27.1)	180(28.7)	244(35.7)	17(2.7)	17(2.7)	628
	3학년	189(24.6)	210(27.3)	304(39.6)	42(5.5)	23(3.0)	768
	4학년	266(28.5)	241(25.9)	349(37.4)	47(5.3)	29(3.1)	932
	5학년	17(39.5)	11(25.6)	11(25.6)	1(2.3)	3(7.0)	43
	6학년	7(26.9)	8(30.8)	9(34.6)	0(0.0)	2(7.7)	26
성별	남	379(33.3)	283(24.9)	394(34.6)	39(3.4)	43(3.8)	1,138
	여	270(21.4)	367(29.2)	523(41.5)	68(5.4)	31(2.5)	1,259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전공 교수와의 취업과 진로상담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 이상의 긍정적 응답은 보건의료융합대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BNIT융합대학, 문리과대학, 약학대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 학년에서 전공 교수와의 취업과 진로상담 경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58).

5) 취업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적정 학년

취업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적정 학년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3학년(53.7%), 2학년(24.6%), 4학년(12.3%), 1학년(9.5%)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59).

<표 1-59> 취업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적정 학년

구분	N	%	
		2019	2018
3학년	3,087	53.7	52.7
2학년	1,413	24.6	27.3
4학년	708	12.3	11.2
1학년	544	9.5	8.9
합계	5,752	100	100

<표 1-60>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적정 학년 ()백분율

구분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적정 학년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단과 대학	공과대학	98(8.8)	255(22.9)	604(54.3)	155(13.9)	1,112
	문리과대학	63(8.7)	176(24.2)	395(54.3)	93(12.8)	727
	보건의료융합대학	62(9.1)	141(20.6)	377(55.2)	103(15.1)	683
	사회과학대학	132(8.7)	385(25.4)	839(55.3)	162(10.7)	1,518
	소프트웨어대학	30(11.9)	53(20.9)	139(54.9)	31(12.3)	253
	약학대학	13(11.1)	27(23.1)	57(48.7)	20(17.1)	117
	의과대학	98(16.3)	181(30.0)	262(43.4)	62(10.3)	603
	BNIT융합대학	48(6.5)	195(26.4)	414(56.0)	82(11.1)	739
학년	2학년	147(8.4)	499(28.6)	965(55.4)	132(7.6)	1,743
	3학년	162(8.7)	425(22.8)	1,066(57.1)	214(11.5)	1,867
	4학년	202(10.4)	425(22.0)	982(50.7)	326(16.8)	1,935
	5학년	17(13.7)	45(36.3)	42(33.9)	20(16.1)	124
	6학년	16(19.3)	19(22.9)	32(38.6)	16(19.3)	83
성별	남	294(11.3)	613(23.6)	1,340(51.5)	354(13.6)	2,601
	여	250(7.9)	800(25.4)	1,747(55.4)	354(11.2)	3,151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취업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적정 학년을 조사한 결과, 1학년, 2학년이라는 응답은 의과대학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3학년이라는 응답은 BNIT융합대학에서, 4학년이라는 응답은 약학대학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 학년에서 3학년 때 취업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 비교했을 때에도 남학생이 여학생 모두 3학년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표 1-60).

6) 본교 취업 준비 교과목에 대한 생각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본교 취업 준비 교과목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N=5,752) 중 대체로 충분함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30.9%(n=1,783)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51.4%(n=2,957), 대체로 부족하다는 편의 부정적인 응답은 17.6%(n=1,012)로 나타났다(표 1-61).

<표 1-61> 본교 취업 준비 교과목에 대한 생각

구분	N	%
보통	2,957	51.4
대체로 충분함	1,182	20.5
대체로 부족한 편	789	13.7
매우 충분함	601	10.4
아주 부족함	223	3.9
합계	5,752	100

라. 해외 취업

1) 해외취업진로센터 인지도

해외취업진로센터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N=5,509) 중 해외진로센터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응답이 66.0%(n=3,634), 모른다는 응답이 34.0%(n=1,875)로 나타났다(표 1-62).

<표 1-62> 해외취업진로센터 인지도

구분	N	%
알고 있다	3,634	66.0
모른다	1,875	34.0
합계	5,509	100

2) '성공해외취업전략' 자유 선택 교과목(2학점) 개설 운영 인지도

'성공해외취업전략' 자유 선택 교과목(2학점)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N=5,509) 중 알고 있다는 응답이 59.1%(n=3,254), 모른다는 응답이 40.9%(n=2,255)로 나타났다(표 1-63).

<표 1-63> '성공해외취업전략' 자유 선택 교과목(2학점) 개설 운영 인지도

구분	N	%
모른다	3,254	59.1
알고 있다	2,255	40.9
합계	5,509	100

3) 해외취업박람회 참여 의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매년 2회(상·하반기) 개최하고 있는 해외취업박람회를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에 대하여 행사는 몰랐지만 참가할 의향은 있다(38.6%)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행사를 알고 있으며 참가할 의향이 있다(26.2%), 행사도 몰랐고 참가하고 싶지도 않다(21.9%), 행사를 알고 있지만 참가하고 싶지는 않다(13.3%) 순으로 나타났다(표 1-64).

<표 1-6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개최하는 해외취업박람회 참여 의향

구분	N	%
행사는 몰랐지만, 참가할 의향은 있다	2,127	38.6
행사를 알고 있으며, 참가할 의향이 있다	1,442	26.2
행사도 몰랐고, 참가하고 싶지도 않다	1,205	21.9
행사를 알고 있지만, 참가하고 싶지는 않다	735	13.3
합계	5,509	100

4) '해외 취업과 진로 컨설팅(캠프)' 행사에 참여할 의향

'해외 취업과 진로 컨설팅(캠프)' 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에 대하여 행사는 몰랐지만 참가할 의향은 있다(37.9%)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행사를 알고 있으며 참가할 의향이 있다(25.0%), 행사도 몰랐고 참가하고 싶지도 않다

(22.6%), 행사를 알고 있지만 참가하고 싶지는 않다(14.6%) 순으로 나타났다(표 1-65).

<표 1-65> '해외 취업과 진로 컨설팅(캠프)' 행사 참여 의향

구분	N	%
행사는 몰랐지만, 참가할 의향은 있다.	2,089	37.9
행사를 알고 있으며, 참가할 의향이 있다.	1,375	25.0
행사도 몰랐고, 참가하고 싶지도 않다.	1,243	22.6
행사를 알고 있지만, 참가하고 싶지는 않다.	802	14.6
합계	5,509	100

5) 해외 인턴십 참가 희망 국가

해외 인턴십 참가 희망 국가를 조사한 결과, 미국(27.0%)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는 캐나다(18.9%), 호주(14.2%), 말레이시아(13.8%), 일본(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6).

<표 1-66> 해외인턴십 희망 국가

구분	N	%
미국	1,489	27.0
캐나다	1,042	18.9
호주	782	14.2
말레이시아	758	13.8
일본	755	13.7
기타	350	6.4
베트남	215	3.9
중국	118	2.1
합계	5,509	100

6)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N=5,752) 중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58.6%(n=3,369)이고 관심 없다는 응답이 41.4%(n=2,383)로 절반 이상의 학생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67).

<표 1-67>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

구분	N	%
관심 있다	3,369	58.6
관심 없다	2,383	41.4
합계	5,752	100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해외 취업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학과에서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BNIT융합대학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보건의료융합대학, 문리과대학, 공과대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학년이 가장 관심도가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었다. 남학생, 여학생 모두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다는 긍정적 응답률이 높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표 1-68).

<표 1-68>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 ()백분율

구분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		합계	
	관심 있음	관심 없음		
단과대학	공과대학	702(63.1)	410(36.9)	1,112
	문리과대학	461(63.4)	266(36.6)	727
	보건의료융합대학	435(63.7)	248(36.3)	683
	사회과학대학	831(54.7)	687(45.3)	1,518
	소프트웨어대학	146(57.7)	107(42.3)	253
	약학대학	39(33.3)	78(66.7)	117
	의과대학	282(46.8)	321(53.2)	603
	BNIT융합대학	473(64.0)	266(36.0)	739
학년	2학년	1,177(67.5)	566(32.5)	1,743
	3학년	1,119(59.9)	748(40.1)	1,867
	4학년	996(51.5)	939(48.5)	1,935
	5학년	50(40.3)	74(59.7)	124
	6학년	27(32.5)	56(67.5)	83
성별	남	1,463(56.2)	1,138(43.8)	2,601
	여	1,906(60.5)	1,245(39.5)	3,151

7) 해외 취업에 대한 학생의 의사

해외 취업에 대한 학생의 의사를 조사한 결과, 상담 후 결정할 수 있음(41.3%),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음(33.1%), 전혀 관심 없음(25.6%)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69).

<표 1-69> 해외 취업에 대한 학생의 의사

구분	N	%	
		2019	2018
상담 후 결정할 수 있음	2,374	41.3	45.1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음	1,905	33.1	33.4
전혀 관심 없음	1,473	25.6	21.5
합계	5,752	100	100

<표 1-70>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해외 취업에 대한 학생의 의사 ()백분율

구분	해외 취업에 대한 학생의 의사			합계	
	적극 참여	상담 후 결정	전혀 관심 없음		
단과 대학	공과대학	405(36.4)	466(41.9)	241(21.7)	1,112
	문리과대학	251(34.5)	310(42.6)	166(22.8)	727
	보건의료융합대학	265(38.8)	279(40.8)	139(20.4)	683
	사회과학대학	455(30.0)	635(41.8)	428(28.2)	1,518
	소프트웨어대학	80(31.6)	116(45.8)	57(22.5)	253
	약학대학	23(19.7)	29(24.8)	65(55.6)	117
	의과대학	155(25.7)	219(36.3)	229(38.0)	603
	BNIT융합대학	271(36.7)	320(43.3)	148(20.0)	739
학년	2학년	663(38.0)	750(43.0)	330(18.9)	1,743
	3학년	629(33.7)	782(41.9)	456(24.4)	1,867
	4학년	566(29.3)	780(40.3)	589(30.4)	1,935
	5학년	31(25.0)	40(32.3)	53(42.7)	124
	6학년	16(19.3)	22(26.5)	45(54.2)	83
성별	남	866(33.3)	1,030(39.6)	705(27.1)	2,601
	여	1,039(33.0)	1,344(42.7)	768(24.4)	3,151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해외 취업에 대한 학생의 의사를 살펴본 결과,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보건의료융합대학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는 BNIT융합대학, 공과대학, 문리과대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적극 참여 의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적극적인 참여 의사에 대한 응답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70).

8) 해외 취업 희망국가

해외 취업 희망국가를 조사한 결과, 해외 취업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N=5,752) 중 37.4%(n=2,151)로 나타났으며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미국(24.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캐나다(11.4%), 기타 국가(8.0%), 일본(7.8%), 호주(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71).

<표 1-71> 해외 취업 희망 국가

구분	N	%
관심 없다	2,151	37.4
미국	1,414	24.6
캐나다	653	11.4
기타 국가	459	8.0
일본	451	7.8
호주	347	6.0
싱가폴	199	3.5
베트남	57	1.0
말레이시아	21	0.4
합계	5,752	100

9) 상기 국가에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전체 대상자(N=5,752)를 대상으로 상기 국가에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해외 취업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37.9%(n=2,179)로 나타났으며 해외 취업에 희망하는 경우, 취업 후 배울 것이 많다(26.6%)는 응답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어학이 안돼서 취업 후 현지 언어를 배우고 싶다(12.4%), 구인 수요가 많아서 취업이 쉽다(7.8%), 급여가 높다(7.6%), 기타(7.6%) 순으로 나타났다(표 1-72).

<표 1-72> 해외 취업 희망하는 이유

구분	N	%
해외 취업에 관심 없음	2,179	37.9
취업 후 배울 것이 많다	1,528	26.6
어학이 안돼서 취업 후 현지 언어를 배우고 싶다	716	12.4
구인 수요가 많아서 취업이 쉽다	449	7.8
급여가 높다	440	7.6
기타	440	7.6
합계	5,752	100

10) 해외 취업 희망 직무

해외 취업을 희망한다면 어떤 직무에 취업을 희망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N=5,752) 중 해외 취업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37.1%(n=2,134)로 나타났으며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직(IT, 디자이너 등)(37.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일반 사무직(행정)(19.1%), 기타(9.9%), 생산/관리직(6.2%), 서비스직(호텔 등)(5.2%) 순으로 나타났다(표 1-73).

<표 1-73> 해외 취업 희망 직무

구분	N	%
해외 취업에 관심이 없음	2,134	37.1
전문직(IT, 디자이너 등)	1,297	22.5
일반 사무직(행정)	1,097	19.1
기타	569	9.9
생산/관리직	354	6.2
서비스직(호텔 등)	301	5.2
합계	5,752	100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해외 취업 희망 직무를 조사한 결과, 약학대학에서 해외 취업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 사무직(행정)은 사회과학대학에서, 생산/관리직은 BNIT융합대학에서, 전문직(IT, 디자이너 등)은 소프트웨어대학에서, 서비스직(호텔 등)은 문리과대학에서, 기타는 보건의료융합대학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해외 취업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아졌으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일반 사무직(행정), 생산/관리직에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전문직(IT, 디자이너 등), 서비스직(호텔 등), 기타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표 1-74).

<표1-74>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해외취업 희망 직무 ()백분율

구분		해외 취업 희망 직무						합계
		해외 취업 관심 없음	일반 사무직(행정)	생산/관리직	전문직 (IT, 디자이너 등)	서비스직 (호텔 등)	기타	
단 과 대 학	공과대학	345(31.0)	179(16.1)	92(8.3)	430(38.7)	17(1.5)	49(4.4)	1,112
	문리과대학	236(32.5)	164(22.6)	40(5.5)	100(13.8)	94(12.9)	93(12.8)	727
	보건의료융합대학	222(32.5)	101(14.8)	42(6.1)	177(25.9)	28(4.1)	113(16.5)	683
	사회과학대학	623(41.0)	432(28.5)	80(5.3)	131(8.6)	114(7.5)	138(9.1)	1,518
	소프트웨어대학	89(35.2)	43(17.0)	7(2.8)	101(39.9)	5(2.0)	8(3.2)	253
	약학대학	72(61.5)	9(7.7)	0(0.0)	26(22.2)	1(0.9)	9(7.7)	117
	의과대학	313(51.9)	56(9.3)	18(3.0)	107(17.7)	12(2.0)	97(16.1)	603
	BNIT융합대학	234(31.7)	113(15.3)	75(10.1)	225(30.4)	30(4.1)	62(8.4)	739
학 년	2학년	548(31.4)	326(18.7)	108(6.2)	471(27.0)	95(5.5)	195(11.2)	1,743
	3학년	665(35.6)	369(19.8)	104(5.6)	437(23.4)	100(5.4)	192(10.3)	1,867
	4학년	799(41.3)	376(19.4)	138(7.1)	348(18.0)	104(5.4)	170(98.8)	1,935
	5학년	64(51.6)	21(16.9)	3(2.4)	29(23.4)	0(0.0)	7(5.6)	124
	6학년	58(69.9)	5(6.0)	1(1.2)	12(14.5)	2(2.4)	5(6.0)	83
성 별	남	994(38.2)	544(20.9)	221(8.5)	564(21.7)	94(3.6)	184(7.1)	2,601
	여	1,140(36.2)	553(17.5)	133(4.2)	733(23.3)	207(6.6)	385(12.2)	3,151

11)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 힘든 점

전체 응답자(N=5,752)를 대상으로 하여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 힘든 점을 조사한 결과, 해외 취업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37.5%(n=2,158)였으며 다음으로는 현지 취업 정보 부족(27.2%), 어학 능력 부족(17.6%), 경제적 이유(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75).

<표 1-75>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 힘든 점

구분	N	%
해외 취업에 관심 없음	2,158	37.5
현지 취업 정보 부족	1,563	27.2
어학 능력 부족	1,012	17.6
경제적 이유	633	11.0
현지 문화 이해 부족	273	4.7
부모님 반대	113	2.0
합계	5,752	100

6. 마일리지제도

가. 인제스타마일리지 제도

1) 인제스타마일리지 제도 인지도

인제스타마일리지 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25.9%)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대체로 알고 있다(23.6%), 대체로 모른다(20.9%), 전혀 모른다(16.3%), 매우 잘 안다(13.2%) 순으로 나타났다(표 1-76).

<표 1-76> 인제스타마일리지 제도 인지도

구분	N	%
보통이다	1,491	25.9
대체로 알고 있다	1,357	23.6
대체로 모른다	1,204	20.9
전혀 모른다	938	16.3
매우 잘 안다	762	13.2
합계	5,752	100

2) 인제스타마일리지제도 도전 경험

인제스타마일리지 제도에 도전해본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없다(58.1%)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있다(23.1%), 선발되기 어려워서 시도하지 않는다(18.8%) 순으로 나타났다(표 1-77).

<표 1-77> 인제스타마일리지 제도 도전 경험

구분	N	%
없다	3,343	58.1
있다	1,330	23.1
선발되기 어려워서 시도하지 않는다	1,079	18.8
합계	5752	100

7. 장학 및 도서관

가. 장학

1) 학비의 주된 조달 방법

학비의 주된 조달 방법으로는 부모·형제(자매) 수입(53.9%)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장학금 수혜(27.7%), 학자금대출(13.0%), 본인 아르바이트(근로 장학금 포함)(4.2%), 친척·친지 지원(1.3%) 순으로 나타났다(표 1-78).

<표 1-78> 학비의 주된 조달 방법

구분	N	%		
		2019	2018	2017
부모·형제(자매)수입	2,970	53.9	53.2	52.5
장학금수혜	1,525	27.7	27.3	27.0
학자금대출	715	13.0	12.2	13.6
본인 아르바이트(근로장학금포함)	230	4.2	5.7	4.9
친척·친지 지원	69	1.3	1.6	2.0
합계	5,509	100	100	100

<표 1-79>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학비의 주된 조달 방법 ()백분율

구분	학비의 주된 조달 방법					합계	
	장학금수혜	학자금대출	부모·형제(자매)수입	본인 아르바이트	친척·친지 지원		
단과대학	공과대학	276(25.4)	148(13.6)	602(55.3)	48(4.4)	14(1.3)	1,088
	문리과대학	273(29.6)	110(11.9)	483(52.3)	49(5.3)	8(0.9)	923
	보건의료융합대학	205(29.3)	105(15.0)	362(51.7)	22(3.1)	6(0.9)	700
	사회과학대학	408(32.7)	125(10.0)	639(51.2)	59(4.7)	16(1.3)	1,247
	소프트웨어대학	62(25.5)	30(12.3)	137(56.4)	7(2.9)	7(2.9)	243
	약학대학	19(17.1)	25(22.5)	59(53.2)	4(3.6)	4(3.6)	111
	의과대학	97(19.2)	74(14.6)	308(60.9)	20(4.0)	7(1.4)	506
	BNIT융합대학	185(26.8)	98(14.2)	380(55.0)	21(3.0)	7(1.0)	691
학년	2학년	459(27.4)	185(11.0)	953(56.8)	65(3.9)	16(1.0)	1,678
	3학년	521(28.5)	256(14.0)	960(52.5)	74(4.0)	17(0.9)	1,828
	4학년	530(27.5)	256(13.3)	1,016(52.8)	90(4.7)	32(1.7)	1,924
	5학년	9(16.4)	14(25.5)	28(50.9)	0(0.0)	4(7.3)	55
	6학년	6(25.0)	4(16.7)	13(54.2)	1(4.2)	0(0.0)	24
성별	남	704(28.1)	322(12.8)	1,324(52.8)	114(4.5)	44(1.8)	2,508
	여	821(27.4)	393(13.1)	1,646(54.8)	116(3.9)	25(0.8)	3,001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학비의 주된 조달 방법을 살펴본 결과, 타 단과대학보다 장학금수혜와 본인 아르바이트(근로 장학금 포함)는 사회과학대학이, 학자금대출과 친척·친지 지

원은 약학대학, 부모·형제 수입은 의과대학이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부모·형제(자매) 수입은 2학년이, 장학금수혜는 3학년이, 본인 아르바이트는 4학년이, 학자금대출 및 친척·친지 지원은 5학년이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장학금수혜 및 본인 아르바이트(근로 장학금 포함), 친척·친지 지원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학자금대출, 부모·형제(자매) 수입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79).

2) 장학금을 받기 위해 가장 많이 취해본 노력

장학금을 받기 위해 가장 많이 취해본 노력을 조사한 결과, 학점관리(56.5%), 외국어 능력 향상(15.8%), 노력하지 않음(11.0%), 자격증 취득(7.0%), 근로 활동(교내, 교외)(5.6%), 학생단체활동(4.2%) 순으로 나타났다(표 1-80).

<표 1-80> 장학금을 받기 위해 가장 많이 취해본 노력

구분	N	%		
		2019	2018	2017
학점관리	3,114	56.5	53.1	49.2
외국어 능력 향상	868	15.8	16.2	19.8
노력하지 않음	605	11.0	12.5	11.6
자격증 취득	385	7.0	9.1	10.3
근로활동(교내, 교외)	308	5.6	5.6	5.7
학생단체 활동	229	4.2	3.5	3.4
합계	5,509	100	100	100

3) 학업장려비 지급

학업의욕 고취를 위해 교내장학금의 성격을 등록금 범위 내 지급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업장려비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N=5,509) 중 찬성한다는 의견이 55.6%(n=3,061), 중립(모름)이 26.9%(n=1,484), 반대 의견이 17.5%(n=964)로 나타났다(표 1-81).

<표 1-81> 교내 장학금 등록금 범위초과 학업장려비로 지급

구분	N	%
찬성	3,061	55.6
중립(모름)	1,484	26.9
반대	964	17.5
합계	5,509	100

4) 장학금 제도에 대한 개선점

장학금 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조사한 결과 성적향상장학금 대상자 확대(43.1%), 인제장학사정제 수혜대상자 확대(17.0%), 장학금 1인 수혜금액의 증대(16.8%), 다양한 장학 종류 개발(14.2%), 다각적인 장학제도 홍보 노력(8.9%)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82).

<표 1-82> 장학금 제도에 대한 개선점

구분	N	%		
		2019	2018	2017
성적향상장학금 대상자 확대	2,372	43.1	31.1 (소득분위 무관 지급)	32.5 (소득분위 무관 지급)
인제장학사정관제 수혜대상자 확대	938	17.0	-	-
장학금 1인 수혜금액의 증액	924	16.8	14.9	14.4
다양한 장학 종류 개발	784	14.2	8.1	9.3
다각적인 장학제도 홍보 노력	491	8.9	7.6	7.9
수혜대상자 확대	-	-	38.3	35.9
합계	5,509	100	100	100

5) 학업 유지에 효과적이고 필요한 장학금 종류

학업 유지에 효과적이고 필요한 장학금 종류를 조사한 결과, 성적 관련(우수, 향상) 장학금(46.8%)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18.8%), 취·창업지원 장학금(15.3%), 외국어 능력향상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장학금(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83).

<표 1-83> 학업 유지에 효과적이고 필요한 장학금 종류

구분	N	%
성적 관련(우수, 향상) 장학금	2,578	46.8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	1,038	18.8
취·창업지원 장학금	842	15.3
외국어 능력향상 및 자격증취득 지원 장학금	504	9.1
기타 장학금	377	6.8
해외취업진로지원 장학금	170	3.1
합계	5,509	100

6) 학생기구 단체장에 대한 봉사장학금의 성격에 대한 생각

학생기구 단체장에 대한 봉사장학금의 성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둘 다 중복이 41.5%(n=2,284)로 나타났으며 봉사장학금이라는 의견이 35.5%(n=1,954), 리더십장학금이라는 의견이 23.1%(n=1,271)로 나타났다(표 1-84).

<표 1-84> 학생기구 단체장에 대한 봉사장학금의 성격에 대한 생각

구분	N	%
둘 다 중복	2,284	41.5
봉사장학금	1,954	35.5
리더십장학금	1,271	23.1
합계	5,509	100

나. 도서관 이용

1) 도서관 이용 횟수

재학생 전체 응답자(N=5,752)를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횟수를 조사한 결과 1주일에 1~3회(29.2%)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거의 이용하지 않음(23.6%), 월 1~3회(22.4%), 거의 매일(13.1%), 2주일에 1~3회(11.7%),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1-85).

<표 1-85> 도서관 이용 횟수

구분	N	%		
		2019	2018	2017
1주일에 1~3회	1,680	29.2	27.9	29.2
거의 이용하지 않음	1,356	23.6	24.8	22.7
월 1~3회	1,288	22.4	23.7	20.6
거의 매일	753	13.1	9.2	14.7
2주일에 1~3회	675	11.7	14.5	12.8
합계	5,752	100	100	100

2) 도서관 방문 시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

도서관 방문 시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에 대한 응답으로는 13:00~17:00(37.0%)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17:00~22:00(32.0%), 09:00~13:00(15.5%), 09:00 이전

(9.9%), 22:00 이후(5.6%)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86).

<표 1-86> 도서관 방문 시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

구분	N	%		
		2019	2018	2017
13:00~17:00	2,127	37.0	40.0	37.1
17:00~22:00	1,842	32.0	32.6	31.8
09:00~13:00	890	15.5	14.0	13.9
09:00 이전	570	9.9	6.5	11.6
22:00 이후	323	5.6	7.0	5.6
합계	5,752	100	100	100

3)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목적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목적은 일반열람실, 개인열람실, 스터디룸 이용(44.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도서관 열람, 대출, 반납(27.5%), 비 도서자료 및 멀티미디어실 이용(10.0%), 기타(6.3%), 학술 DB 및 전자저널, 국회 자료 이용(5.5%), 휴식, 친구와의 만남 장소로 활용(4.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1-87).

<표 1-87> 도서관 이용 목적

구분	N	%		
		2019	2018	2017
일반, 개인, 스터디룸 이용	2,581	44.9	44.6	42.0
도서관 열람, 대출, 반납	1,582	27.5	24.5	29.5
비 도서자료 및 멀티미디어실 이용	578	10.0	10.6	10.3
기타	365	6.3	7.7	7.2
학술 DB 및 전자저널, 국회 자료 이용	314	5.5	6.9	5.9
휴식, 친구와의 만남 장소로 활용	277	4.8	4.0	3.8
문화행사 관람 및 참여	55	1.0	1.7	1.3
합계	5,752	100	100	100

4)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공지사항을 얻는 곳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공지사항을 얻는 곳에 대한 응답으로는 학교 홈페이지(27.6%)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도서관 홈페이지(20.4%),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등)(16.4%),

교내 공지문(포스터, 현수막)(15.8%), 교내 사람들(선후배, 조교, 교수님 등)(10.4%), 기타(9.4%)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88).

<표 1-88>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공지사항을 얻는 곳

구분	N	%		
		2019	2018	2017
학교 홈페이지	1,587	27.6	24.9	-
도서관 홈페이지	1,173	20.4	19.3	36.4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946	16.4	15.2	11.1
교내 공지문(포스터, 현수막)	906	15.8	17.3	19.2
교내 사람들(선후배, 조교, 교수님 등)	601	10.4	11.3	17.8
기타	539	9.4	12.0	15.5
합계	5,752	100	100	100

5) 본교 도서관에서 확충되어야 할 것

본교 도서관에서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는 일반도서, 음악, 영화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19.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벤치,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18.7%), 일반 열람실 환경개선(책상, 의자, 조명 등) 교체(16.3%), E-Book, 학술 DB 등의 전자자료(12.2%)와 기타(12.2%), 컴퓨터 등의 멀티미디어 기기(9.9%), 3~5층 자료열람실 환경개선(서가교체 등)(6.2%), 책 소독기, 자동대출 반납기 등의 최신 시설(5.1%)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1-89).

<표 1-89> 본교 도서관에서 확충되어야 할 것

구분	N	%		
		2019	2018	2017
일반도서 및 음악, 영화 등 멀티미디어 자료	1,112	19.3	18.5	11.3
벤치,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	1,074	18.7	15.7	24.0
일반 열람실 환경개선(책상, 의자, 조명 등) 교체	940	16.3	17.6	-
E-Book, 학술DB등의 전자 자료	702	12.2	11.2	8.2
기타	701	12.2	14.2	12.9
컴퓨터 등 멀티미디어 기기	571	9.9	11.9	9.5
3~5층 자료열람실 환경개선(서가교체 등)	359	6.2	6.7	-
책 소독기, 자동대출 반납기 등의 최신 시설	293	5.1	4.2	-
도서 자료	-	-	-	28.2
냉난방 시스템	-	-	-	5.9
합계	5,752	100	100	100

8. 교내시설 및 교통

가. 교내시설

1) 교내 공간(강의실, 사물함, 체육시설 등)과 기자재 이용 및 대여의 용이성

교내 공간과 기자재 이용 및 대여의 용이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51.8%, 보통이다 37.2%,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11.0%로 나타났다(표 1-90).

<표 1-90> 교내 공간과 기자재 이용 및 대여의 용이성

구분	N	%		
		2019	2018	2017
보통이다	2,051	37.2	41.1	41.9
대체로 그렇다	1,701	30.9	29.8	29.6
매우 그렇다	1,151	20.9	19.9	16.4
대체로 그렇지 않다	420	7.6	6.0	7.8
전혀 그렇지 않다	186	3.4	3.2	4.3
합계	5,509	100	100	100

2) 교내 휴식공간(휴게실, 벤치 등)의 충분성

교내 휴식공간이 충분한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54.9%, 보통이다는 35.3%,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 응답은 19.8%로 나타났다(표 1-91).

<표 1-91> 교내 휴식 공간의 충분성

구분	N	%		
		2019	2018	2017
보통이다	1,944	35.3	39.1	38.3
대체로 그렇다	1,457	26.4	27.4	26.0
매우 그렇다	1,020	18.5	18.6	15.6
대체로 그렇지 않다	760	13.8	10.5	13.9
전혀 그렇지 않다	328	6.0	4.4	6.2
합계	5,509	100	100	100

나. 통학

1) 교내 통학버스 이용(차량 수, 요금, 배차 간격 등)의 편리성

교내 통학버스 이용에 대한 편리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48.5%, 보통이라는 37.6%,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13.9%로 나타났다(표 1-92).

<표 1-92> 교내 통학버스 이용의 편리성

구분	N	%		
		2019	2018	2017
보통이다	2,072	37.6	38.1	39.5
대체로 그렇다	1,670	30.3	29.7	30.1
매우 그렇다	1,004	18.2	20.8	18.5
대체로 그렇지 않다	523	9.5	7.4	7.6
전혀 그렇지 않다	240	4.4	4.0	4.3
합계	5,509	100	100	100

9. 음주 · 흡연

가. 흡연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N=5,509) 중 81.0%(n=4,461)의 학생들은 흡연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19.0%(n=1,048)의 학생들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93).

<표 1-93> 현재 흡연 여부

구분	N	%		
		2019	2018	2017
아니요	4,461	81.0	80.3	81.2
예	1,048	19.0	19.7	18.8
합계	5,509	100	100	100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현재 흡연 중인 학생을 살펴본 결과, 공과대학의 흡연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문리과대학, 소프트웨어대학, 보건의료융합대

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흡연 응답률이 줄어들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흡연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94).

<표 1-94>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현재 흡연 여부 ()백분율

구분	현재 흡연 여부		합계	
	예	아니요		
단과대학	공과대학	297(27.3)	791(72.7)	1,088
	문리과대학	198(21.5)	725(78.5)	923
	보건의료융합대학	124(17.7)	576(82.3)	700
	사회과학대학	220(17.6)	1,027(82.4)	1,247
	소프트웨어대학	50(20.6)	193(79.4)	243
	약학대학	11(9.9)	100(90.1)	111
	의과대학	38(7.5)	468(92.5)	506
	BNIT융합대학	110(15.9)	581(84.1)	691
학년	2학년	339(20.2)	1,339(79.8)	1,678
	3학년	348(19.0)	1,480(81.0)	1,828
	4학년	351(18.2)	1,573(81.8)	1,924
	5학년	7(12.7)	48(87.3)	55
	6학년	3(12.5)	21(87.5)	24
성별	남	800(31.9)	1,708(68.1)	2,508
	여	248(8.3)	2,753(91.7)	3,001

나. 음주

재학생을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N=5,509)의 37.8%(n=2,083)가 현재 음주를 한다고 응답하였다(표 1-95).

<표 1-95> 현재 음주 여부

구분	N	%		
		2019	2018	2017
아니요	3,426	62.2	63.8	41.2
예	2,083	37.8	36.2	58.8
합계	5,509	100.0	100	100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현재 음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과대학이 음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사회과학대학, 문리과대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음주율은 감소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음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음주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96).

<표 1-96>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현재 음주 여부 ()백분율

구분		현재 음주 여부		합계
		예	아니요	
단과 대학	공과대학	459(42.2)	629(57.8)	1,088
	문리과대학	359(38.9)	564(61.1)	923
	보건의료융합대학	242(34.6)	458(65.4)	700
	사회과학대학	496(39.8)	751(60.2)	1,247
	소프트웨어대학	78(32.1)	165(67.9)	243
	약학대학	31(27.9)	80(72.1)	111
	의과대학	181(35.8)	325(64.2)	506
	BNIT융합대학	237(34.3)	454(65.7)	691
학년	2학년	667(39.7)	1,011(60.3)	1,678
	3학년	723(39.6)	1,105(60.4)	1,828
	4학년	671(34.9)	1,253(65.1)	1,924
	5학년	16(29.1)	39(70.9)	55
	6학년	6(25.0)	18(75.0)	24
성별	남	1,114(44.4)	1,394(55.6)	2,508
	여	969(32.3)	2,032(67.7)	3,001

10. 학생상담진로센터 및 정신건강

가. 학생상담진로센터

1) 본교 학생상담진로센터 운영 여부에 대한 인식

전체 응답자(N=5,752)를 대상으로 학생상담진로센터가 운영하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대체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34.2%(n=1,965)로 나타났고, 알고 있었으나 어떤 기관인지 잘 몰랐음은 25.1%(n=1,443), 매우 잘 알고 있음은 19.1%(n=1,097),

잘 모름은 13.8%(n=796), 전혀 몰랐다는 응답은 7.8%(n=451)로 나타났다(표 1-97).

<표 1-97> 학생상담진로센터 운영 여부에 대한 인식

구분	N	%		
		2019	2018	2017
대체로 알고 있음	1,965	34.2	-	-
알고 있었으나 어떤 기관인지 잘 몰랐음	1,443	25.1	26.4	30.1
매우 잘 알고 있음	1,097	19.1	-	-
잘 모름	796	13.8	33.1	27.1
전혀 몰랐음	451	7.8	26.2	28.0
잘 알고 있었음	-	-	14.3	14.8
합계	5,752	100	100	100

2) 심리적 갈등 및 어려움이 발생 시 심리상담 전문가의 필요성

심리적 갈등 및 어려움이 발생 시 심리상담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으로는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54.2%(n=3,017), 보통이다 35.2%(n=2,026),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10.6%(n=609)로 나타났다(표 1-98/표 1-99).

<표 1-98> 심리상담 전문가의 필요성(2019년)

구분	N	%
보통이다	2,026	35.2
대체로 그렇다	1,980	34.4
매우 그렇다	1,137	19.8
대체로 그렇지 않다	393	6.8
전혀 그렇지 않다	216	3.8
합계	5,752	100

<표 1-99> 심리상담 전문가의 필요성(2018년)

구분	N	%	
		2018	2017
필요하다	4,192	68.3	73.4
필요 없다	1,945	31.7	26.6
합계	6,137	100	100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심리상담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타 단과대학에 비하여 사회과학대학에서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의과대학, 보건의료융합대학, 문리과대학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심리상담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00).

<표 1-100>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심리상담 전문가의 필요성 ()백분율

구분		심리상담 전문가의 필요성					합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단과 대학	공과대학	208(18.7)	347(31.2)	434(39.0)	77(6.9)	46(4.1)	1,112
	문리과대학	156(21.5)	239(32.9)	254(34.9)	51(7.0)	27(3.7)	727
	보건의료융합대학	127(18.6)	253(37.0)	241(35.3)	40(5.9)	22(3.2)	683
	사회과학대학	322(21.2)	560(36.9)	498(32.8)	97(6.4)	41(2.7)	1,518
	소프트웨어대학	41(16.2)	85(33.6)	100(39.5)	11(4.3)	16(6.3)	253
	약학대학	31(26.5)	38(32.5)	29(24.8)	13(11.1)	6(5.1)	117
	의과대학	122(20.2)	216(35.8)	192(31.8)	35(5.8)	38(6.3)	603
	BNIT융합대학	130(17.6)	242(32.7)	278(37.6)	69(9.3)	20(2.7)	739
학년	2학년	354(20.3)	620(35.6)	613(35.2)	96(5.5)	60(3.4)	1,743
	3학년	366(19.6)	652(34.9)	674(36.1)	111(5.9)	64(3.4)	1,867
	4학년	376(19.4)	648(33.5)	672(34.7)	164(8.5)	75(3.9)	1,935
	5학년	22(17.7)	38(30.6)	39(31.5)	13(10.5)	12(9.7)	124
	6학년	19(22.9)	22(26.5)	28(33.7)	9(10.8)	5(6.0)	83
	성별	남	538(20.7)	786(30.2)	986(37.9)	172(6.6)	119(4.6)
여		599(19.0)	1,194(37.9)	1,040(33.0)	221(7.0)	97(3.1)	3,151

3) 심리적 갈등 및 어려움 발생 시 학생상담진로센터 방문 의향

심리적 갈등 및 어려움 발생 시 학생상담진로센터 방문 의향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48.8%(n=2,809), 보통이다 37.9%(n=2,182),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12.2%(n=761)로 나타났다(표 1-101).

<표 1-101> 심리적 갈등 및 어려움 발생 시 학생상담진로센터 방문 의향

구분	N	%
보통이다	2,182	37.9
대체로 그렇다	1,653	28.7
매우 그렇다	1,156	20.1
대체로 그렇지 않다	451	7.8
전혀 그렇지 않다	310	5.4
합계	5,752	100

<표 1-102>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심리적 갈등 및 어려움 발생 시 학생상담진로센터 방문 의향 ()백분율

구분		심리적 어려움 발생 시 센터 방문 의향					합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단과대학	공과대학	217(19.5)	295(26.5)	463(41.6)	89(8.0)	48(4.3)	1,112
	문리과대학	153(21.0)	210(28.9)	278(38.2)	45(6.2)	41(5.6)	727
	보건의료융합대학	126(18.4)	209(30.6)	248(36.3)	61(8.9)	39(5.7)	683
	사회과학대학	333(21.9)	464(30.6)	533(35.1)	115(7.6)	73(4.8)	1,518
	소프트웨어대학	44(17.4)	70(27.7)	106(41.9)	11(4.3)	22(8.7)	253
	약학대학	33(28.2)	27(23.1)	40(34.2)	10(8.5)	7(6.0)	117
	의과대학	122(20.2)	179(29.7)	210(34.8)	50(8.3)	42(7.0)	603
	BNIT융합대학	128(17.3)	199(26.9)	304(41.1)	70(9.5)	38(5.1)	739
학년	2학년	344(19.7)	513(29.4)	675(38.7)	125(7.2)	86(4.9)	1,743
	3학년	379(20.3)	541(29.0)	702(37.6)	143(7.7)	102(5.5)	1,867
	4학년	383(19.8)	553(28.6)	730(37.7)	166(8.6)	103(5.3)	1,935
	5학년	31(25.0)	31(25.0)	43(34.7)	9(7.3)	10(8.1)	124
	6학년	19(22.9)	15(18.1)	32(38.6)	8(9.6)	9(10.8)	83
성별	남	599(23.0)	718(27.6)	985(37.9)	153(5.9)	146(5.6)	2,601
	여	557(17.7)	935(29.7)	1,197(38.0)	298(9.5)	164(5.2)	3,151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심리적 갈등 및 어려움 발생 시 학생상담진로센터 방문 의향을 조사한 결과, 사회과학대학이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약학대학, 의과대학, 문리과대학과 보건의료융합대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학년이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3학년, 2학년, 4학년, 6학년 순으로 나타났고 학년이 높을수록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이 높아졌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1-102).

4) 상담 진행 장소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도움 요청 시 원하는 상담 진행 장소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N=5,357) 중 42.0%(n=2,413)의 학생들은 교내 학생상담진로센터를 상담 진행 장소로

원했으며, 35.2%(n=2,023)의 학생들은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22.9%(n=1,316)의 학생들은 외부 상담센터 연계를 원한다고 응답했다(표 1-103).

<표 1-103> 전문가 도움 요청 시 원하는 상담 진행 장소

구분	N	%
교내 학생상담진로센터	2,413	42.0
요청할 생각 없음	2,023	35.2
외부 상담센터 연계	1,316	22.9
합계	5,752	100

5) 본교 학생상담진로센터가 하는 일

본교 학생상담진로센터가 하는 일을 조사한 결과, 대학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는 곳(47.4%)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취업과 진로를 위한 검사와 상담하는 곳(33.4%),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상담하는 곳(10.8%), 학사 행정이나 학교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곳(8.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1-104).

<표 1-104> 본교 학생상담진로센터가 하는 일

구분	N	%		
		2019	2018	2017
대학 생활과 관련된 문제 상담	2,728	47.4	33.6	37.2
취업과 진로를 위한 검사와 상담	1,923	33.4	41.6	40.2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상담하는 곳	622	10.8	17.8	16.6
학사, 행정이나 학교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곳	479	8.3	7.0	6.0
합계	5,752	100	100	100

6) 학생상담진로센터 프로그램 참여 또는 이용희망 프로그램

학생상담진로센터 프로그램 참여 또는 이용희망 프로그램은 개인상담이 31.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심리검사(29.5%), 관심 없다(18.2%), 집단상담(13.6%), 학생 주도적 참여프로그램(7.1%)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105).

<표 1-105> 참여 또는 이용희망 프로그램

구분	N	%		
		2019	2018	2017
개인상담	1,813	31.5	35.8	39.8
심리검사(적성·성격, 심리상태 등)	1,697	29.5	31.9	31.7
관심 없다	1,048	18.2	17.7	15.4
집단상담	784	13.6	6.9	6.9
학생 주도적 참여프로그램 (드래상담자활동, 청춘콘서트, '나의 청춘이야기' 등)	410	7.1	-	-
전문가 초빙 특강	-	-	7.7	6.2
합계	5,752	100	100	100

<표 1-106>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학생상담진로센터 참여 또는 이용희망 프로그램 ()백분율

구분		학생상담진로센터 참여 또는 이용희망 프로그램					합계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학생주도적 참여프로그램	관심 없음	
단 과 대 학	공과대학	342(30.8)	303(27.2)	178(16.0)	78(7.0)	211(19.0)	1,112
	문리과대학	235(32.3)	233(32.0)	114(15.7)	35(4.8)	110(15.1)	727
	보건의료융합대학	229(33.5)	208(30.5)	82(12.0)	42(6.1)	122(17.9)	683
	사회과학대학	479(31.6)	481(31.7)	201(13.2)	128(8.4)	229(15.1)	1,518
	소프트웨어대학	74(29.2)	61(24.1)	34(13.4)	17(6.7)	67(26.5)	253
	약학대학	37(31.6)	48(41.0)	8(6.8)	7(6.0)	17(14.5)	117
	의과대학	202(33.5)	158(26.2)	70(11.6)	29(4.8)	144(23.9)	603
	BNIT융합대학	215(29.1)	205(27.7)	97(13.1)	74(10.0)	148(20.0)	739
학 년	2학년	523(30.0)	566(32.5)	216(12.4)	141(8.1)	297(17.0)	1,743
	3학년	596(31.9)	521(27.9)	270(14.5)	148(7.9)	332(17.8)	1,867
	4학년	621(32.1)	558(28.8)	275(14.2)	111(5.7)	370(19.1)	1,935
	5학년	43(34.7)	34(27.4)	14(11.3)	6(4.8)	27(21.8)	124
	6학년	30(36.1)	18(21.7)	9(10.8)	4(4.8)	22(26.5)	83
성 별	남	922(35.4)	643(24.7)	387(14.9)	156(6.0)	493(19.0)	2,601
	여	891(28.3)	1,054(33.4)	397(12.6)	254(8.1)	555(17.6)	3,151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학생상담진로센터에서 참여하거나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개인상담은 보건의료융합대학과 의과대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심리검사는 약학대학에서, 집단상담은 공과대학에서, 학생주도적참여프로그램은 BNIT융합대학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4학년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개인상담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 주도적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응답률이 낮아졌고 관심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개인상담, 집단상담, 관심 없음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심리검사와 학생 주도적 참여프로그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06).

7) 학생상담진로센터 방문 시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

학생상담진로센터 방문 시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은 진로적성(40.8%)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학업 및 성적(26.5%), 심리와 정서(우울, 불안, 분노 등)(16.0%), 대인관계(9.0%), 성격(4.1%), 가치관(2.2%), 이성관계(0.8%), 성 관련 문제(0.3%), 가족 문제(0.25)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107).

<표 1-107> 상담센터에서 가장 도움 받고 싶은 부분

구분	N	%		
		2019	2018	2017
진로적성	2,345	40.8	42.2	45.5
학업 및 성적	1,524	26.5	26.1	24.2
심리와 정서(우울, 불안, 분노 등)	923	16.0	6.6 (성격 포함)	7.0 (성격 포함)
대인관계	517	9.0	6.7	6.2
성격	238	4.1	-	-
가치관	127	2.2	2.4	3.2
이성 관계	45	0.8	1.4	1.2
성 관련 문제	20	0.3	-	-
가족 문제	13	0.2	3.9	2.7
기타	-	-	10.7	10.0
합계	5,752	100	100	100

나. 정신건강

1)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시도를 해본 경험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시도를 해본 경험에 대한 응답으로는 90.0%(n=5,716)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10.0%(n=576)는 있다고 응답했다(표 1-108).

<표 1-108>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시도를 해본 경험

구분	N	%		
		2019	2018	2017
없다	5,176	90.0	89.5	83.6
있다	576	10.0	10.5	16.4
합계	5,752	100	100	100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시도를 해본 경험을 조사한 결과, 자살시도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소프트웨어대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약학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 문리과대학, BNIT융합대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살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살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09).

<표 1-109>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시도를 해본 경험 ()백분율

구분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시도를 해본 경험		합계
		있다	없다	
단과 대학	공과대학	122(11.0)	990(89.0)	1,112
	문리과대학	74(10.2)	653(89.8)	727
	보건의료융합대학	53(7.8)	630(92.2)	683
	사회과학대학	141(9.3)	1,377(90.7)	1,518
	소프트웨어대학	36(14.2)	217(85.8)	253
	약학대학	14(12.0)	103(88.0)	117
	의과대학	62(10.3)	541(89.7)	603
	BNIT융합대학	74(10.0)	665(90.0)	739
학년	2학년	159(9.1)	1,584(90.9)	1,743
	3학년	182(9.7)	1,685(90.3)	1,867
	4학년	205(10.6)	1,730(89.4)	1,935
	5학년	21(16.9)	103(83.1)	124
	6학년	9(10.8)	74(89.2)	83
성 별	남	310(11.9)	2,291(88.1)	2,601
	여	266(8.4)	2,885(91.6)	3,151

2)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우울감 정도

최근 2~3주 동안 우울을 느끼는 정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대체로 우울한 편임이 12.4%(n=711), 매우 우울함이 5.0%(n=285)로 나타났다(표 1-110).

<표 1-110>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우울감 정도

구분	N	%		
		2019	2018	2017
보통임	1,912	33.2	28.5	26.9
전혀 우울하지 않음	1,791	31.1	29.0	25.7
대체로 우울하지 않음	1,053	18.3	17.3	16.4
대체로 우울한 편임	711	12.4	18.2	18.2
매우 우울한 편임	285	5.0	7.0	12.8
합계	5,752	100	100	100

<표 1-111>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우울감 정도 ()백분율

구분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우울감 정도					합계
		매우 우울한 편임	대체로 우울한 편임	보통임	대체로 우울하지 않음	전혀 우울하지 않음	
단과 대학	공과대학	72(6.5)	134(12.1)	364(32.7)	169(15.2)	373(33.5)	1,112
	문리과대학	32(4.4)	96(13.2)	252(34.7)	138(19.0)	209(28.7)	727
	보건의료융합대학	28(4.1)	80(11.7)	228(33.4)	146(21.4)	201(29.4)	683
	사회과학대학	63(4.2)	200(13.2)	537(35.4)	267(17.6)	451(29.7)	1,518
	소프트웨어대학	12(4.7)	37(14.6)	86(34.0)	28(11.1)	90(35.6)	253
	약학대학	11(9.4)	7(6.0)	29(24.8)	26(22.2)	44(37.6)	117
	의과대학	40(6.6)	63(10.4)	194(32.2)	118(19.6)	188(31.2)	603
	BNIT융합대학	27(3.7)	94(12.7)	222(30.0)	161(21.8)	235(31.8)	739
학년	2학년	70(4.0)	191(11.0)	577(33.1)	375(21.5)	530(30.4)	1,743
	3학년	91(4.9)	234(12.5)	599(32.1)	322(17.2)	621(33.3)	1,867
	4학년	101(5.2)	266(13.7)	675(34.9)	319(16.5)	574(29.7)	1,935
	5학년	12(9.7)	16(12.9)	37(29.8)	20(16.1)	39(31.5)	124
	6학년	11(13.3)	4(4.8)	24(28.9)	17(20.5)	27(32.5)	83
성별	남	153(5.9)	319(12.3)	787(30.3)	370(14.2)	972(37.4)	2,601
	여	132(4.2)	392(12.4)	1,125(35.7)	683(21.7)	819(26.0)	3,151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우울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우울한 편에 대한 응답률을 약학대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의과대학, 공

과대학, 소프트웨어대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한 편임에 대한 응답이 2~4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대체로 우울한 편임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매우 우울한 편임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11).

3)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분노감 정도

최근 2~3주 동안 분노를 느끼는 정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가끔씩 화가 나는 편임이 13.5%(n=779), 항상 화가 남이 4.1%(n=238)로 나타났다(표 1-112).

<표 1-112>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분노감 정도

구분	N	%		
		2019	2018	2017
보통임	1,791	31.1	28.1	26.6
전혀 나지 않음	1,693	29.4	26.4	22.9
대체로 화가 나지 않음	1,251	21.7	20.6	19.2
가끔씩 화가 남	779	13.5	18.6	19.6
항상 화가 남	238	4.1	6.3	11.7
합계	5,752	100	100	100

<표 1-113>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분노감 정도 ()백분율

구분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분노감 정도					합계	
	항상 화가 남	가끔씩 화가 남	보통임	대체로 화가 나지 않음	전혀 나지 않음		
단과대학	공과대학	59(5.3)	139(12.5)	356(32.0)	221(19.9)	337(30.3)	1,112
	문리과대학	32(4.4)	117(16.1)	245(33.7)	139(19.1)	194(26.7)	727
	보건의료융합대학	24(3.5)	81(11.9)	217(31.8)	163(23.9)	198(29.0)	683
	사회과학대학	60(4.0)	229(15.1)	469(30.9)	330(21.7)	430(28.3)	1,518
	소프트웨어대학	7(2.8)	33(13.0)	80(31.6)	44(17.4)	89(35.2)	253
	약학대학	7(6.0)	12(10.3)	29(24.8)	24(20.5)	45(38.5)	117
	의과대학	28(4.6)	73(12.1)	174(28.9)	146(24.2)	182(30.2)	603
	BNIT융합대학	21(2.8)	95(12.9)	221(29.9)	184(24.9)	218(29.5)	739
학년	2학년	58(3.3)	214(12.3)	540(31.0)	419(24.0)	512(29.4)	1,743
	3학년	77(4.1)	242(13.0)	552(29.6)	411(22.0)	585(31.3)	1,867
	4학년	83(4.3)	294(15.2)	640(33.1)	378(19.5)	540(27.9)	1,935
	5학년	11(8.9)	20(16.1)	37(29.8)	23(18.5)	33(26.6)	124
	6학년	9(10.8)	9(10.8)	22(26.5)	20(24.1)	23(27.7)	83
성별	남	135(5.2)	317(12.2)	745(28.6)	481(18.5)	923(35.5)	2,601
	여	103(3.3)	462(14.7)	1,046(33.2)	770(24.4)	770(24.4)	3,151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분노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 항상 화가남에 대한 응답률은 약학대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공과대학, 의과대학, 문리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항상 화가남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2~5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가끔씩 화가 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항상 화가남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13).

4) 분노, 우울, 자살 생각이나 충동 등으로 힘든 경험을 하고 있을 시 상담희망 여부

분노, 우울, 자살 생각이나 충동 등으로 힘든 경험을 하고 있을 시 분노, 우울, 자살 생각이나 충동 등을 경험하고 있고 도움을 받고 싶다(62.7%), 도움을 받고 싶지만 주위에 알려질까 봐 걱정이 되어 망설여진다(20.6%),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1.7%)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114).

<표 1-114> 힘든 경험을 하고 있을 시 상담희망 여부

구분	N	%		
		2019	2018	2017
분노, 우울, 자살 생각이나 충동 등을 경험하고 있고 도움을 받고 싶다	603	62.7	59.8	60.9
분노, 우울, 자살 생각이나 충동 등이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지만 주위에 알려질까 봐 걱정이 된다	198	20.6	39.6	20.5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160	1.7	0.6	18.6
합계	961	100	100	100

5) 현재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현재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는 진로문제(46.1%)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학업문제(23.4%), 기타(12.8%), 심리정서(9.4%), 교우관계(4.4%), 이성관계(2.3%), 교수님과의 관계(0.9%), 가족관계(0.7%)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115).

<표 1-115> 현재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구분	N	%		
		2019	2018	2017
진로문제	2,654	46.1	46.0	43.5
학업 문제	1,344	23.4	25.5	29.1
기타	735	12.8	13.9	1.1
심리정서	542	9.4	-	-
교우관계	253	4.4	8.1	6.5
이성 관계	134	2.3	3.0	3.5
교수님과의 관계	52	0.9	2.4	1.9
가족관계	38	0.7	1.1	14.4
합계	5,752	100	100	100

<표 1-116> 단과대학, 학년에 따른 현재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백분율

구분	현재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합계	
	진로문제	학업문제	심리정서	교우관계	교수님 관계	이성관계	가족관계	기타		
단 과 대 학	공과대학	516 (46.4)	255 (22.9)	120 (10.8)	48 (4.3)	12 (1.1)	30 (2.7)	9 (0.8)	122 (11.0)	1,112
	문리과 대학	383 (52.7)	122 (16.8)	77 (10.6)	32 (4.4)	4 (0.6)	9 (1.2)	7 (1.0)	93 (12.8)	727
	보건의료 융합대학	289 (42.3)	194 (28.4)	60 (8.8)	29 (4.2)	5 (0.7)	18 (2.6)	6 (0.9)	82 (12.0)	683
	사회과학 대학	775 (51.1)	318 (20.9)	145 (9.6)	76 (5.0)	10 (0.7)	34 (2.2)	7 (0.5)	153 (10.1)	1,518
	소프트 웨어대학	119 (47.0)	64 (25.3)	19 (7.5)	5 (2.0)	2 (0.8)	7 (2.8)	0 (0.0)	37 (14.6)	253
	약학대학	28 (23.9)	24 (20.5)	18 (15.4)	4 (3.4)	2 (1.7)	5 (4.3)	2 (1.7)	34 (29.1)	117
	의과대학	154 (25.5)	196 (32.5)	50 (8.3)	37 (6.1)	10 (1.7)	20 (3.3)	2 (0.3)	134 (22.2)	603
	BNIT 융합대학	390 (52.8)	171 (23.1)	53 (7.2)	22 (3.0)	7 (0.9)	11 (1.5)	5 (0.7)	80 (10.8)	739
학 년	2학년	670 (38.4)	534 (30.6)	151 (8.7)	84 (4.8)	18 (1.0)	44 (2.5)	13 (0.7)	229 (13.1)	1,743
	3학년	864 (46.3)	443 (23.7)	151 (8.1)	81 (4.3)	18 (1.0)	56 (3.0)	13 (0.7)	241 (12.9)	1,867
	4학년	1,052 (54.4)	310 (16.0)	212 (11.0)	81 (4.2)	13 (0.7)	29 (1.5)	11 (0.6)	227 (11.7)	1,935
	5학년	32 (25.8)	42 (33.9)	16 (12.9)	6 (4.8)	2 (1.6)	4 (3.2)	1 (0.8)	21 (16.9)	124
	6학년	36 (43.4)	15 (18.1)	12 (14.5)	1 (1.2)	1 (1.2)	1 (1.2)	0 (0.0)	17 (20.5)	83
성 별	남	1,104 (42.4)	593 (22.8)	279 (10.7)	125 (4.8)	29 (1.1)	91 (3.5)	19 (0.7)	361 (13.9)	2,601
	여	1,550 (49.2)	751 (23.8)	263 (8.3)	128 (4.1)	23 (0.7)	43 (1.4)	19 (0.6)	374 (11.9)	3,151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현재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조사한 결과, 진로문제 응답률을 타 단과대학보다 문리과대학이, 학업문제, 교우관계는 의과대학이, 심리정서, 이성 관계, 가족관계, 기타는 약학대학이, 교수님 관계는 약학대학과 의과대학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문제는 4학년에서, 교우관계는 2학년과 5학년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학업문제, 이성 관계는 5학년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교수님 관계, 기타에서는 6학년에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심리정서, 교우관계, 교수님과의 관계, 이성 관계, 기타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진로문제, 학업 문제에서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16).

11. 본 설문 응답의 충실성

본 설문조사에 얼마나 충실하게 응답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학기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77.5%)이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5.7%)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2학기의 경우 역시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83.2%)이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3.2%)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표 1-117).

<표 1-117> 본 설문 응답의 충실성

구분	2019-1학기		2019-2학기	
	N	%	N	%
매우 그렇다	2,891	50.3	3,242	58.8
대체로 그렇다	1,563	27.2	1,346	24.4
보통이다	973	16.9	744	13.5
대체로 그렇지 않다	201	3.5	112	2.0
전혀 그렇지 않다	124	2.2	65	1.2
합계	5,752	100.0	5,509	100.0

IV. 요약 및 결론

본 조사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대학(학과)생활 만족도

2019학년도 재학생의 전체 응답자(N=5,752)를 대상으로 대학(학과)생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2019학년도 재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 이상의 응답률(54.6%)이 지난해(45.1%)보다 높아졌고, 대체로 불만족 이하(6.4%)는 지난해(11.1%)와 비교했을 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학대학, 의과대학에서 만족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 학년과 남학생, 여학생 모두 대학생활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학교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으로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 부족(18.4%)과 기타(18.4%)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 부족은 지난해(27.0%)보다 낮아졌으며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족, 비용과 거리 등의 통학 여건, 교과과정의 구성 및 교육의 질 등 다른 항목들도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생활 만족도는 만족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53.7%였고 보통이 39.0%, 불만족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7.4%로 나타났다. 현재 학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학과적 성 불일치 문제(24.7%)가 가장 높은 원인으로 지난해(19.7%)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나 선후배 등 대인관계 문제(8.9%)도 지난해(7.5%)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환경(강의실, 실습실 등의 시설, 면학 분위기 등)에 대한 불만족, 교과과정의 구성 및 교육의 질적인 문제, 교수에 대한 기대 불일치, 학과에 대한 주변 사람들(가족 또는 보호자)의 기대 불일치는 지난해보다 감소하였다. 1학년부터 진로탐색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진출 및 전 인생과정에서 대인관계 능력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대인관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대인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현재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재학생들은 불만족 해결의 대안으로 현재의 전공으로 졸업 후 해결방안을 모색(40.4%)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40.7%)보다 낮아졌고 기타(10.0%), 복수전공(10.0%) 등 다른 항목들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 교육환경은 재학생들이 적성 불일치로 인한 학업의욕 저하와 학습의 어려움을 겪

고 있는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연계전공, 전과 등의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 부서의 심리 및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시스템을 통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학업 및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면 학교생활에 더 만족하여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2. 대학생활

2019학년도 재학생의 전체 응답자(N=5,752)를 대상으로 대학 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알고 싶은 것을 조사하였다. 재학생들은 전공학과의 전망(30.8%), 취업 정보(22.4%), 졸업, 휴학, 제적, 성적 등 학사관리(11.3%)에 대하여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었으며, 대학 내 각종 시설물, 기관 활용정보(4.8%)는 지난해(6.9%)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학생들이 장학정보에 대한 관심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해외활동(전공연수, 교환학생, 해외인턴, 해외 봉사활동 등)(24.2%), 전공공부 및 학업(23.8%), 폭넓은 대인관계(22.5%)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해외 활동을 경험하고 싶은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해외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활에서 가장 인간관계를 맺기 힘든 대상은 전체 응답자(N=5,752) 중 27.3%(n=1,570)가 교수라고 응답했으나 지난해(27.8%)와 비교했을 때 약간 감소한 수치를 보였으며 선후배, 조교 등과의 관계에서 어렵다는 응답률이 소폭 낮아졌으나 동급생과의 관계에서 어려움(13.5%)은 지난해(11.6%)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대인관계는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만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된다면 대학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학과 교수님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기대로는 충실한 강의(학문적 지도)(41.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취업과 진로지도(28.0%), 인간적 사제관계(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이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재학생은 응답자(N=5,509) 중 53.9%(n=2,969)로 2017년(51.5%), 2018년(52.9%)에 이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업 및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써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학생활동 중 우리 대학에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은 전체 응답자(N=5,509) 중 28.5%(n=1,568)가 국외 연수를 선호하였고 현장실습(17.2%)과 공모전(13.0%), 국내/외 봉사활동(13.0%), 취업매칭(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수, 현장실습, 취업매칭의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모전과 국내/외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하고 싶은 봉사 분야로는 재능기부활동(33.7%)과 해외 봉사활동(35.2%)을 선호하였으며, 시설-재가 봉사활동(13.8%)은 지난해(13.6%)와 비슷하였고 농촌봉사활동(10.0%)은 2017년(14.3%), 2018년(13.6%)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축제 중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초청공연(40.1%)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34.6%)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며, 중앙동아리 페스티벌과 가요제, 선후배와의 만남도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타(17.9%)는 지난해(33.7%)보다 크게 낮아져 재학생들의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3. 학습활동

가. 학습지원 프로그램

2019학년도 재학생의 전체 응답자(N=5,752)를 대상으로 학습활동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학습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N=5,752) 중 32.6%(n=1,875)가 아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온라인 학습유형검사(17.9%), IU-Together(학습튜터링)(16.3%), 국내 현장체험활동(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수도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N=5,752) 중 58.2%(n=3,346)가 참여경험이 없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에서 추가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학습컨설팅(38.8%),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24.4%),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교육(18.9%), 본교 우수학생의 학습법 특강(17.9%) 순으로 나타났고, 계열별 우수 학생(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법 특강을 개최할 경우 가장 관심 있는 주제를 조사한 결과 학습동기유발법(24.4%)이 가장 높

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외국어 학습법(18.9%), 시험준비법(16.9%), 전공 교과목 학습법(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고학년을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44.0%)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신입생 프로그램 개발(17.3%),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16.6%)이 뒤를 이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월요일 오후(16.8%), 월요일 오전(16.4%), 수요일 오후(16.4%)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기초가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는 학과에 진학한 경우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휴학 및 자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홍보과 인식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나. 학습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만족한 요인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N=5,752) 중 과반수 이상인 60.1%(n=3,456)는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예산지원(17.2%), 프로그램 내용(11.0%) 등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않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예산지원(13.6%)과 행정 서비스(10.2%)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없었지만 학생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서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다. 학사정보

학생들이 학사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게 되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 학교홈페이지(34.0%), 친구를 통해서(19.0%), 각종 SNS를 통해서(18.7%), 학과사무실(1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사정보를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학사정보/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수강신청시스템(26.9%)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외에도 전자출결시스템(11.3%), 졸업학점제도(9.5%)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학사제도는 수강신청, 출석, 졸업학점에 대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수업평가

2019학년도 재학생 전체 응답자(N=5,509)를 대상으로 수업평가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재학생들은 수업평가에 대하여 '개인적인 호감보다는 강의의 종합적인 내용으로 수업평가를 한다'에 대한 조사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응답이 71.2%(n=5,509)로 지난해(70.2%)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2.5%(n=134)로 지난해(2.6%)보다 낮게 나타나 대체로 학생들이 강의의 종합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수강신청 시 이전 학기 수업평가의 결과를 고려한다'에 대한 조사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응답이 응답자(N=5,509)의 61.1%(n=3,369)로 지난해(58.8%)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8.2%(n=411)로 지난해(8.2%)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전 수업평가의 결과를 고려해서 수강신청을 한다는 응답률이 낮아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증가하여 대다수의 재학생들은 수강신청 시 이전 학기 수업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지만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수강신청 시 이전 학기를 수업평가를 고려하는 빈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공정하게 수업평가를 한다.'에 대한 조사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74.9%(n=4,126)로 지난해(57.3%)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1.1%(n=80)로 지난해(1.5%)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정하게 수업평가를 비율이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공정하게 수업평가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재학생들은 대체로 개인적인 호감보다 강의의 종합적인 내용으로 수업평가를 하고, 수강신청 시 이전 학기 수업평가의 결과를 고려하며, 공정하게 수업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5. 취업과 진로

가. 평생지도교수제

평생지도교수와의 상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N=5,752) 중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55.7%)이 지난해(55.4%)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11.5%)은 지난해(7.2%)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학년에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5학년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평생지도교수제가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도움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53.6%)이 지난해(46.0%)보다 증가하였으며 도움 안 됨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12.2%)은 지난해(19.0%)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평생지도교수제를 통해 대학생활이나 진로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지도교수의 지도와 상담을 받고 싶을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평생지도교수님에 대한 친밀감이 부족해서(29.1%), 평생지도교수님과 상담시간을 맞추기 어려워(22.45), 기타(16.1%), 평생지도교수님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16.0%)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지난해보다 응답률이 높아졌다. 또한 평생지도교수님의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6.2%)이 지난해(5.1%)보다 상승하였으며 2~5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높아졌다. 학생들은 평생지도교수제도를 통해 학교생활이나 진로준비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편안하게 자발적으로 교수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수 편에서의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과 지도에 대한 계획 및 시도가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탐색 관련 과목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49.9%(n=1,602), 보통 23.1%(n=1,326), 대체로 불만족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8.8%(n=283)로 나타났다.

나. 진로

2019학년도 재학생의 전체 응답자(N=5,752)를 대상으로 진로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재학생들은 진로문제에 가장 도움을 주는 대상을 친구들(33.3%)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교 선배들(23.1%), 진로나 취업 관련 인터넷(1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친구들, 학교 선배들, 부모나 친지라는 비율이 높아졌고 진로나 취업 관련 인터넷, 전공 교수님, 학교 진로 관련 부서(대학일자리센터)라는 응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진로문제는 진로나 취업 관련 인터넷, 전공 교수님, 학교 진로 관련 부서(대학일자리센터)의 도움도 받고 있지만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과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학교가 진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N=5,752) 중 42.4%(n=2,441)가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했으며 지난해(35.7%)보다 높아졌고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16.9%(n=975)로 지난해(22.0%)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대학이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탐색 관련 과목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49.9%(n=1,602)였으며 지난해(33.9%)보다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아졌으며 대체로 불만족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8.8%(n=283)로 지난해(22.4%)보다 낮아져 진로탐색관련 과목 만족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타 단과대학과 비교했을 때 사회과학대학에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BNIT융합대학, 공과대학 등의 순이었으며, 전 학년에서 만족도가 높았는데 특히 6학년이 대체로 만족 이상에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은 편이었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진로개발 사이트 이용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49.7%(n=1,374)로 나타났고, 지난해(50.4%)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감소했으며 대체로 불만족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6.3%(n=175)로 지난해(7.1%)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감소하였다. 진로개발사이트를 학생들의 편익에 맞게 수정·보완한다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타 단과대학과 비교했을 때 사회과학대학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보건의료융합대학, 문리과대학, 공과대학, 약학대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학년에서 진로개발 사이트 이용 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6학년, 4학년 등의 순으로 이용 경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체로 만족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았으며, 응답이 높았으며 대체로 불만족 이하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

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고학년에서 이용 경험 만족도가 높아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 개발사이트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진로개발활동 중 대학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는 취업준비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취업준비교육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 기타, 전공 관련 진로지도,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난해와 학생들의 요구가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취업준비교육 프로그램(25.7%)은 지난해(27.9%)보다 감소하였고 그 외 진로탐색 프로그램, 기타, 전공 관련 진로지도,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응답률이 높아져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의 필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모든 학년에서 진로탐색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으므로 취업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대학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다. 취업

2019학년도 재학생의 전체 응답자(N=5,752)를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재학생들이 취업준비교육과 관련된 교과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수강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45.5%(n=2,618)였으며 수강한 학생 중 대체로 만족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25.9%(n=1,487), 보통은 24.0%(n=1,380), 대체로 불만족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4.6%(n=267)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준비교육과 관련한 과목의 만족도는 사회과학대학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4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취업준비교육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이나 학년의 특성에 맞추어 취업준비교육을 실시한다면 다른 단과대학과 학년에서도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 된다.

대학 취업과 진로 컨설턴트의 상담을 받아본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N=5,752) 중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4.5%(n=4,286)였고, 없음이 25.5%(n=1,466)로 나타났으며 지난해(22.1%)와 비교했을 때 상담을 받아본 비율이 높아졌다. 타 단과대학과 비교했을 때 BNIT융합대학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문리과대학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2~4학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5~6학년은 감소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N=2,123)를 대상으로 대학 취업과 진로 컨설턴트와의 상담 경험에 대한 만족

도를 조사한 결과, 컨설턴트와 상담한 학생 중 대체로 만족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55.2%(n=1,172)로 지난해(55.0%)보다 높아졌으며 대체로 불만족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6.2%(n=131)로 지난해(8.2%)보다 줄어든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는 학과마다 담당 취업컨설트가 있고 컨설턴트가 학생의 진로와 눈높이에 맞추어 상담을 실시한 결과라고 사료 된다. 타 단과대학보다 만족 이상의 긍정적 응답은 보건의료융합대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BNIT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문리과대학 등의 순이었다. 2~4학년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증가하며 5~6학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체로 만족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N=2,762)를 대상으로 전공 교수와의 취업과 진로상담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 이상이 49.7%(n=1,374)로 지난해(52.4%)보다 줄어들었으며, 대체로 불만족 이하는 6.3%(n=175)로 지난해(8.5%)보다 줄어들었다. 전공교수와의 취업 및 진로에 상담에 대하여 만족도가 떨어진 부분은 교수님을 직접 만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상담을 받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타 단과대학과보다 보건의료융합대학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BNIT융합대학, 문리과대학, 약학대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 학년에서 전공 교수와의 취업과 진로상담 경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적정 학년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3학년(53.7%), 2학년(24.6%), 4학년(12.3%), 1학년(9.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학년과 4학년이라는 비율이 늘고 있으며 남학생, 여학생 모두 3학년이라는 응답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본교 취업준비 교과목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N=5,752) 중 대체로 충분함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30.9%(n=1,783)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부족하다는 편이 부정적인 응답은 17.6%(n=1,012)로 나타나 본교 취업 준비 교과목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으며 1학년부터 진로 설정에 도움을 제공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이 설정한 진로와 관련된 요소들을 준비한다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 된다.

라. 해외 취업

2019학년도 재학생의 전체 응답자(N=5,509)를 대상으로 해외취업진로센터에 대한 조

사를 실시하였다.

해외취업진로센터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질문에 대하여 재학생(N=5,509) 중 66.0%(n=3,634)가 해외취업진로센터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4.0%(n=1,875)가 해외취업진로센터에 대하여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성공해외취업전략' 자유선택 교과목(2학점) 개설 운영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재학생(N=5,509) 중 59.1%(n=3,254)가 모른다고 응답을 하였고 40.9%(n=2,255)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홍보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개최하는 해외취업박람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행사는 몰랐지만, 참가할 의향은 있다(38.9%)'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행사를 알고 있으며, 참가할 의향이 있다(26.2%)' '행사도 몰랐고 참가하고 싶지도 않다(21.9%)', '행사를 알고 있지만 참가하고 싶지는 않다(13.3%)'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64.8%(n=3,567)의 높은 비율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개최하는 해외취업박람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 취업과 진로 컨설팅(캠프)' 행사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행사는 몰랐지만 참가할 의향은 있다(37.9%)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행사를 알고 있으며 참가할 의향이 있다(25.0%), 행사도 몰랐고 참가하고 싶지도 않다(22.6%), 행사를 알고 있지만 참가하고 싶지는 않다(14.6%) 순으로 나타나 63.9%(n=3,464)가 '해외 취업과 진로 컨설팅(캠프)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 정도를 조사한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재학생(N=5,752) 중 58.6%(n=3,369)가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해외취업관심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학과에서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BNIT융합대학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보건의료융합대학, 문리과대학, 공과대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학년이 가장 관심도가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었다. 남학생, 여학생 모두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다는 긍정적 응답률이 높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해외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사를 살펴본 결과, 상담 후 결정할 수 있음(41.3%),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음(33.1%), 전혀 관심 없음(2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보건의료융합대학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BNIT융합대학, 공과대학, 문리과대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적극 참여 의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적극적인 참여 의사에 대한 응답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을 경우 취업을 희망하는 국가를 조사한 결과, 미국(24.6%)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캐나다(11.4%)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국가에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취업 후 배울 것이 많다(26.6%), 어학이 부족하여 취업 후 현지 언어를 배우고 싶다(12.4%), 구인 수요가 많아 취업이 쉽다(7.8%)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해외 취업 후 희망 직무로는 전문직(IT, 디자이너 등)(37.1%)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 사무직(행정)(19.1%)이라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지만 취업을 하기 위해 힘든 점으로는 현지 취업 정보의 부족(37.5%), 어학 능력 부족(17.6%), 경제적 이유(11.0%)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재학생들은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취업 후에 언어 등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인식과 취업난이 심화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많을 것이라는 학생들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해외 취업을 위한 다양한 국가 및 양질의 해외취업 업체를 개발 및 다각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마일리지 제도

2019학년도 재학생의 전체 응답자(N=5,752)를 대상으로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재학생들은 인제스타마일리지 제도에 대하여 대체로 알고 있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36.8%)이 대체로 모른다 이하(37.2%)의 부정적인 응답과 비슷하게 나타나 학생들이 인제스타마일리지 제도에 대하여 알고는 있으나 다른 한편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기개발을 위하여 비교과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과(부)와 연계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인제스타마일리지 제도 도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N=5,752) 중 58.1%(n=3,343)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있다는 23.1%(n=1,330)가 응답하였는데, 선발되기 어려워서 시도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18.8%(n=1,079)로 나타나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고 사료 된다.

7. 장학 및 도서관

가. 장학

2019학년도 재학생의 전체 응답자(N=5,509)를 대상으로 장학금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본교 재학생들의 주된 학비 조달 방법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은 부모·형제(자매) 수입(53.9%)으로 나타났으며 장학금수혜(27.7%)와 학자금대출(13.0%)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모두 지난해보다 응답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 아르바이트(근로 장학금 포함)(4.2%)는 지난해(5.7%)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장학금수혜 및 본인 아르바이트(근로 장학금 포함), 친척·친지 지원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학자금대출, 부모·형제(자매) 수입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학점관리(56.5%)에 가장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어 능력 향상(15.8%), 자격증 취득(7.0%), 근로 활동(교내, 교외)(5.6%) 등의 노력도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다(11.0%)는 응답률도 있어 다양한 장학금 개발을 통하여 노력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학업의욕 고취를 위해 등록금 범위가 초과 되었을 경우 학업장려비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N=5,509) 중 찬성한다는 의견이 55.6%(n=3,061)로 과반수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제도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성적향상장학금 대상자 확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인제장학사정관제 수혜대상자 확대, 장학금 1인 수혜금액의 증액, 다양한 장학 종류 개발, 다각적인 장학제도 홍보 노력의 의견도 있었다. 성적향상장학금 대상자 확대와 장학금 1인 수혜금액 증액, 다양한 장학 종류 개발 및 다각적인 장학제도 홍보 노력에 대한 응답률은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는 인제장학사정관제 수혜대상자 확대를 원하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 유지에 필요한 장학금 종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성적관련(우수, 향상)장학금(46.8%), 저소득층 지원장학금(18.8%), 취·창업지원 장학금(15.3%)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학생기구 단체장에 대한 봉사장학금의 성격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N=5,509) 중 봉사장학금과 리더십장학금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41.5%(n=2,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 도서관

재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을 조사한 결과, 1주일에 1~3회(29.2%) 이용이 가장 많았고 거의 이용하지 않음. 월 1~3회. 거의 매일, 2주일에 1~3회 순으로 나타났는데 1주일에 1~3회 이용과 거의 매일 이용하는 경우가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방문 시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13:00~17:00(37.0%)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17:00~22:00(32.0%), 09:00~13:00(15.5%), 09:00 이전(9.9%), 22:00 이후(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전 9시~13시 이용률과 오전 9시 이전 이용률이 증가하였고 이는 수업시간을 피해 오전 중 도서관 이용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목적은 일반 열람실, 개인열람실, 스터디룸 이용(44.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서관 열람, 대출, 반납(27.5%), 비 도서자료 및 멀티미디어실 이용(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개인, 스터디룸 이용과 도서관 열람, 대출 반납에 대한 의견이 지난해보다 상승하였으며 특히 휴식, 친구와의 만남 장소로 활용한다(4.8%)는 의견이 지난해(4.0%)보다 상승하여 학생들이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보거나 공부를 위해 오는 장소가 아니라 공강 시간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공지사항을 얻는 곳으로는 학교 홈페이지(27.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서관 홈페이지(20.4%),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등)(16.4%), 교내 공지문(포스터, 현수막), 교내 사람들(선후배, 조교, 교수님)(10.4%)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학교 홈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 SNS를 통하여 정보를 얻는다는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교내 공지문이나 사람들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다는 비율은 줄어들었는데 이는 온라인 이용을 더 선호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도서관에서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는 일반도서 및 영화 등 멀티미디어 자료(19.3%)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벤치,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18.7%), 일반열람실 환경개선(책상, 의자, 조명 등) 교체(16.3%), E-Book, 학술 DB 등의 전자자료(12.2%)와 기타(12.2%) 등의 의견도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지난해(18.5%)과 마찬가지로 일반도서 및 음악, 영화 등 멀티미디어 자료(19.3%)에 대한 요구가 높아 다양한 영화나 음악을 접하고 싶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8. 교내시설 및 교통

가. 교내시설

2019학년도 전체 재학생(N=5509)을 대상으로 교내시설 및 교통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교내 공간과 기자재 이용 및 대여의 용이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재학생 응답자(N=5,509) 중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51.8%)이 지난해(48.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내 휴식공간의 충분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54.9%)이 지난해(46.0%)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부정적 응답(19.8%)도 지난해(14.9%)보다 높아져 학생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조사하여 개선해 나간다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통학

교내 통학버스 이용(차량 수, 요금, 배차 간격 등)의 편리성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N=5,509) 중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48.5%)이 지난해(50.5%)보다 감소하였고,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13.9%)은 지난해(11.4%)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배차 간격 및 통학버스 이용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9. 음주 · 흡연

2019학년도 재학생의 전체 응답자(N=5,509)를 대상으로 음주·흡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2019년도 재학생들은 응답자(N=5,509)의 19.0%(n=1,048)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19.7%)보다 감소하였다. 공과대학의 흡연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문리과대학, 소프트웨어대학, 보건의료융합대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 응답률이 줄어들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흡연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N=5,509)의 37.8%(n=2,083)는 현재 음주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지난해(36.2%)보다 음주율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과대학의 음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년이 높을수록 음주율은 감소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음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학생상담진로센터 및 정신건강

가. 학생상담진로센터

2018학년도 재학생의 전체 응답자(N=5,752)를 대상으로 학생상담진로센터와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응답자(N=5,752)의 53.3%(n=3,062)가 대체로 알고 있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상담진로센터 운영에 대한 인식이 지난해(14.3%)보다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갈등 및 어려움 시 심리상담전문가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54.2%(n=3,017)로 나타나 지난해 필요하다(68.3%)는 의견보다는 낮아졌으며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의견은 10.6%(n=609)로 지난해 필요 없다(31.7%)보다 매우 감소하여 학생들은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상담전문가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상담 전문가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과학대학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의과대학, 보건의료융합대학, 문리과대학 등의 순이었는데, 학년이 낮을수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심리상담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갈등 및 어려움 발생 시 학생상담진로센터 방문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48.8%(n=2,809),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12.2%(n=761)로 나타났으며 사회과학대학의 학생들이 방문 의향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았고 학년이 높을수록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도움 요청 시 원하는 상담 진행 장소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N=5,357) 중 42.0%(n=2,413)의 학생들은 교내 학생상담진로센터를 상담 진행 장소로 원했으며, 22.9%(n=1,316)의 학생들은 외부 상담센터 연계를 원한다고 응답하여 학생들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곳은 교내 학생상담진로센터이지만 외부상담센터를 선호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교 학생상담진로센터가 하는 일을 조사한 결과, 대학생들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는 곳이라는 인식(47.4%)이 지난해(33.6%)보다 높아졌으며 취업과 진로를 위한 검사와 상담(33.4%),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상담하는 곳(10.8%), 학사, 행정이나 학교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곳(8.3%)이라는 인식도 있어, 학생상담진로센터 직원은 대학의 모든 정보에 대한 기능을 숙지하고 필요 시 연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학생상담진로센터 프로그램 참여 또는 이용희망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개인상담(31.5%), 심리검사(29.5%), 관심 없다(18.1%), 집단상담(13.6%), 학생 주도적 참여프로그램(7.1%)로 나타났으며 개인상담과 심리검사에 대한 욕구가 매년 가장 높게 나오고 있으나 지난해(35.8%/31.9%)보다 개인상담과 심리검사에 대한 응답률이 낮게 나왔으며 집단상담이 지난해(6.9%)보다 높게(13.6%) 나타났다. 또한 학생상담진로센터 방문 시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을 조사한 결과, 진로적성(40.8%), 학업 및 성적(26.5%)이 가장 높아 진로,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상담과 심리상담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집단상담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 정신건강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시도를 경험은 응답자의 10.0%(n=576)로 2018(10.5%), 2017(16.4%)로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2~5학년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살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살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최근 2~3주 동안 우울감과 분노감을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우울함이 5.0%(n=285), 항상 화가 남이 4.1%(n=238)로 지난해(7.0%/6.3%)보다 매우 우울과 항상 분노 경험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매우 우울과 항상 화가 남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졌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매우 우울과 항상 분노를 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노, 우울, 자살 생각이나 충동 등으로 힘든 경험을 하고 있을 시 분노, 우울, 자살 생각이나 충동 등을 경험하고 있고 도움을 받고 싶다(62.7%)가 지난해(59.8%)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도움을 받고 싶지만 주위에 알려질까 봐 걱정이 되어 망설여진다는 20.6%로 지난해(39.6%)보다 감소하였다.

현재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는 진로문제(46.1%), 학업문제(23.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진로문제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학업문제는 지난해(25.5%)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우울, 자살 생각 및 시도 경험, 분노를 느끼는 정도가 줄어들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본 학생상담진로센터에서는 재학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해 위험군 학생들을 조기발굴·지원하고자 찾아가는 상담센터(주 1회) 및 힐링의 날 행사(매학기 1회)를 통하여 재학생들을 위한 심리검사, 해석상담, 정신건강증진캠페인(자살예방, 조기정신증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내 상담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본 설문조사에 얼마나 충실하게 응답했는지에 대하여 1학기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77.5%)이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5.7%)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2학기의 경우 역시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83.2%)이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3.2%)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본 설문에 응한 재학생들은 충실하게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

이민희(2019). 대학생의 부모애착관계 및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학년도 신입생 대학생활 만족도 및 실태 조사연구

강임정* · 김상옥** · 김영근***

_____ 목	_____ 차
I. 조사 연구 목적	II. 조사 방법 및 절차
III. 조사 결과	IV. 요약 및 결론

I. 조사 연구목적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성숙과 더불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대학 신입생 시절은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이후 사회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된다(이윤정, 장현정, 2019). 이에 대학에서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성인으로서 사회적 역할 및 책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위기를 겪게 되는 신입생들의 원활한 대학생활적응과 전인적인 자기계발, 진로설정과 준비 행동을 돕고 유능한 사회인으로 지역사회 진출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신입생들의 특성과 요구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진학과 대학 생활 및 교수·학습·진로·심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신입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과 사회진출을 위한 대학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인제대학교 학생상담진로센터 전임상담원

** 인제대학교 학생상담진로센터 전임상담연구원

*** 인제대학교 학생취업처 부처장, 학생상담진로센터 부센터장

II. 조사 방법 및 절차

1. 조사 대상

<표 2-1> 응답자 분포

단과대학	학과	2019 - 1		2019 - 2	
		N	%	N	%
사회과학 대학	소비자가족학과	27	1.4	21	1.4
	공공인재학부	68	3.5	51	3.3
	보건행정학과	33	1.7	28	1.8
	사회복지학과	35	1.8	34	2.2
	상담심리치료학과	36	1.9	33	2.2
	신문방송학과	31	1.6	24	1.6
	유아교육과	20	1.0	21	1.4
	경영학부	69	3.6	56	3.7
	국제경상학부	51	2.6	40	2.6
	경영통상학과(야간)	1	0.1	-	-
	특수교육과	23	1.2	18	1.2
통계학과	24	1.2	19	1.2	
문리과대학	스포츠헬스케어학과	35	1.8	24	1.6
	인문문화융합학부	67	3.5	58	3.7
	국제어문학부	65	3.4	55	3.6
	의생명화학과	25	1.3	17	1.1
	음악학과	27	1.4	20	1.3
	(응용수학과)	-	-	1	0.1
BNIT융합대학	나노융합공학부	86	4.4	51	3.3
	바이오식품과학부	46	2.4	35	2.3
	제약공학과	82	4.2	69	4.5
	바이오테크놀로지학부	59	3.1	49	3.2
	헬스케어IT학과	39	2.0	37	2.4
공과대학	건축학과	41	2.1	29	1.9
	실내건축학과	30	1.6	30	2.0
	멀티미디어학부	54	2.8	46	3.0
	디자인엔지니어링학과	33	1.7	22	1.4
	산업경영공학과	49	2.5	25	1.6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부	182	9.4	131	8.5
	토목도시공학과	45	2.3	23	1.5
	미래에너지공학과	30	1.6	21	1.4
	환경공학과	34	1.8	31	2.0
보건의료융합대학	물리치료학과	39	2.0	30	2.0
	보건안전공학과	43	2.2	33	2.2
	의용공학부	79	4.1	54	3.5
	임상병리학과	40	2.1	35	2.3
	작업치료학과	33	1.7	27	1.8
의과대학	간호학과	80	4.1	82	5.3
	의예과	84	4.3	85	5.5
소프트웨어대학	컴퓨터공학부	65	3.4	45	2.9
	컴퓨터시물레이션학과	24	1.2	23	1.5
합계		1,934	100	1,533	100

<표 2-2> 응답자의 성별 분포

구분	2019-1학기		2019-2학기	
	N	%	N	%
남	1,018	52.6	681	44.4
여	916	47.4	852	55.6
합계	1,934	100	1,533	100

2. 조사 절차

본 설문조사는 본교 On-Line 시스템(SAIL System)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실시하였다. 통계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인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에 앞서 설문조사의 목적과 On-Line 설문조사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사는 많은 설문 문항으로 인한 불성실한 응답을 방지하기 위해 문항을 적절하게 1, 2학기로 나누어, 1학기에는 2019년 7월 5일(금) ~ 8월 25일(일)까지 조사하였으며, 2학기에는 2019년 11월 28일(목) ~ 12월 15일(일), 2020년 1월 3일(금) ~ 1월 19일(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 내용

조사 대상	1학기		2학기	
	주요내용	문항 수	주요내용	문항 수
2019학년도 신입생	대학생활 및 대학생활만족도, 학습활동(학습지원), 마일리지제도, 도서관 취업과 진로, 해외취업, 평생지도교수의 지도와 상담, 학생상담진료센터 및 정신건강 관련	60	진학과 입학, 수업평가, 장학, 해외취업, 동아리, 대학축제, 교내 공간과 시설이용, 통학버스	31

4. 자료 분석

기술자료 분석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교차분석을 통해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결과 값의 분포를 파악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한 자료처리는 SPSS 26.0K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Ⅲ. 조사 결과

1. 대학진학과 학과 선택

가. 출신 고교 소재지

2019학년도 신입생 응답자(N=1,533)의 52.1%가 울산·경남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그다음 출신 고교 소재지는 부산(30.0%), 대구·경북(6.4%), 인천·경기(3.6%), 광주·전남(2.0%), 서울(2.0%), 제주(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3).

<표 2-3>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구분	N	%			구분	N	%		
		2019	2018	2017			2019	2018	2017
울산·경남	799	52.1	56.0	57.7	제주	26	1.7	1.9	1.0
부산	460	30.0	24.0	26.5	해외	7	0.5	0.9	0.6
대구·경북	98	6.4	8.0	5.7	대전·충남	8	0.5	0.7	0.4
인천·경기	55	3.6	3.3	2.4	강원	4	0.3	0.6	0.6
광주·전남	31	2.0	2.0	2.7	전북	5	0.3	0.4	0.3
서울	31	2.0	1.9	1.9	충북	9	0.6	0.2	0.3
합계					1,533	100	100	100	100

나. 수능 이후 인제대학교를 단체로 방문하여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경험 여부

수능 이후 인제대학교를 단체로 방문하여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경험에 대하여 응답자(N=1,533)의 14.9%인 228명이 참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2-4).

<표 2-4> 단체 방문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경험

구분	N	%		
		2019	2018	2017
없음	1305	85.1	88.6	82.9
있음	228	14.9	11.4	17.1
합계	1,533	100	100	100

다. 입시설명회가 인제대학교를 최종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정도

수능 이후 인제대학교를 단체로 방문하여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인제대학교를 최종결정하는 데 대체로 도움이 됨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응답자(N=476)의

28.2%(n=159)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표 2-5> 입시설명회가 인제대학교를 최종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정도

구분	N	%		
		2019	2018	2017
보통이다	253	53.2	55.1	49.8
대체로 도움	79	16.6	16.0	21.9
매우 큰 도움	60	12.6	14.7	15.6
전혀 도움이 안 됨	55	11.6	9.6	7.7
대체로 도움이 안 됨	29	6.0	4.6	5.0
합계	476	100	100	100

라. 인제대학교 교직원의 고등학교 방문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경험 여부

인제대학교 교직원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개최한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경험에 대하여 응답자(N=1,533)의 22.4%인 343명이 참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2-6).

<표 2-6> 인제대학교 교직원의 고등학교 방문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경험 여부

구분	N	%		
		2019	2018	2017
없음	1190	77.6	72.7	65.4
있음	343	22.4	27.3	34.6
합계	1,533	100	100	100

마. 교직원 방문 입시설명회가 인제대학교를 최종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정도

인제대학교 교직원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개최한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인제대학교를 최종결정하는 데 대체로 도움이 됨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응답자(N=592)의 40.5%인 2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7).

<표 2-7> 교직원의 고등학교 방문 입시설명회가 최종 결정에 도움이 된 정도

구분	N	%		
		2019	2018	2017
보통이다	277	46.8	46.1	37.2
대체로 도움	138	23.3	22.9	31.2
매우 큰 도움	102	17.2	19.6	22.4
전혀 도움이 안 됨	47	8.0	7.6	5.8
대체로 도움이 안 됨	28	4.7	3.8	3.4
합계	592	100	100	100

바. 입학 전 인제대학교 선택하는 데 최초로 정보를 얻은 곳

인제대학교에 대한 최초 정보를 얻는 곳으로는 응답자(N=1,533)의 32.9%인 505명이 인터넷이라고 하였고, 그다음으로는 교사(25.6%), 부모님 또는 가족(11.5%), 친구(9.5%), 인제대학교 홈페이지(7.6%), 인제대학교 출신자 및 재학생(5.7%), 고등학교 방문 입시설명회(5.2%), 입시박람회(1.2%), SNS·문자(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8).

<표 2-8> 입학 전 인제대학교를 선택하는 데 최초로 정보를 얻은 곳

구분	N	%		
		2019	2018	2017
인터넷검색	505	32.9	29.7	28.2
담임선생님(교사)	392	25.6	25.6	25.0
부모님 또는 가족	177	11.5	11.4	11.4
친구	146	9.5	11.6	9.9
인제대학교 홈페이지	116	7.6	8.5	10.4
인제대 출신자 및 재학생	88	5.7	6.0	6.6
고등학교 방문 입시 설명회	80	5.2	6.1	6.8
입시박람회	18	1.2	0.9	1.6
SNS·문자	11	0.7	0.2	0.1
합계	1,533	100	100	100

<표 2-9>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입학 전 본교를 선택하는데 최초로 정보를 얻은 곳 ()백분율

구분	인제대학교를 선택하는 데 최초로 정보를 얻은 곳									합계
	담임 선생님 상담	인터넷 검색	인제 대학교 홈페이지	친구	인제대 출신자 /재학생	부모님 또는 가족	고등학교 방문입시 설명회	입시박 람회	SNS 문자	
BNIT융합대학	56(23.2)	97(40.2)	18(7.5)	26(10.8)	12(5.0)	17(7.1)	11(4.6)	4(1.7)	0(0.0)	241
의과대학	43(25.7)	63(37.7)	7(4.2)	17(10.2)	7(4.2)	18(10.8)	8(4.8)	2(1.2)	2(1.2)	167
소프트웨어대학	21(30.9)	27(39.7)	5(7.4)	5(7.4)	1(1.5)	5(7.4)	1(1.5)	1(1.5)	2(2.9)	68
사회과학대학	92(26.7)	97(28.1)	29(8.4)	35(10.1)	21(6.1)	40(11.6)	25(7.2)	4(1.2)	2(0.6)	345
보건의료융합대학	30(16.8)	64(35.8)	11(6.1)	17(9.5)	11(6.1)	35(19.6)	8(4.5)	2(1.1)	1(0.6)	179
문리과대학	57(32.6)	39(22.3)	18(10.3)	14(8.0)	17(9.7)	20(11.4)	8(4.6)	2(1.1)	0(0.0)	175
공과대학	93(25.6)	118(33.0)	28(7.8)	32(8.9)	19(5.3)	42(11.7)	19(5.3)	3(0.8)	4(1.1)	358
남	205(30.1)	200(29.4)	47(6.9)	62(9.1)	36(5.3)	82(12.0)	34(5.0)	8(1.2)	7(1.0)	681
여	187(21.9)	305(35.8)	69(8.1)	84(9.9)	52(6.1)	95(11.2)	46(5.4)	10(1.2)	4(0.5)	852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입학 전 본교를 선택하는데 최초로 정보를 얻는 곳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모든 단과대학에서 담임선생님 상담이라는 응답률이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타 단과대학보다 문리과대학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대학, 사회과학대 순이었으며, 인터넷검색은 타 단과대학보다 BNIT융합대학이, 본교 홈페이지는 문리과대학이, 친구는 BNIT융합대학이, 본교 출신자 또는 재학생은 문리과대학이, 부모님 또는 가족은 보건의료융합대학이, 고등학교 방문 입시설명회는 사회과학대학이, 입시박람회는 BNIT융합대학이 타 단과대학보다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담임선생님 상담, 부모님 또는 가족, SNS 문자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인터넷검색, 본교 홈페이지, 본교 출신 또는 재학생, 고등학교 방문 입시설명회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9).

사. 대학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

대학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응답자(N=1,533)의 24.5%가 합격 가능성이라고 하였고, 다음으로 백병원 재단 이미지(13.2%), 기타(11.4%), 우수한 교수진(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10).

<표 2-10> 대학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

구분	N	%		
		2019	2018	2017
합격 가능성	376	24.5	-	-
백병원 재단 이미지	203	13.2	-	-
기타	174	11.4	35.9	33.1
우수한 교수진	153	10.1	11.7	10.8
높은 취업률	149	9.7	17.9	22.5
통학 접근성	100	6.5	8.5	6.4
발전 가능성	100	6.5	-	-
학생들을 위한 적극 투자	74	4.8	-	-
잘 갖추어진 교육환경	64	4.2	4.6	4.3
역사와 전통	52	3.4	6.1	6.1
사회적 인식	45	2.9	12.5	13.8
우수한 장학제도	37	2.4	-	-
활발한 지역사회 기여	6	0.4	-	-
우수한 동료 학생	-	-	2.8	3.0
합계	1,533	100	100	100

<표 2-11>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대학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 ()백분율

구분	대학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												합계	
	우수한 교수진	학생 위한 투자	역사와 전통	높은 취업률	잘 갖춰진 교육	사회 인식	통학 접근성	합격 가능성	발전 가능성	백병원 재단 이미지	지역 사회 기여	우수한 장학 제도		기타
BNIT융합대학	24 (1.0)	12 (5.8)	7 (2.9)	31 (12.9)	6 (2.5)	6 (2.5)	13 (5.4)	62 (25.7)	22 (9.1)	21 (8.7)	1 (0.4)	6 (2.5)	28 (11.6)	241
의과대학	14 (8.4)	2 (1.2)	4 (2.4)	22 (13.2)	5 (3.0)	6 (3.6)	2 (1.2)	28 (16.8)	7 (4.2)	66 (39.5)	0 (0.0)	1 (0.6)	10 (6.0)	167
보건의료융합대학	7 (3.9)	6 (3.4)	12 (6.7)	49 (27.4)	8 (4.5)	4 (2.2)	5 (2.8)	29 (16.2)	11 (6.1)	39 (21.8)	0 (0.0)	1 (0.6)	8 (4.5)	179
소프트웨어대학	5 (7.4)	6 (8.8)	2 (2.9)	3 (4.4)	1 (1.5)	2 (2.9)	5 (7.4)	17 (25.0)	8 (11.8)	5 (7.4)	1 (1.5)	0 (0.0)	13 (19.1)	68
사회과학대학	39 (11.3)	12 (3.5)	10 (2.9)	17 (4.9)	18 (5.2)	10 (2.9)	32 (9.3)	91 (26.4)	17 (4.9)	36 (10.4)	4 (1.2)	14 (4.1)	45 (13.0)	345
문리과대학	24 (13.7)	13 (7.4)	9 (5.1)	5 (2.9)	11 (6.3)	7 (4.0)	13 (7.4)	44 (25.1)	10 (5.7)	14 (8.0)	0 (0.0)	3 (1.7)	22 (12.6)	175
공과대학	40 (11.2)	21 (5.9)	8 (2.2)	22 (6.1)	15 (4.2)	10 (2.8)	30 (8.4)	105 (29.3)	25 (7.0)	22 (6.1)	0 (0.0)	12 (3.4)	48 (13.4)	358
남	78 (11.5)	33 (4.8)	30 (4.4)	57 (8.4)	20 (2.9)	23 (3.4)	37 (5.4)	161 (23.6)	58 (8.5)	69 (10.1)	4 (0.6)	14 (2.1)	97 (14.2)	681
여	75 (8.8)	41 (4.8)	22 (2.6)	92 (10.8)	44 (5.2)	22 (2.6)	63 (7.4)	215 (25.2)	42 (4.9)	134 (15.7)	2 (0.2)	23 (2.7)	77 (9.0)	852

아. 본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준 대상

본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준 대상에 대한 응답으로는 본인 스스로 (60.7%)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가족·친지(17.7%), 고3 담임선생님(9.2%), 선배·친구(5.7%) 등의 순이었다(표 2-12).

<표 2-12> 본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준 대상

구분	N	%		
		2019	2018	2017
본인 스스로	931	60.7	59.2	60.5
가족, 친지	271	17.7	17.0	17.6
고3 담임선생님	139	9.2	10.1	10.2
선배, 친구	88	5.7	6.5	6.0
인터넷 포털 사이트	48	3.1	2.8	1.7
학원 선생님	43	2.8	3.2	2.8
대중매체	13	.8	1.2	1.2
합계	1,533	100	100	100

<표 2-13>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본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준 대상 ()백분율

구분	본 대학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대상								합계
	본인	가족, 친지	선배, 친구	담임교사	학원교사	대중매체	포털사이트		
단과대학	BNIT융합대학	139(57.7)	42(17.4)	16(6.6)	23(9.5)	6(2.5)	2(0.8)	13(5.4)	241
	의과대학	118(70.7)	19(11.4)	6(3.6)	6(3.6)	7(4.2)	3(1.8)	8(4.8)	167
	소프트웨어대학	39(57.4)	13(19.1)	4(5.9)	8(11.8)	0(0.0)	3(4.4)	1(1.5)	68
	사회과학대학	211(61.2)	60(17.4)	20(5.8)	33(9.6)	10(2.9)	3(0.9)	8(2.3)	345
	보건의료융합대학	103(57.5)	49(27.4)	10(5.6)	13(7.3)	3(1.7)	0(0.0)	1(0.6)	179
	문리과대학	98(56.0)	33(18.9)	10(5.7)	23(13.1)	8(4.6)	1(0.6)	2(1.1)	175
	공과대학	223(62.3)	55(15.4)	22(6.1)	33(9.2)	9(2.5)	1(0.3)	15(4.2)	358
성별	남	405(59.5)	110(16.2)	46(6.8)	80(11.7)	16(2.3)	7(1.0)	17(2.5)	681
	여	526(61.7)	161(18.9)	42(4.9)	59(6.9)	27(3.2)	6(0.7)	31(3.6)	852

자. 학과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

학과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응답으로는 합격할 가능성(22.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적성(20.9%), 학문적 흥미(15.1%), 취업률과 취업전망(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13). 단과대학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타 단과대학보다 합격할 가능성은 사회과학대학, 학과의 명성은 의과대학, 적성은 사회과학대학, 학문적 흥미는 소프트웨어대학, 취업률과 전망은 보건의료융합대학, 미래비전은 소프트웨어대학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합격할 가능성, 학문적 흥미, 미래비전, 주변의 권유가 높았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학과의 명성, 적성, 취업률과 전망, 장래희망 등을 학과 선택 시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14).

<표 2-14> 학과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

구분	N	%		
		2019	2018	2017
합격할 가능성	343	22.4	21.5	17.3
적성	320	20.9	19.5	19.5
학문적 흥미	232	15.1	14.4	16.1
취업률과 취업전망	225	14.7	17.7	17.6
미래비전	143	9.3	8.3	10.1
학과의 명성	115	7.5	6.0	5.4
어릴 때부터 장래희망	75	4.9	4.9	7.1
기타	43	2.8	5.3	4.8
주변 사람의 권유	37	2.4	2.4	2.1
합계	1,533	100	100	100

<표 2-15>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학과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 ()백분율

구분	학과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									합계
	합격할 가능성	학과의 명성	적성	학문적 흥미	취업률과 취업전망	미래 비전	주변의 권유	장래 희망	기타	
BNIT융합대학	48(19.9)	20(8.3)	45(18.7)	46(19.1)	39(16.2)	28(11.6)	6(2.5)	5(2.1)	4(1.7)	241
의과대학	35(21.0)	28(16.8)	22(13.2)	7(4.2)	33(19.8)	15(9.0)	3(1.8)	21(12.6)	3(1.8)	522
소프트웨어대학	14(20.6)	3(4.4)	9(13.2)	14(20.6)	6(8.8)	17(25.0)	1(1.5)	2(2.9)	2(2.9)	68
사회과학대학	84(24.3)	16(4.6)	89(25.8)	53(15.4)	37(10.7)	22(6.4)	11(3.2)	21(6.1)	12(3.5)	345
보건의료융합대학	25(14.0)	26(14.5)	20(11.2)	22(12.3)	56(31.3)	21(11.7)	5(2.8)	3(1.7)	1(0.6)	179
문리과대학	55(31.4)	8(4.6)	43(24.6)	28(16.0)	12(6.9)	7(4.0)	2(1.1)	11(6.3)	9(5.1)	175
공과대학	82(22.9)	14(3.9)	92(25.7)	62(17.3)	42(11.7)	33(9.2)	9(2.5)	12(3.4)	12(3.4)	358
남	165(24.2)	49(7.2)	138(20.3)	114(16.7)	85(12.5)	65(9.5)	17(2.5)	19(2.8)	29(4.3)	681
여	178(20.9)	66(7.7)	182(21.4)	118(13.8)	140(16.4)	78(9.2)	20(2.3)	56(6.6)	14(1.6)	852

차. 본인이 전공하고 싶은 분야와 현재 소속 학과 일치도

전공하고 싶은 분야와 현재 소속 학과의 일치도는 대체로 일치(35.3%), 매우 일치(29.3%), 보통(26.2%), 대체로 불일치(6.3%), 매우 불일치(2.9%)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17). 타 단과대학보다 매우 일치하는 의과대학이, 대체로 일치하는 보건의료융합대학이, 보통은 공과대학이, 대체로 불일치는 소프트웨어대학이 전혀 일치하지 않음은 문리과대학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확하게 일치기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체로 일치와 보통, 불일치, 매우 일치하지 않음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표 2-16).

<표 2-16> 본인이 전공하고 싶은 분야와 현재 소속 학과의 일치도

구분	N	%		
		2019	2018	2017
대체로 일치	541	35.3	54.4 (비슷하게 일치)	56.8 (비슷하게 일치)
매우 일치	449	29.3	31.5 (정확하게 일치)	34.3 (정확하게 일치)
보통	402	26.2	-	-
대체로 불일치	96	6.3	14.1	8.9
매우 불일치	45	2.9	(일치하지 않음)	(일치하지 않음)
합계	1,533	100	100	100

<표 2-17>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본인 희망 전공 분야와 현재 소속 학과의 일치도 ()백분율

구분		본인이 전공하고 싶은 분야와 현재 소속 학과의 일치도					합계
		매우 일치	대체로 일치	보통	불일치	매우 불일치	
단과 대학	BNIT융합대학	55(22.8)	93(38.6)	68(28.2)	18(7.5)	7(2.9)	241
	의과대학	118(70.7)	28(16.8)	15(9.0)	4(2.4)	2(1.2)	167
	소프트웨어대학	12(17.6)	22(32.4)	24(35.3)	7(10.3)	3(4.4)	68
	사회과학대학	96(27.8)	127(36.8)	92(26.7)	20(5.8)	10(2.9)	345
	보건의료융합대학	39(21.8)	72(40.2)	48(26.8)	15(8.4)	5(2.8)	179
	문리과대학	50(28.6)	56(32.0)	48(27.4)	9(5.1)	12(6.9)	175
	공과대학	79(22.1)	143(39.9)	107(29.9)	23(6.4)	6(1.7)	358
성별	남	171(25.1)	241(35.4)	190(27.9)	55(8.1)	24(3.5)	681
	여	278(32.6)	300(35.2)	212(24.9)	41(4.8)	21(2.5)	852

2. 학교만족도

가. 본교 대학에 대한 만족 정도

본교 대학 만족에 대한 응답으로 대체로 만족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응답자(N=1,934)의 71.1%, 보통이다. 24.8%, 대체로 불만족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3.5%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18).

<표 2-18> 본교 대학에 대한 만족도

구분	N	%		
		2019	2018	2017
대체로 만족	805	41.6	38.3	46.1
매우 만족	583	30.1	11.7	18.5
보통	479	24.8	37.8	30.1
대체로 불만족	46	2.4	8.8	3.6
매우 불만족	21	1.1	3.4	1.7
합계	1,934	100	100	100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본교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 이상의 긍정적 응답은 의과대학(81.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과대학, 보건의료융합대학, 소프트웨어대학, BNIT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문리과대학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본교 입학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만족 역

시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9).

<표 2-19>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본교 대학에 대한 만족도 ()백분율

구분		본교 입학에 대한 만족도					합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단과 대학	BNIT융합대학	79(25.3)	139(44.6)	82(26.3)	7(2.2)	5(1.6)	312
	의과대학	70(42.7)	63(38.4)	26(15.9)	3(1.8)	2(1.2)	164
	소프트웨어대학	26(29.2)	37(41.6)	24(27.0)	1(1.1)	1(1.1)	89
	사회과학대학	115(27.6)	169(40.5)	111(26.6)	16(3.8)	6(1.4)	417
	보건의료융합대학	80(34.2)	94(40.2)	54(23.1)	4(1.7)	2(0.9)	234
	문리과대학	57(26.0)	85(38.8)	69(31.5)	5(2.3)	3(1.4)	219
	공과대학	156(31.3)	218(43.7)	113(22.6)	10(2.0)	2(0.4)	499
성별	남	371(36.4)	384(37.7)	222(21.8)	28(2.8)	13(1.3)	1,018
	여	212(23.1)	421(46.0)	257(28.1)	18(2.0)	8(0.9)	916

나.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비용과 거리 등의 통학 여건(28.0%)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 부족(18.5%), 기타(14.2%),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족(9.3%), 친구나 선후배 등 대인관계 문제(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20).

<표 2-20>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구분	N	%
비용과 거리 등의 통학 여건	276	28.0
학교에 대한 자부심 부족	182	18.5
기타	140	14.2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족	92	9.3
친구나 선후배 등 대인관계 문제	82	8.3
교과과정의 구성 및 교육의 질적인 문제	78	7.9
교수에 대한 기대 불일치	69	7.0
희망학과 부재	66	6.7
합계	985	100

다. 합격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

합격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41.40%)이 가장 높았고, 매우 만족(28.9%), 보통(26.5%), 대체로 불만족(2.8%), 매우 불만족(0.8%)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21).

<표 2-21> 합격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

구분	N	%		
		2019	218	2017
대체로 만족	792	41.0	45.7	41.2
매우 만족	559	28.9	22.0	18.7
보통	512	26.5	28.4	32.2
대체로 불만족	55	2.8	4.6	6.7
매우 불만족	16	0.8	1.3	1.2
합계	1,934	100	100	100

<표 2-22>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합격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 ()백분율

구분		합격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					합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단과 대학	BNIT융합대학	71(22.8)	71(22.8)	81(26.0)	15(4.8)	4(1.3)	312
	의과대학	70(42.7)	68(41.5)	22(13.4)	3(1.8)	1(0.6)	164
	소프트웨어대학	25(28.1)	37(41.6)	25(28.1)	2(2.2)	0(0.0)	89
	사회과학대학	119(28.5)	163(39.1)	117(28.1)	14(3.4)	4(1.0)	417
	보건의료융합대학	81(34.6)	90(38.5)	53(22.6)	8(3.4)	2(0.9)	234
	문리과대학	49(22.4)	82(37.4)	81(37.0)	4(1.8)	3(1.4)	219
	공과대학	144(28.9)	211(42.3)	133(26.7)	9(1.8)	2(0.4)	499
성별	남	328(32.2)	392(38.5)	258(25.3)	30(2.9)	10(1.0)	1,018
	여	231(25.2)	400(43.7)	254(27.7)	25(2.7)	6(0.7)	916

라. 학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학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학과적성 불일치 문제(27.0%)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친구나 선후배 등 대인관계 문제(18.2%),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족(16.7%), 전공에 대한 자부심 부족(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23).

<표 2-23> 학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구분	N	%
학과적성 불일치 문제	197	27.0
친구나 선후배 등 대인관계 문제	133	18.2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족	122	16.7
전공에 대한 자부심 부족	102	14.0
교과과정의 구성 및 교육의 질적인 문제	82	11.2
교수에 대한 기대 불일치	51	7.0
학과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기대 불일치	43	5.9
합계	730	100

마. 학과에 만족하지 못할 시 차후 계획

학과에 만족하지 못할 시 차후 계획에 대한 응답으로는 현재 전공 졸업 후 해결방안 모색(28.5%)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기타(15.9%), 복수전공(15.7%), 편입(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24).

<표 2-24> 학과에 불만족 시 차후 계획

구분	N	%		
		2019	2018	2017
현재 전공 졸업 후 해결방안 모색	218	28.5	29.5	30.9
기타	122	15.9	9.6	8.7
복수전공	120	15.7	15.1	18.8
(학사) 편입	117	15.3	23.2	19.1
전과	87	11.3	9.2	8.3
휴학	79	10.3	9.3	8.3
대학원 진학	12	1.6	-	-
연계 전공	11	1.4	-	-
재수	-	-	4.1	2.7
합계	766	100	100	100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불만족 시 차후 계획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결과, 단과대학에 따라서는 모든 단과대학이 대부분 현재 전공 졸업 후 해결방안 모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공과대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복수전공 및 전과는 BNIT융합대학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타 대학으로의 이동인 편입은 BNIT융합대학, 소프트웨어대학, 문리과대학이 휴학은 사회과학대학 응답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현재 전공 졸업 후 해결방안 모색, 복수전공, 편입, 대학원 진학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전과, 휴학 등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2-25).

<표 2-25>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학과에 불만족 시 차후 계획 ()백분율

구분	학과에 불만족 시 차후 계획								합계
	졸업후 방안모색	복수 전공	전과	편입	휴학	대학원 진학	연계 전공	기타	
BNIT융합대학	35 (23.8)	30 (20.4)	20 (13.6)	28 (19.0)	12 (8.2)	5 (3.4)	0 (0.0)	17 (11.6)	147
의과대학	18 (46.2)	0 (0.0)	0 (0.0)	2 (5.1)	6 (15.3)	2 (15.1)	1 (2.6)	10 (25.7)	39
소프트웨어대학	16 (42.1)	4 (10.5)	3 (7.9)	7 (18.4)	1 (2.6)	0 (0.0)	0 (0.0)	7 (18.5)	38
사회과학대학	50 (26.9)	39 (21.0)	15 (8.0)	26 (14.0)	28 (15.1)	1 (0.5)	6 (3.2)	21 (11.3)	186
보건의료융합대학	22 (29.3)	8 (10.7)	6 (8.0)	12 (16.0)	5 (6.7)	3 (4.0)	1 (1.3)	18 (24.0)	75
문리과대학	21 (19.3)	20 (18.3)	20 (18.3)	16 (14.7)	11 (10.0)	1 (1.0)	1 (1.0)	19 (17.4)	109
공과대학	56 (32.6)	19 (11.0)	23 (13.4)	26 (15.1)	16 (9.3)	0 (0.0)	2 (1.2)	30 (17.4)	172
남	112 (28.1)	55 (13.8)	53 (13.3)	49 (12.3)	44 (11.1)	6 (1.5)	5 (1.3)	74 (18.6)	398
여	106 (28.8)	65 (17.8)	34 (9.2)	68 (18.5)	35 (9.5)	6 (1.6)	6 (1.6)	48 (13.0)	368

3. 대학생활

가. 학교생활

1) 본교 입학 후 가장 알고 싶은 내용

본교 입학 후 가장 알고 싶은 내용으로는 전공학과에 대한 정보(37.3%)가 가장 높았고, 취업 정보(14.9%), 학사관리(12.3%), 장학금 관련 정보(11.7%), 대외활동 정보(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26).

<표 2-26> 본교 입학 후 가장 알고 싶은 내용

구분	N	%		
		2019	2018	2017
전공학과 정보	722	37.3	26.0	28.9
취업 정보	289	14.9	20.0	20.4
학사관리(대학규정과 학칙)	237	12.3	1.0	1.0
장학 정보	227	11.7	24.4	26.6
대외활동 정보(어학연수·유학 정보)	164	8.5	11.2	13.9
효과적인 학습방법	146	7.5	-	-
기타	47	2.5	7.2	-
동아리 활동	36	1.9	6.8	6.7
대학시설·기관 정보	35	1.8	1.4	1.3
아르바이트 정보	31	1.6	2.0	1.2
합계	1,934	100	100	100

2) 대학생활 중 가장 하고 싶은 분야

대학생활 중 가장 하고 싶은 분야는 폭넓은 대인관계(31.0%)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전공공부 및 학업(26.2%), 해외연수(어학연수, 교환학생)(20.1%),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12.8%), 동아리 활동(3.3%), 폭넓은 교양 습득(3.2%), 이성 교제(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27).

<표 2-27> 대학 생활 중 가장 하고 싶은 분야

구분	N	%		
		2019	2018	2017
폭넓은 대인관계	602	31.0	9.4	10.5
전공공부 및 학업	506	26.2	21.4	20.7
해외연수(어학연수, 교환학생)	389	20.1	12.6	14.0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	247	12.8	27.0	24.9
동아리 활동	64	3.3	12.7	13.6
폭넓은 교양 습득	61	3.2	1.4	1.1
이성 교제	42	2.2	5.0	4.6
사회(봉사)활동	15	0.8	3.4	4.1
사회문제 참여	8	0.4	-	-
외국어 공부	-	-	7.1	6.5
합계	1,934	100	100	100

나. 평생 지도교수

1) 교수에 대한 우선적 기대

교수에 대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충실한 강의(학문적 지도)(49.5%)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그다음으로는 취업과 진로지도(24.3%), 인간적 사제관계(17.6%), 기타(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28).

<표 2-28> 교수님에 대한 우선적 기대

구분	N	%		
		2019	2018	2017
충실한 강의(학문적 지도)	956	49.5	44.6	40.0
취업과 진로지도	470	24.3	21.9	27.4
인간적 사제관계	341	17.6	20.6	22.7
기타	56	2.9	5.2	2.9
엄정한 성적평가	54	2.8	3.9	2.8
사회(봉사)활동	31	1.6	1.6	2.3
학문연구 전념	26	1.3	2.2	1.9
합계	1,934	100	100	100

<표 2-29>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교수에 대한 우선적 기대 ()백분율

구분	교수에 대한 우선적 기대							합계	
	충실한 강의	인간적 사제관계	사회 봉사 활동	취업과 진로지도	학문연구 전념	엄정한 성적평가	기타		
단과대학	BNIT융합대학	145(46.5)	48(15.4)	7(2.2)	88(28.2)	9(2.9)	8(2.6)	7(2.2)	312
	의과대학	99(60.4)	42(25.6)	2(1.2)	9(5.5)	0(0.0)	5(3.0)	7(4.3)	164
	소프트웨어대학	42(47.2)	17(19.1)	2(2.2)	19(21.3)	4(4.5)	1(1.1)	4(4.5)	89
	사회과학대학	202(48.4)	73(17.5)	4(1.0)	114(27.3)	3(0.7)	10(2.4)	11(2.6)	417
	보건의료융합대학	125(53.4)	36(15.4)	1(0.4)	59(25.2)	1(0.4)	9(3.8)	3(1.3)	234
	문리과대학	116(53.0)	34(15.5)	6(2.7)	47(21.5)	1(0.5)	3(1.4)	12(5.5)	219
	공과대학	227(45.5)	91(18.2)	9(1.8)	134(26.9)	8(1.6)	18(3.6)	1(2.4)	199
성별	남	470(46.2)	227(22.3)	22(2.2)	222(21.8)	16(1.6)	27(2.7)	34(3.3)	1,018
	여	486(53.1)	114(12.4)	9(1.0)	248(27.1)	10(1.1)	27(2.9)	22(2.4)	916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교수에 대한 우선적 기대를 살펴본 결과, 충실한 강의에 대한 기대가 모든 단과대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의과대학이 가장 높았고, 인간적 사제관계는 의과대학에서, 취업과 진로지도는 BNIT융합대학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충실한 강의에 대한 기대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인간적 사제관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2-29).

2) 평생 지도교수의 지도와 상담에 대한 만족도

평생 지도교수의 지도와 상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응답자(N=1,934)의 61.4%이었고, 보통이다 32.3%, 대체로 도움이 안 된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6.3%로 나타났다(표 2-30).

<표 2-30> 평생 지도교수의 지도와 상담에 대한 만족도

구분	N	%	
		2019	2018
대체로 그렇다.	625	32.3	36.8
보통이다	624	32.3	31.7
매우 그렇다.	563	29.1	27.2
대체로 그렇지 않다	76	3.9	3.0
전혀 그렇지 않다	46	2.4	1.3
합계	1,934	100	100

<표 2-31>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평생 지도교수의 지도와 상담 만족도 ()백분율

구분		평생 지도교수의 지도와 상담 만족도					합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단과대학	BNIT융합대학	81(26.0)	105(33.7)	104(33.3)	15(4.8)	7(2.2)	312
	의과대학	63(38.4)	57(34.8)	33(20.1)	6(3.7)	5(3.0)	164
	소프트웨어대학	25(28.1)	27(30.3)	33(37.1)	2(2.2)	2(2.2)	89
	사회과학대학	125(30.0)	118(28.3)	144(34.5)	15(3.6)	15(3.6)	417
	보건의료융합대학	68(29.1)	69(29.5)	86(36.8)	8(3.4)	3(1.3)	234
	문리과대학	48(21.9)	68(31.1)	81(37.0)	14(6.4)	8(3.7)	219
공과대학	153(30.7)	181(36.3)	143(28.7)	16(3.2)	6(1.2)	499	
성별	남	325(31.9)	316(31.0)	304(29.9)	44(4.3)	29(2.8)	1,018
	여	238(26.0)	309(33.7)	320(34.9)	32(3.5)	17(1.9)	916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평생 지도교수의 지도와 상담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의과대학의 만족도(73.2%)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공과대학, BNIT융합대학 보건의료융합대학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매우 만족한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대체로 만족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표 2-31).

3) 평생 지도교수제의 유익함

‘평생 지도교수제는 대학 생활적응 및 진로준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체로 도움이 된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응답자(N=1,934)의 61.4%(n=1,188), 보통이다. 32.3%(n=624), 대체로 도움이 안 된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6.3%(n=122)로 나타났다(표 2-32).

<표 2-32> 평생 지도교수제가 대학 생활적응 및 진로에 도움 되는 정도

구분	N	%		
		2019	2018	2017
대체로 도움이 된다	625	32.3	32.8	35.9
보통이다	624	32.3	41.7	38.5
매우 도움이 된다	563	29.1	15.6	17.3
대체로 도움이 안 된다	76	3.9	6.2	5.5
전혀 도움이 안 된다	46	2.4	3.7	2.8
합계	1,934	100	100	100

<표 2-33>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평생 지도교수제가 대학 생활 및 진로에 도움 되는 정도 ()백분율

구분	평생 지도교수제가 대학 생활적응 및 진로에 도움 되는 정도					합계	
	매우 도움	대체로 도움	보통	도움 안 됨	전혀 도움 안 됨		
단과대학	BNIT융합대학	70(22.4)	109(34.9)	114(36.5)	13(4.2)	6(1.9)	312
	의과대학	65(39.6)	50(30.5)	41(25.0)	5(3.0)	3(1.8)	164
	소프트웨어대학	22(24.7)	33(37.1)	27(30.3)	4(4.5)	3(3.4)	89
	사회과학대학	104(24.9)	121(29.0)	165(39.6)	14(3.4)	13(3.1)	417
	보건의료융합대학	60(25.6)	70(29.9)	88(37.6)	13(5.6)	3(1.3)	234
	문리과대학	45(20.5)	72(32.9)	84(38.4)	13(5.9)	5(2.3)	219
	공과대학	140(28.1)	169(33.9)	164(32.9)	20(4.0)	6(1.2)	499
성별	남	301(29.6)	324(31.8)	326(32.0)	38(3.7)	29(2.8)	1,018
	여	205(22.4)	300(32.8)	357(39.0)	44(4.8)	10(1.1)	916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지도교수제가 대학 생활 및 진로에 도움 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의과대학(70.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공과대학, 소프트웨어대학 등의 순이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33).

4) 지도교수의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어려운 점

지도교수의 지도와 상담을 받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결과, 평생 지도 교수님에 대한 친밀감이 부족해서(35.2%)가 가장 높았고, 기타(19.2%), 평생 지도 교수님과 상담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서(16.6%), 평생 지도교수님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14.4%), 나의 개인적인 정보(학점, 가정환경 등) 노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7.0%), 평생 지도 교수님과의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5.3%), 평생 지도 교수님과 세부 전공이 달라서(3.1%)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34).

<표 2-34> 지도교수의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어려운 점

구분	N	%	
		2019	2018
평생 지도 교수님에 대한 친밀감이 부족해서	680	35.2	35.4
기타	370	19.2	-
평생 지도 교수님과 상담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서	322	16.6	25.0
평생 지도교수님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279	14.4	24.7
나의 개인적인 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136	7.0	6.6
평생 지도 교수님과의 상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03	5.3	4.9
평생 지도 교수님과 세부 전공이 달라서	44	2.3	3.4
합계	1,934	100	100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평생 지도교수의 상담 시 어려운 점에 대한 응답률로는 친밀감 부족은 사회과학대학이 가장 높았고, 상담시간 맞추기의 어려움과 교수님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는 의과대학,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은 사회과학대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상담시간 맞추기의 어려움, 교수님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세부 전공이 달라서가 더 높았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친밀감 부족,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더 높게 나타났다(표 2-35).

<표 2-35>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평생 지도교수와 상담 시 어려운 점 ()백분율

구분	평생 지도교수와 상담 시 어려운 점							합계	
	친밀감 부족	시간적 어려움	교수에게 부담	개인정보 노출부담	세부전공 다름	필요성 못느낌	기타		
단과대학	BNIT융합대학	95(30.4)	43(13.8)	49(15.7)	28(9.0)	13(4.2)	18(5.8)	66(21.2)	312
	의과대학	55(33.5)	35(21.3)	35(21.3)	4(2.4)	2(1.2)	5(3.0)	28(17.1)	164
	소프트웨어대학	30(33.7)	19(21.3)	9(10.1)	7(7.9)	2(2.2)	1(1.1)	21(23.6)	89
	사회과학대학	162(38.8)	55(13.2)	61(14.6)	39(9.4)	5(1.2)	24(5.8)	71(17.0)	417
	보건의료융합대학	88(37.6)	48(20.5)	33(14.1)	9(3.8)	3(1.3)	14(6.0)	39(16.7)	234
	문리과대학	73(33.3)	37(16.9)	29(13.2)	9(4.1)	8(3.7)	15(6.8)	48(21.9)	219
	공과대학	177(35.5)	85(17.0)	63(12.6)	40(8.0)	11(2.2)	26(5.2)	97(19.4)	499
성별	남	343(33.7)	186(18.3)	152(14.9)	56(5.5)	28(2.8)	51(5.0)	202(19.8)	1,018
	여	337(36.8)	136(14.8)	127(13.9)	80(8.7)	16(1.7)	52(5.7)	168(18.3)	916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평생 지도교수의 상담 시 어려운 점에 대한 응답률로는 친밀감 부족은 사회과학대학이 가장 높았고, 상담시간 맞추기의 어려움과 교수님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는 의과대학,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은 사회과학대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상담시간 맞추기의 어려움, 교수님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세부 전공이 달라서가 더 높았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친밀감 부족,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더 높게 나타났다(표 2-35).

다. 동아리 활동, 축제 및 기타

1) 동아리 활동이 대학 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는 정도

동아리 활동이 대학 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48.7%, 보통이다 37.5%,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13.8%로 나타났다(표 2-36).

<표 2-36> 동아리 활동이 대학 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는 정도

구분	N	%	
		2019	2018
보통이다	575	37.5	33.1
대체로 그렇다	447	29.2	31.8
매우 그렇다	299	19.5	26.0
대체로 그렇지 않다	108	7.0	5.6
전혀 그렇지 않다	104	6.8	3.5
합계	1,533	100	100

2) 축제 중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축제 중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N=1,533) 중 초청공연(가수)이 46.2%(n=70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기타(16.5%), 선후배와의 만남(14.7%), 가요제(11.5%), 중앙동아리 페스티벌(11.1%)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37).

<표 2-37> 축제 중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구분	N	%	
		2019	2018
초청공연(가수)	709	46.2	46.9
기타	253	16.5	14.5
선후배와의 만남	225	14.7	14.2
가요제	176	11.5	12.9
중앙동아리 페스티벌	170	11.1	11.5
합계	1,533	100	100

3) 대학 생활에서 인간관계를 가장 맺기 힘든 대상

대학 생활에서 인간관계를 가장 맺기 힘든 대상은 응답자(N=1,934) 중 선후배가 26.8%(n=51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교수(24.3%), 동급생(12.9%), 이성 친구(12.4%), 기타(11.9%), 조교(6.0%), 직원(5.7%)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38).

<표 2-38> 대학 생활에서 인간관계를 가장 맺기 힘든 대상

구분	N	%
선후배	519	26.8
교수	469	24.3
동급생	249	12.9
이성 친구	239	12.4
기타	231	11.9
조교	117	6.0
직원	110	5.7
합계	1,934	100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대학 생활에서 인간관계를 맺기 가장 힘든 대상에 대한 응답을 살펴본 결과 타 단과대학보다 선후배는 BNIT융합대학에서, 교수는 의과대학에서, 조교는 BNIT융합대학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선후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성 친구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39).

<표 2-39>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대학 생활에서 인간관계를 맺기 가장 힘든 대상 ()백분율

구분	대학 생활에서 인간관계를 맺기 가장 힘든 대상							합계	
	동급생	선후배	이성 친구	교수	직원	조교	기타		
단과대학	BNIT융합대학	35(11.2)	91(29.2)	41(13.1)	65(20.8)	20(6.4)	28(9.0)	32(10.3)	312
	의과대학	21(12.8)	41(25.0)	14(8.5)	58(35.4)	3(1.8)	10(6.1)	17(10.4)	164
	소프트웨어대학	14(15.7)	23(25.8)	20(22.5)	19(21.3)	6(6.7)	3(3.4)	4(4.5)	89
	사회과학대학	61(14.6)	108(25.9)	49(11.8)	102(24.5)	26(6.2)	17(4.1)	54(12.9)	417
	보건의료융합대학	28(12.0)	66(28.2)	14(6.0)	71(30.3)	14(6.0)	11(4.7)	30(12.8)	234
	문리과대학	35(16.0)	53(24.2)	27(12.3)	48(21.9)	13(5.9)	15(6.8)	28(12.8)	219
	공과대학	55(11.0)	137(27.5)	74(14.8)	106(21.2)	28(5.6)	33(6.6)	66(13.2)	499
성별	남	138(13.6)	235(23.1)	188(18.5)	229(22.5)	55(5.4)	50(4.9)	123(12.1)	1,018
	여	111(12.1)	284(31.0)	51(5.6)	240(26.2)	55(6.0)	67(7.3)	108(11.8)	916

4) 앞으로 활동하고 싶은 봉사 분야

대학 생활 중 앞으로 활동하고 싶은 봉사 분야를 조사한 결과, 해외 봉사활동(37.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재능기부활동(35.3%), 농촌봉사활동(10.8%), 시설·재가 봉사활동(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40).

<표 2-40> 앞으로 활동하고 싶은 봉사 분야

구분	N	%		
		2019	2018	2017
해외 봉사활동	581	37.9	38.3	37.4
재능기부활동	541	35.3	34.5	35.2
농촌봉사활동	165	10.8	11.4	15.3
시설·재가 봉사활동	149	9.7	10.4	8.6
환경정화 활동	97	6.3	5.3	3.5
합계	1,533	100	99.9	100

라. 교내시설과 통학버스

1) 통학버스 이용의 편리성 여부

통학버스 이용에 대한 편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44.1%, 보통이다는 36.2%,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19.7%로 나타났다(표 2-41).

2) 교내에 휴식공간이 충분성 여부

교내에 휴식공간이 충분한지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45.2%, 보통이다는 34.6%,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20.2%로 나타났다(표 2-42).

<표 2-41> 통학버스 이용의 편리성 여부

구분	N	%	
		2019	2018
보통이다	555	36.2	35.3
대체로 그렇다	422	27.5	30.3
매우 그렇다	254	16.6	17.2
대체로 그렇지 않다	197	12.9	11.8
전혀 그렇지 않다	105	6.8	5.3
합계	1,533	100	100

<표 2-42> 교내에 휴식공간이 충분성 여부

구분	N	%	
		2019	2018
보통이다	530	34.6	37.1
대체로 그렇다	442	28.8	30.4
매우 그렇다	252	16.4	15.5
대체로 그렇지 않다	210	13.7	12.4
전혀 그렇지 않다	99	6.5	4.6
합계	1,533	100	100

3) 교내 공간과 기자재의 이용 및 대여의 용이성

교내 공간과 기자재의 이용 및 대여의 용이성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이 53.2%, 보통이다. 는 35.1%,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가 9.4%로 나타났다(표 2-43).

<표 2-43> 교내 공간과 기자재의 이용 및 대여의 용이성

구분	N	%	
		2019	2018
보통이다	538	35.1	34.5
대체로 그렇다.	508	33.1	36.6
매우 그렇다.	308	20.1	19.5
대체로 그렇지 않다	116	7.6	6.5
전혀 그렇지 않다	63	4.1	2.9
합계	1,533	100	100

마. 학습지원

1)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본교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으로는 아는 프로그램 없음을 제외하고 온라인 학습유형 검사(22.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IU-Together(학습 튜터링)(8.2%), 국내현장체험 활동(6.2%), 학습법 특강(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44).

<표 2-44>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구분	N	%
아는 프로그램 없음	874	45.2
온라인 학습유형 검사	429	22.2
IU-Together(학습 지도교수제)	159	8.2
국내현장체험 활동	120	6.2
학습법 특강	96	5.0
Guiding(전공 길잡이)	95	4.9
Sharing(학습 도우미)	53	2.7
Mentoring(보충학습지도)	43	2.2
내일로 문화체험 활동	39	2.0
학습 UCC 공모전	15	0.8
기억에 남는 좋은 수업 에세이 공모전	11	0.6
합계	1,934	100

2) 알고 있는 본교 학습지원 프로그램 수

본교에서 알고 있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수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혀 모름(53.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2~4개(23.7%), 1개(19.8%), 5~7개(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45).

<표 2-45> 알고 있는 본교 학습지원 프로그램 수

구분	N	%
전혀 모름	1,033	53.4
2~4개	459	23.7
1개	382	19.8
5~7개	42	2.2
8개 이상	18	0.9
합계	1,934	100

3) 참여하고 있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수

본교에서 참여하고 있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수에 대한 응답으로는 참여경험 없음 (78.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1개(11.9%), 2~4개(7.9%), 5~7개(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46).

<표 2-46> 참여하고 있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수

구분	N	%
참여경험 없음	1,523	78.8
1개	231	11.9
2~4개	152	7.9
5~7개	16	0.8
8개 이상	12	0.6
합계	1,934	100

4) 추가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프로그램

본교에서 추가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으로는 학습 컨설팅(학습 상담 및 학습 코치)(40.6%)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 (22.3%), 본교 우수학생의 학습법 특강(19.3%), 자기 주도적 프로젝트 교육(17.8%)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47).

<표 2-47> 추가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프로그램

구분	N	%
학습 컨설팅(학습 상담 및 학습 코치)	786	40.6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	431	22.3
본교 우수학생의 학습법 특강	373	19.3
자기 주도적 프로젝트 교육	344	17.8
합계	1,934	100

5) 가장 관심 있는 학습법 특강 주제

본교에서 가장 관심 있는 학습법 특강 주제에 대한 응답으로는 리포트 작성법 (22.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전공 교과목 학습법(21.0%), 학습 동기유발

(19.8%), 시험 준비법(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48).

<표 2-48> 가장 관심 있는 학습법 특강 주제

구분	N	%
리포트 작성법	432	22.3
전공 교과목 학습법	407	21.0
학습 동기유발	383	19.8
시험 준비법	367	19.0
외국어학습법	243	12.6
스터디 그룹을 활용한 학습법	102	5.3
합계	1,934	100

6)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가장 만족스러운 요인

본교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가장 만족스러운 요인에 대한 응답으로는 참여한 적 없음을 제외하고 예산지원(6.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의 내용(5.2%), 교우관계 확장(2.9%), 행정서비스(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49).

<표 2-49>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가장 만족스러운 요인

구분	N	%
참여한 적 없음	1,595	82.5
예산지원	125	6.5
프로그램 내용	101	5.2
교우관계 확장	56	2.9
행정서비스	42	2.2
우수사례 공유	15	0.7
합계	1,934	100

7)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가장 불만족스러운 요인

본교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가장 불만족스러운 요인에 대한 응답으로는 참여한 적 없음을 제외하고 예산지원(4.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의 내용(2.9%), 행정서비스(2.6%), 학습시설(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50).

<표 2-50>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가장 불만족스러운 요인

구분	N	%
참여한 적 없음	1,647	85.2
예산지원	93	4.8
프로그램 내용	56	2.9
행정서비스	51	2.6
학습시설	51	2.6
인프라(온라인)	36	1.9
합계	1,934	100

8)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으로는 신입생 프로그램 개발(47.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학습 상담(개인 또는 집단)(17.1%),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13.1%), 고학년(3, 4학년) 대상 프로그램 개발(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51).

<표 2-51>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구분	N	%
신입생 프로그램 개발	920	47.6
학습 상담(개인 또는 집단)	331	17.1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253	13.1
고학년(3,4학년) 대상 프로그램 개발	181	9.4
리포트 컨설팅	131	6.8
성적경고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118	6.0
합계	1,934	100

9)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시간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시간에 대한 응답으로는 수요일 오후(20.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월요일 오후 (15.9%), 목요일 오후(13.0%), 월요일 오전 (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52).

<표 2-52>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시간

구분	N	%
수요일 오후	399	20.6
월요일 오후	308	15.9
목요일 오후	251	13.0
월요일 오전	243	12.6
화요일 오후	232	12.0
금요일 오후	169	8.7
수요일 오전	97	5.0
금요일 오전	88	4.6
화요일 오전	84	4.3
목요일 오전	63	3.3
합계	1,934	100

10) 학사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게 되는 방법

학사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게 되는 방법에 대한 응답으로는 학교 홈페이지(33.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각종 SNS를 통해서(28.0%), 친구를 통해서(23.0%), 학과사무실(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53).

<표 2-53> 학사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게 되는 방법

구분	N	%
학교 홈페이지	653	33.9
각종 SNS를 통해서	541	28.0
친구를 통해서	448	23.0
학과사무실	173	8.9
교내 게시판	71	3.7
기타	48	2.5
합계	1,934	100

11)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학사제도 시스템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학사제도 시스템에 대한 응답으로는 수강신청시스템(33.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없음(30.0%), 전자출결 시스템(13.4%),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시스템(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54).

<표 2-54>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학사제도 시스템

구분	N	%
수상신청시스템	648	33.5
없음	580	30.0
전자출결 시스템	259	13.4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시스템	116	6.0
전과제도	83	4.3
졸업학점 제도	81	4.2
제2 전공제도	70	3.6
교육과정	67	3.5
기타	30	1.5
합계	1,934	100

바. 수업평가

1) 개인적인 호감보다는 강의의 종합적인 내용을 판단하여 수업평가를 한다.

‘개인적인 호감보다는 강의의 종합적인 내용을 판단하여 수업평가를 한다.’에 대한 조사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이 응답자의 68.9%이었고, 보통이다. 27.5%,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는 3.6%로 나타났다(표 2-55).

<표 2-55> 강의의 종합적인 내용을 판단

구분	N	%		
		2019	2018	2017
대체로 그렇다	588	38.4	40.3	39.9
매우 그렇다	468	30.5	26.3	30.6
보통이다	422	27.5	27.7	26.8
대체로 그렇지 않다	41	2.7	4.2	1.7
전혀 그렇지 않다	14	.9	1.5	1.0
합계	1,533	100	100	100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강의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판단하여 수업평가 여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응답률은 타 단과대학보다 의과대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리과대학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개인적 호감보다는 강의의 종합적인 내용을 판단하여 수업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56).

<표 2-56>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강의의 종합적인 내용을 판단 ()백분율

구분	강의의 종합적인 내용을 판단					합계
	매우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BNIT융합대학	79(32.8)	91(37.8)	64(2.6)	6(2.5)	1(0.4)	241
의과대학	89(53.3)	44(26.3)	27(16.2)	5(3.0)	2(1.2)	167
소프트웨어대학	16(23.5)	29(42.6)	19(27.9)	3(4.4)	1(1.5)	68
사회과학대학	105(30.4)	130(37.7)	98(28.4)	10(2.9)	2(0.6)	345
보건의료융합대학	49(27.4)	78(43.6)	48(26.8)	3(1.7)	1(0.6)	179
문리과대학	43(24.6)	64(36.6)	59(33.7)	6(3.4)	3(1.7)	175
공과대학	87(24.3)	152(42.5)	107(29.9)	8(2.2)	4(1.1)	358
남	186(27.3)	253(37.2)	207(30.4)	26(3.8)	9(1.3)	681
여	282(33.1)	335(39.3)	215(25.2)	15(1.8)	5(0.6)	852

2) 나는 수강신청 시 이전 학기 수업평가의 결과를 고려한다.

‘나는 수강신청 시 이전 학기 수업평가의 결과를 고려한다.’에 대한 조사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이 응답자의 61.8%이었고, 보통이다는 29.5%,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는 8.9%로 나타났다(표 2-57).

<표 2-57> 수강신청 시 이전 학기 수업평가의 결과를 고려하는 정도

구분	N	%		
		2019	2018	2017
대체로 그렇다	565	36.9	34.8	35.4
보통이다	453	29.5	24.5	29.4
매우 그렇다	378	24.7	38.8	29.8
대체로 그렇지 않다	91	5.9	1.2	3.7
전혀 그렇지 않다	46	3.0	0.7	1.7
합계	1,533	100	100	100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수강신청 시 이전 학기 수업평가 결과 고려 여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응답률은 타 단과대학보다 BNIT융합대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프트웨어대학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강신청 시 이전 학기 수업평가 결과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58).

<표 2-58>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수강신청 시 이전 학기 수업평가 결과 고려 여부 ()백분율

구분		수강신청 시 이전 학기 수업평가 결과 고려 여부					합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단과대학	BNIT융합대학	67(27.8)	91(37.8)	64(26.6)	19(7.9)	0(0.0)	241
	의과대학	63(37.7)	41(24.6)	43(25.7)	12(7.2)	8(4.8)	167
	소프트웨어대학	14(20.6)	24(35.3)	20(29.4)	6(8.8)	4(5.9)	68
	사회과학대학	86(24.9)	120(34.8)	105(30.4)	20(5.8)	14(4.1)	345
	보건의료융합대학	41(22.9)	67(37.4)	54(30.2)	10(5.6)	7(3.9)	179
	문리과대학	38(21.7)	70(40.0)	54(30.9)	7(4.0)	6(3.4)	175
	BNIT융합대학	69(19.3)	152(42.5)	113(31.6)	17(4.7)	7(2.0)	358
성별	남	138(20.3)	248(36.4)	225(33.0)	47(6.9)	23(3.4)	681
	여	240(28.2)	317(37.2)	228(26.8)	44(5.2)	23(2.7)	852

3) 나는 공정하게 수업평가를 한다.

‘나는 공정하게 수업평가를 한다.’에 대한 조사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이 응답자의 80.3%이었고, 보통이다는 17.9%,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는 1.8%로 나타났다(표 2-59).

<표 2-59> 수업평가의 공정성

구분	N	%		
		2019	2018	2017
매우 그렇다	664	43.4	18.4	38.6
대체로 그렇다	566	36.9	36.1	37.4
보통이다	275	17.9	44.4	23.1
대체로 그렇지 않다	19	1.2	0.6	0.2
전혀 그렇지 않다	9	.6	0.5	0.7
합계	1,533	100	100	100

단과대학에 따른 수업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응답률은 대체로 그렇다 이상은 타 단과대학보다 BNIT융합대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의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순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수업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응답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표 2-60).

<표 2-60>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수업평가의 공정성 ()백분율

구분		수업평가의 공정성					합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단과대학	BNIT융합대학	110(45.6)	91(37.8)	34(14.1)	6(2.5)	0(0.0)	241
	의과대학	100(59.9)	37(22.2)	27(16.2)	1(0.6)	2(1.2)	167
	소프트웨어대학	27(39.7)	24(35.3)	14(20.6)	1(1.5)	2(2.9)	68
	사회과학대학	152(44.1)	129(37.4)	59(17.1)	4(1.2)	1(0.3)	345
	보건의료융합대학	67(37.4)	80(44.7)	31(17.3)	1(0.6)	0(0.0)	179
	문리과학대학	64(36.6)	64(36.6)	43(24.6)	2(1.1)	2(1.1)	175
	공과대학	144(40.2)	141(39.4)	67(18.7)	4(1.1)	채워!!	358
성별	남	276(40.5)	249(36.6)	136(20.0)	13(1.9)	7(1.0)	681
	여	388(45.5)	317(37.2)	139(16.3)	6(0.7)	3(0.2)	852

사. 마일리지

1) 본교 인제스타마일리지에 대한 인지도

본교 인제스타마일리지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N=1,934) 중 대체로 잘 모르다가 27.6%(n=53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전혀 모른다(25.2%), 보통이다(24.1%), 대체로 알고 있다(15.8%), 매우 잘 알고 있다(7.3%)는 순으로 나타났다(표 2-61).

<표 2-61> 본교 인제스타마일리지에 대한 인지도

구분	N	%
대체로 잘 모른다	532	27.6
전혀 모른다	488	25.2
보통이다	466	24.1
대체로 알고 있다	306	15.8
매우 잘 알고 있다	142	7.3
합계	1,934	100

2) 본교 인제스타마일리지제도 도전 여부

본교 인제스타마일리지제도 도전 여부 조사 결과, 응답자(N=1,934) 중 도전한 적이 있음이 17.2%(n=333)이었고, 도전한 적 없음이 71.4%(n=1,381), 선발되기 어려워서 시도하지 않음이 11.4%(n=220)로 나타났다(표 2-62).

<표 2-62> 본교 인제스타마일리지제도 도전 여부

구분	N	%
없다	1,381	71.4
있다	333	17.2
선발되기 어려워서 시도하지 않는다	220	11.4
합계	1,934	100

4. 취업과 진로

가. 취업과 진로 관련

1) 진로문제에 가장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

현재 자신의 진로문제에 가장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으로는 친구(35.9%)가 가장 높았고, 부모나 친지(21.3%), 학교 선배들(18.2%), 진로나 취업 관련 인터넷(15.0%), 전공 교수님(8.5%), 학교 진로 관련 부서(대학창조일자리센터)(1.1%) 순으로 나타났다(표 2-63).

<표 2-63> 진로문제에 가장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

구분	N	%
친구들	694	35.9
부모나 친지	412	21.3
학교 선배들	352	18.2
진로나 취업 관련 인터넷	290	15.0
전공 교수님	165	8.5
학교 진로관련 부서(대학창조일자리센터)	21	1.1
합계	1,934	100

2) 진로문제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 지원정도

진로문제 및 준비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 지원 정도에 대하여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응답자(N=1,934)의 47.1%(n=911), 보통이다는 43.4%(n=839),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9.5%(n=184)로 나타났다(표 2-64).

<표 2-64> 진로문제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 지원정도

구분	N	%
보통이다	839	43.4
대체로 그렇다	524	27.1
매우 그렇다	387	20.0
대체로 그렇지 않다	144	7.4
전혀 그렇지 않다	40	2.1
합계	1,934	100

3) 진로탐색 관련 과목 만족도

진로탐색 관련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나의 진로문제 및 준비에 대한 학교의 지원 정도에 대하여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응답자(N=787)의 48.3%(n=380), 보통이다는 47.0%(n=370),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4.7%(n=37)로 나타났다(표 2-65).

4) 취업준비 교육과목 만족도

취업준비 교육과목 만족에 대한 질문에 대체로 만족하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응답자(N=642)의 41.3%(n=265), 보통이다는 53.9%(n=346),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4.8%(n=31)로 나타났다(표 2-66).

<표 2-65> 진로탐색 관련 과목 만족도

구분	N	%
보통이다	370	47.0
대체로 만족하다	243	30.9
매우 만족하다	137	17.4
대체로 만족하지 않다	28	3.6
전혀 만족하지 않다	9	1.1
합계	787	100

<표 2-66> 취업준비 교육과목 만족도

구분	N	%
보통이다	346	53.9
대체로 만족하다	167	26.0
매우 만족하다	98	15.3
대체로 만족하지 않다	21	3.3
전혀 만족하지 않다	10	1.5
합계	642	100

5) 취업과 진로 컨설턴트와의 상담 경험

취업과 진로 컨설턴트와의 상담 경험에 대하여 응답자(N=1,934)의 12.3%인 238명이 참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2-67).

<표 2-67> 취업과 진로 컨설턴트와의 상담 경험

구분	N	%
없음	1,696	87.7
있음	238	12.3
합계	1,934	100

6) 취업과 진로 컨설턴트와의 상담 경험에 대한 만족도

취업과 진로 컨설턴트와의 상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하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응답자(N=415)의 44.1%(n=183)이었고, 보통이다는 51.3%(n=213), 대체로 만족하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4.6%(n=19)로 나타났다(표 2-68).

<표 2-68> 취업과 진로 컨설턴트와의 상담 경험에 대한 만족도

구분	N	%
보통이다	213	51.3
매우 만족하다	103	24.8
대체로 만족하다	80	19.3
전혀 만족하지 않다	10	2.4
대체로 만족하지 않다	9	2.2
합계	415	100

7) 취업과 진로에 대한 전공 교수와의 상담 경험

취업과 진로에 대한 전공 교수와의 상담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체로 만족하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응답자(N=1,934)의 15%이었고, 보통이다는 12.6%, 대체로 만족하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1.1%로 나타났다(표 2-69).

<표 2-69> 취업과 진로에 대한 전공 교수와의 상담 경험

구분	N	%
상담 경험 없음	1,378	71.3
보통이다	245	12.6
대체로 만족하다	161	8.3
매우 만족하다	130	6.7
대체로 만족하지 않다	13	0.7
전혀 만족하지 않다	7	0.4
합계	1,934	100

8) 진로개발 웹사이트 이용에 대한 만족도

진로개발 웹사이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하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응답자(N=678)의 47.6%(n=323)이었고, 보통이다는 47.2%(n=320)%, 대체로 만족하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5.1%(n=35)로 나타났다 (표 2-70).

표 2-70> 진로개발 웹사이트 이용에 대한 만족도

구분	N	%
보통이다	320	47.2
대체로 만족하다	213	31.4
매우 만족하다	110	16.2
전혀 만족하지 않다	18	2.6
대체로 만족하지 않다	17	2.5
합계	678	100

9) 진로개발지원 활동 중 대학지원이 가장 필요한 항목

진로개발지원 활동 중 대학지원이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24.0%)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그다음으로는 취업 준비 교육프로그램 (23.4%), 현장실습 프로그램(10.9%), 전공 관련 진로지도(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1).

<표 2-71> 진로개발지원 활동 중 대학지원이 가장 필요한 항목

구분	N	%
진로탐색 프로그램	465	24.0
취업준비 교육프로그램	453	23.4
현장실습 프로그램	210	10.9
전공 관련 진로지도	189	9.8
진로 멘토링	172	8.9
기타	167	8.6
창업교육 프로그램	75	3.9
진로상담(취업과 진로 컨설턴트)	70	3.6
진로상담(교수님)	64	3.3
취·창업관련 동아리 활동	52	2.7
진로 관련 웹사이트	17	0.9
합계	1,934	100

10)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적정 학년에 대한 생각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적정 학년에 대한 응답으로는 3학년(52.7%)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2학년(28.3%), 1학년(13.1%), 4학년(5.9%)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72).

<표 2-72> 취업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적정 학년에 대한 생각

적정 학년에	N	%	
		2019	2018
3학년	1,019	52.7	51.2
2학년	547	28.3	29.0
1학년	254	13.1	13.8
4학년	114	5.9	6.0
합계	1,934	100	100

취업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적정 학년에 대한 단과대학, 성별 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 모든 단과대학에서 3학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1학년은 의과대학이, 2학년은 사회과학대학과 BNIT융합대학이 타 단과대학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학년 때부터 취업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2-73).

<표 2-73>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취업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적정 학년에 대한 생각 ()백분율

구분		취업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적정 학년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단과 대학	BNIT융합대학	33(10.6)	95(30.4)	167(53.5)	17(5.4)	312
	의과대학	37(22.6)	39(23.8)	75(45.7)	13(7.9)	164
	소프트웨어대학	13(14.6)	20(22.5)	52(58.4)	4(4.5)	89
	사회과학대학	50(12.0)	130(31.2)	213(51.1)	24(5.8)	417
	보건의료융합대학	28(12.0)	66(28.2)	14(6.0)	71(30.3)	179
	문리과대학	32(14.6)	58(26.5)	120(54.8)	9(4.1)	219
	공과대학	62(12.4)	130(26.1)	273(54.7)	34(6.8)	499
성별	남	143(14.0)	263(25.8)	532(52.3)	80(7.9)	1,018
	여	111(12.1)	284(31.0)	487(53.2)	34(3.7)	916

11) 본교 취업과 진로 준비 과목에 대한 만족도

본교 취업과 진로 준비에 대한 만족도 응답으로는 대체로 충분하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응답자(N=1,934)의 39.8%이었고, 보통이라는 50.6%, 대체로 부족하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9.6%로 나타났다(표 2-74).

<표 2-74> 본교 취업과 진로준비 과목에 대한 만족도

구분	N	%
보통이다	977	50.6
대체로 충분하다	524	27.1
매우 충분하다	246	12.7
대체로 부족하다	146	7.5
매우 부족하다	41	2.1
합계	1,934	100

나. 해외 취업 관련

1) 해외 취업에 관한 관심

해외 취업에 관한 관심에 대한 응답으로는 응답자(N=1,934) 중 해외 취업에 관심 있음이 68.6%(n=1,327), 해외 취업에 관심 없음이 31.4%(n=607)로 나타났다(표 2-75).

<표 2-75> 해외 취업에 관한 관심

구분	N	%
관심 있다	1,327	68.6
관심 없다	607	31.4
합계	1,934	100

<표 2-76>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해외 취업에 관한 관심 ()백분율

구분	해외 취업에 관한 관심		합계
	관심 있다	관심 없다	
BNIT융합대학	236(75.6)	76(24.4)	312
의과대학	107(65.2)	57(34.8)	164
소프트웨어대학	63(70.8)	26(29.2)	89
사회과학대학	260(62.4)	157(37.6)	417
보건의료융합대학	161(68.8)	73(31.2)	234
문리과대학	154(70.3)	65(29.7)	219
공과대학	346(69.3)	153(30.7)	499
남	650(63.9)	368(36.1)	1,018
여	677(73.9)	239(26.1)	916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해외 취업에 대한 응답을 살펴본 결과 관심 있다는 것에 대한 응답률은 타 단과대학보다 BNIT융합 대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대학, 문리과대학, 공과대학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해외 취업에 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76).

2) 해외 취업에 대한 의사

해외 취업에 대한 의사 응답으로는 상담 후 결정할 수 있음(42.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39.4%), 전혀 관심 없음(17.8%)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77).

<표 2-77> 해외 취업에 대한 의사

구분	N	%
상담 후 결정할 수 있음	828	42.8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	762	39.4
전혀 관심 없음	344	17.8
합계	1,934	100

3) 취업하고 싶은 국가

취업하고 싶은 국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관심 없음을 제외하고, 미국(26.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캐나다(11.4%), 일본(10.5%), 기타국가(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78).

<표 2-78> 취업하고 싶은 국가

구분	N	%
관심 없다	599	31.0
미국	505	26.1
캐나다	221	11.4
일본	204	10.5
기타국가	180	9.3
호주	157	8.1
싱가포르	61	3.2
베트남	4	0.2
말레이시아	3	0.2
합계	1,934	100

4) 그 국가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

그 국가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취업 후 배울 것이 많다(31.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해외 취업에 관심 없음(31.0%), 취업 후 현지 언어를 배우고 싶다(14.7%), 급여가 높다(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79).

<표 2-79> 그 국가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

구분	N	%
취업 후 배울 것이 많다	610	31.6
해외 취업에 관심 없음	600	31.0
취업 후 현지 언어를 배우고 싶다	284	14.7
급여가 높다	159	8.2
기타	144	7.4
구인 수요가 많아서 취업이 쉽다	137	7.1
합계	1,934	100

5) 해외 취업 희망 직무

해외 취업 희망 직무에 대한 응답으로는 해외 취업에 관심 없음을 제외하고 전문직(IT, 디자이너 등)(31.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일반 사무직(행정)(30.2%), 기타(10.8%), 생산·관리직(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80).

<표 2-80> 해외 취업 희망 직무

구분	N	%
해외 취업에 관심 없음	600	31.0
전문직(IT, 디자이너 등)	584	30.2
일반 사무직(행정)	315	16.3
기타	209	10.8
생산/관리직	120	6.2
서비스직(호텔 등)	106	5.5
합계	1,934	100

<표 2-81>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해외 취업희망직무 ()백분율

구분	해외 취업희망직무						합계
	관심 없음	사무직	생산관리직	전문직	서비스직	기타	
BNIT융합대학	75(24.0)	54(17.3)	38(12.2)	113(36.2)	5(1.6)	27(8.7)	312
의과대학	65(39.6)	7(4.3)	1(0.6)	41(25.0)	6(3.7)	44(26.8)	164
소프트웨어대학	26(29.2)	6(6.7)	0(0.0)	55(61.8)	1(1.1)	1(1.1)	89
사회과학대학	152(36.5)	117(28.1)	13(3.1)	54(12.9)	42(10.1)	39(9.4)	417
보건의료융합대학	69(29.5)	20(8.5)	9(3.8)	88(37.6)	8(3.4)	40(17.1)	234
문리과대학	63(28.8)	49(22.4)	10(4.6)	31(14.2)	34(15.5)	32(14.6)	219
공과대학	150(30.1)	62(12.4)	49(9.8)	202(40.5)	10(2.0)	26(5.2)	499
남	364(35.8)	161(15.8)	85(8.3)	296(29.1)	36(3.5)	76(7.5)	1,018
여	236(25.8)	154(16.8)	35(3.8)	288(31.4)	70(7.6)	133(14.5)	916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해외 취업 희망 직무에 알아본 결과, BNIT융합대학, 소프트웨어대학, 보건의료융합대학, 공과대학에서 전문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과학대학, 문리과대학에서는 사무직이, 의과대학에서는 기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생산관리직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사무직, 전문직, 서

비스직, 기타가 더 높게 나타났다(표 2-81).

6) 해외 취업에 가장 힘든 점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가장 힘든 점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체 응답자(N=1,326) 중 현지 취업 정보 부족이 26.5%(n=512)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어학 능력 부족 33.8%(n=449), 경제적 이유 21.0%(n=279), 현지 문화이해 부족 4.6%(n=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82).

<표 2-82> 해외 취업에 가장 힘든 점

구분	N	%
현지 취업 정보 부족	512	38.6
어학 능력 부족	449	33.8
경제적 이유	279	21.0
현지 문화이해 부족	61	4.6
부모님 반대	25	1.9
합계	1,326	100

7) 교내 해외취업진로센터 존재 인식

교내 해외취업진로센터 존재에 대하여 응답자(N=1,533)의 57.6%인 883명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표2-83).

<표 2-83> 교내 해외 취업 진로센터 존재 인식

구분	N	%
알고 있다	883	57.6
모른다	650	42.4
합계	1,533	100

8) 성공 해외 취업전략 교과목 개설 운영 인식

성공 해외 취업전략 교과목개설 운영인식 대하여 응답자(N=1,533)의 24.5%인 376명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표2-84).

<표 2-84> 성공 해외 취업전략 교과목개설 운영인식

구분	N	%
모른다	1157	75.5
알고 있다	376	24.5
합계	1,533	100

9) KOTRA 개최 해외 취업 박람회 참가의향

KOTRA 개최 해외 취업 박람회 참가의향을 조사한 결과 행사는 몰랐지만 참가할 의향이 있다(47.9%)가 가장 많았고, 행사도 몰랐고 참가하고 싶지도 않다(27.1%), 행사를 알고 있고 참가할 의향이 있다(15.5%), 행사를 알고 있지만 참가하고 싶지는 않다(9.5%)고 조사되었다(표2-85).

<표 2-85> KOTRA 개최 해외 취업 박람회 참가의향

구분	N	%
행사는 몰랐지만, 참가할 의향이 있다.	733	47.9
행사도 몰랐고, 참가하고 싶지도 않다.	416	27.1
행사를 알고 있고, 참가할 의향이 있다.	238	15.5
행사를 알고 있지만, 참가하고 싶지는 않다.	146	9.5
합계	1,533	100

10) 해외 취업과 진로컨설팅 행사 참가의향

해외 취업과 진로컨설팅 행사 참가의향을 조사한 결과 행사는 몰랐지만 참가할 의향이 있다(46.9%)가 가장 많았고, 행사도 몰랐고 참가하고 싶지도 않다(29.2%), 행사를 알고 있고 참가할 의향이 있다(14.8%), 행사를 알고 있지만 참가하고 싶지는 않다(9.1%)고 조사되었다(표2-86).

<표 2-86> 해외 취업과 진로컨설팅 행사 참가의향

구분	N	%
행사는 몰랐지만, 참가할 의향이 있다.	719	46.9
행사도 몰랐고, 참가하고 싶지도 않다.	447	29.2
행사를 알고 있고, 참가할 의향이 있다.	227	14.8
행사를 알고 있지만, 참가하고 싶지는 않다.	140	9.1
합계	1,533	100

11) 방학 중 진행되는 해외인턴십 참가희망 국가

방학 중 진행되는 해외인턴십 참가희망 국가 대한 응답으로는 미국(32.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캐나다(21.1%), 호주(13.6%), 일본(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87).

<표 2-87> 방학 중 진행되는 해외인턴십 참가희망 국가

구분	N	%
미국	492	32.2
캐나다	324	21.1
호주	209	13.6
일본	207	13.5
말레이시아	115	7.5
기타	103	6.7
중국	44	2.9
베트남	39	2.5
합계	1,533	100

5. 장학 및 도서관

가. 장학

1) 학비의 주된 조달 방법

2019학년도 신입생들의 학비의 주된 조달 방법으로는 부모·형제(자매) 수입이라는 응답이 6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장학금 수혜(22.0%), 학자금대출(8.8%), 아르바이트(근로 장학금 포함)(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88).

<표 2-88> 학비의 주된 조달 방법

구분	N	%		
		2019	2018	2017
부모님·형제(자매) 수입	966	63.1	63.3	57.2
장학금수혜	338	22.0	21.6	27.9
학자금대출	135	8.8	10.4	10.2
본인 아르바이트(근로 장학금 포함)	74	4.8	2.8	3.4
친척·친지	20	1.3	1.9	1.3
합계	1,533	100	100	100

2) 장학금을 얻기 위해 가장 많이 한 노력

장학금을 얻기 위해 가장 많이 한 노력에 대한 응답으로는 학점관리(성적우수 장학금 관련)가 61.3%로 가장 많았고, 노력하지 않음(23.0%), 외국어 능력향상(5.6%), 근로 활동(교내·교외)(4.4%), 자격증 취득(3.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2-89).

<표 2-89> 장학금을 얻기 위해 가장 많이 한 노력

구분	N	%	
		2019	2018
학점관리(성적우수 장학금 관련)	939	61.3	58.9
노력하지 않음	352	23.0	20.4
외국어 능력향상	86	5.6	9.0
근로 활동(교내·교외)	67	4.4	2.7
자격증 취득(특별장학금(INJE STAR 외) 관련)	47	3.1	3.9
학생단체 활동	42	2.7	5.0
합계	1,533	100	99.9

3) 교내 장학금의 등록금 범위 초과 학업장려비 지급에 대한 생각

교내 장학금의 등록금 범위초과 학업장려비 지급에 대한 생각으로는 응답자(N=1,533) 중 찬성 49.3%(n=755), 중립(모름) 39.2%, 반대 11.5%로 조사되었다(표 2-90)

<표 2-90> 교내 장학금의 등록금 범위 초과 학업장려비 지급에 대한 생각

구분	N	%
찬성	755	49.3
중립(모름)	601	39.2
반대	177	11.5
합계	1,533	100

4) 장학금 제도에 대한 개선점

장학금 제도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응답으로는 성적향상 장학금 대상자 확대(46.6%)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다양한 장학종류 개발(16.6%), 인제 장학사정관계 수혜 대상자 확대(13.9%), 장학금 1인 수혜금액의 증액(12.5%), 다각적인 장학제도 홍보 노력(10.4%)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2-91).

<표 2-91> 장학금 제도에 대한 개선점

구분	N	%	
		2019	2018
성적향상장학금 대상자 확대	715	46.6	25.2
다양한 장학종류 개발	254	16.6	10.6
인제 장학사정관제 수혜대상자 확대	213	13.9	39.3
장학금 1인 수혜금액의 증액	191	12.5	14.9
다각적인 장학제도 홍보 노력	160	10.4	10.0
합계	1,533	100	100

5) 학업 유지에 효과적이고 필요한 장학금 종류

학업 유지에 효과적이고 필요한 장학금 종류에 대한 응답으로는 성적 관련(우수, 향상) 장학금(52.4%)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19.8%), 외국어 능력향상 및 자격증취득 지원 장학금(8.2%), 기타 장학금(7.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2-92).

<표 2-92> 학업 유지에 효과적이고 필요한 장학금 종류

구분	N	%
성적 관련(우수, 향상) 장학금	804	52.4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	303	19.8
외국어 능력향상 및 자격증취득 지원 장학금	126	8.2
기타 장학금	119	7.8
취·창업지원 장학금	118	7.7
해외 취업 진로 지원 장학금	63	4.1
합계	1,533	100

6) 학생기구 단체장에 대한 봉사장학금의 성격

학생기구 단체장 봉사장학금의 성격에 대한 응답으로는 응답자(N=1,533) 중 둘 다 중복(45.9%), 봉사 장학금(33.5%), 리더십 장학금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2-93)

<표 2-93> 학생기구 단체장에 대한 봉사장학금의 성격

구분	N	%
둘 다 중복	703	45.9
봉사 장학금	513	33.5
리더십 장학금	317	20.6
합계	1,533	100

나. 도서관

1) 도서관 이용 횟수

도서관 이용 횟수는 1주일에 1~3회(33.0%)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월 1~3회(22.9%), 거의 이용하지 않음(20.6%), 2주일에 1~3회(13.4%), 거의 매일(10.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2-94)

<표 2-94> 도서관 이용 횟수

구분	N	%		
		2019	2018	2017
1주일에 1~3회	638	33.0	31.7	28.9
월 1~3회	443	22.9	23.4	25.3
거의 이용하지 않음	398	20.6	20.6	21.0
2주일에 1~3회	260	13.4	15.3	17.4
거의 매일	195	10.1	9.0	7.4
합계	1,934	100	100	100

2) 도서관 방문 시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

도서관 방문 시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로는 13:00~17:00에 이용하는 학생이 42.6%라고 응답하였고, 17:00~22:00(32.1%), 09:00~13:00(12.2%), 09:00 이전(6.6%), 22:00 이후(6.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2-95).

<표 2-95> 도서관 방문 시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

구분	N	%		
		2019	2018	2017
13:00~17:00	826	42.6	44.6	44.0
17:00~22:00	620	32.1	30.0	32.9
09:00~13:00	235	12.2	13.9	10.2
09:00 이전	128	6.6	5.8	4.8
22:00 이후	125	6.5	5.7	8.1
합계	1,934	100	100	100

3)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목적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목적은 응답자 중 일반열람실, 개인열람실, 단체열람실 이용(53.5%)이 가장 높았고, 도서관 열람, 대출, 반납(20.0%), 휴식, 친구와의 만남 장소로 활용(12.5%)이었다. 그 외 기타(6.4%), 비 도서자료 및 멀티미디어실 이용(4.8%), 학술 DB 및 전자저널, 국회 원문자료 이용(2.3%), 문화행사 관람 및 참여(0.5%)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96).

<표 2-96> 도서관 이용 주목적

구분	N	%		
		2019	2018	2017
일반, 개인, 단체열람실 이용	1,036	53.5	51.7	55.6
도서관 열람, 대출, 반납	386	20.0	20.8	19.9
휴식, 친구와의 만남 장소로 활용	241	12.5	9.9	8.4
기타	124	6.4	7.9	6.8
비 도서자료 및 멀티미디어실 이용	93	4.8	6.6	6.2
학술DB 및 전자저널, 국회 자료 이용	45	2.3	2.5	2.3
문화행사 관람 및 참여	9	0.5	0.6	0.8
합계	1,934	100	100	100

4)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공지사항을 얻는 방법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공지사항을 얻는 방법에 대한 응답으로는 학교 홈페이지(26.5%)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등)(22.5%), 교내 사람들(선후배, 조교, 교수님 등)(17.8%), 도서관 홈페이지(14.3%), 도서관 각종 공지(포스터, 플랜카드)(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97).

<표 2-97>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공지사항을 얻는 방법

구분	N	%	
		2019	2018
학교 홈페이지	513	26.5	22.6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436	22.5	20.9
교내 사람들(선후배, 조교, 교수님 등)	344	17.8	17.5
도서관 홈페이지	276	14.3	16.6
도서관 각종 공지(포스터, 플래카드)	207	10.7	11.4
기타	158	8.2	11.0
합계	1,934	100	100

5) 본교 도서관에서 확충하여야 할 것

본교 도서관에서 확충하여야 할 것에 대해 응답자(N=1,934) 중 벤치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23.2%)(n=448)이 가장 높았고, 일반도서 및 음악, 영화 등의 멀티미디어자료(19.2%), 일반열람실 환경개선(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98).

<표 2-98> 본교 도서관에서 확충하여야 할 것

구분	N	%	
		2019	2018
벤치,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	448	23.2	22.2
일반도서 및 음악, 영화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	371	19.2	16.9
일반열람실 환경개선	358	18.5	17.5
기타	276	14.3	15.3
PC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	170	8.8	9.5
3~5층 자료열람실 환경개선	116	6.0	5.4
E-book, 학술 DB 등의 전자자료	101	5.2	7.8
책 소독기, 자동대출 반납기 등의 최신시설	94	4.8	5.4
합계	1,934	100	100

6. 학생상담진로센터

가. 학생상담진로센터 운영에 대한 인식

1) 본교 학생상담진로센터 운영 여부에 대한 인식

학생들이 학생상담진로센터 운영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알고 있음 이상이 응답자의 40.0%(n=773), 알고 있었으나 어떤 기관인지 잘 몰랐음 27.1%(n=525), 잘 모름 및 전혀 몰랐음은 32.9%(n=636)로 나타났다(표 2-99).

<표 2-99> 학생상담진로센터 운영에 대한 인식

구분	N	%		
		2019	2018	2017
알고 있었으나 어떤 기관인지 잘 몰랐음	525	27.1	27.1	36.8
대체로 알고 있음	470	24.3	10.2	10.0
잘 모름	430	22.2	37.5	38.0
매우 잘 알고 있음	303	15.7	-	-
전혀 몰랐음	206	10.7	25.2	15.2
합계	1,934	100	100	

2) 본교 학생상담진로센터가 하는 일

본교 학생상담진로센터가 하는 일에 대한 응답으로는 대학 생활과 관련된 문제 상담이 54.3%(n=1,051)로 가장 높았고, 취업과 진로를 위한 검사와 상담 29.4%(n=568),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상담하는 곳 10.1%(n=195), 학사 행정이나 학교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곳 6.2%(n=120)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100).

<표 2-100> 본교 학생상담진로센터가 하는 일

구분	N	%		
		2019	2018	2017
대학 생활과 관련된 문제 상담	1,051	54.3	41.6	46.3
취업과 진로를 위한 검사와 상담	568	29.4	41.4	37.8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상담	195	10.1	12.0	10.7
학교서비스 정보 제공하는 곳	120	6.2	5.0	5.2
합계	1,934	100	100	100

나. 심리상담 전문가에 대한 생각

1) 심리적 어려움 발생 시 심리상담 전문가의 필요성

응답자의 60.3%(n=1,168)는 심리적 갈등 및 어려움이 발생 시 심리상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0%(n=595)는 보통, 8.9%(n=173)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표 2-101). 심리적 갈등 및 어려움 발생 시 심리상담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필요성을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02).

<표 2-101> 심리상담 전문가의 필요성

구분	N	%		
		2019	2018	2017
대체로 그렇다	747	38.6	73.9 (필요하다)	79.8 (필요하다)
보통이다	595	30.8	-	-
매우 그렇다	419	21.7	-	-
대체로 그렇지 않다	103	5.3	26.1 (필요하지않다)	20.2 (필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70	3.6	-	-
합계	1,934	100	100	100

<표 2-102> 심리상담 전문가의 도움 필요 여부 ()백분율

구분		문제 발생 시 심리상담 전문가의 도움 필요 여부					합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성 별	남	226(22.2)	370(36.3)	319(31.3)	55(5.4)	55(5.4)	1,018
	여	193(21.1)	377(36.3)	276(30.1)	48(5.2)	22(2.4)	916

2) 심리적 어려움 발생 시 상담 진로센터 방문 의향

심리적 어려움이 발생하면 상담 진로센터를 방문할 의향이 있는가에 보통이다가 36.1%(n=698)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그렇다(31.4%), 매우 그렇다(18.8%), 대체로 그렇지 않다(8.7%), 전혀 그렇지 않다(5.0%) 순으로 나타났다(표2-103).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2-104).

<표 2-103> 심리적 어려움 발생 시 상담 진로센터 방문 의향

구분	N	%
보통이다	698	36.1
대체로 그렇다	607	31.4
매우 그렇다	364	18.8
대체로 그렇지 않다	169	8.7
전혀 그렇지 않다	96	5.0
합계	1,934	100

<표 2-104> 심리적 어려움 발생 시 상담 진로센터 방문 의향 ()백분율

구분		심리적 어려움 발생 시 상담 진로센터 방문 의향					합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성 별	남	208(20.4)	299(29.4)	378(37.1)	69(6.8)	64(6.3)	1,018
	여	156(17.0)	308(33.6)	320(34.9)	100(10.9)	32(3.5)	916

3) 전문가 도움 요청 시 원하는 상담 진행장소

전문가 도움 요청 시 원하는 상담 진행장소에 대한 응답으로는 교내 학생상담진로센터가 46.0%(n=890)로 가장 높았고, 요청할 생각 없음 36.5%(n=705), 외부 상담센터 연계를 17.5%(n=339) 순으로 나타났다(표 2-105).

<표 2-105> 전문가 도움 요청 시 원하는 상담 진행 장소

구분	N	%
교내 학생상담진로센터	890	46.0
요청할 생각 없음	705	36.5
외부 상담센터 연계	339	17.5
합계	1,934	100

다. 정신건강

1)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우울감 정도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우울감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체 응답자(N=1,934) 중 전혀 우울하지 않음이 35.0%(n=6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보통이다(29.3%), 대체로 우울하지 않은 편이다(23.0%), 대체로 우울한 편이다(9.6%), 매우 우울한 편이다(3.1%) 순으로 나타났다(표 2-106).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체로 우울한 편임 이상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2-107).

<표 2-106>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우울감

구분	N	%		
		2019	2018	2017
전혀 우울하지 않음	677	35.0	26.1	27.6
보통임	566	29.3	29.9	30.4
대체로 우울하지 않음	445	23.0	25.8	24.0
대체로 우울한 편임	187	9.6	14.8	15.0
매우 우울한 편임	59	3.1	3.4	3.0
합계	1,934	100	100	100

<표 2-107> 성별에 따른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우울감 ()백분율

구분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우울감					합계
		매우 우울한 편임	대체로 우울한 편임	보통임	대체로 우울하지 않음	전혀 우울하지 않음	
성 별	남	36(3.5)	96(9.4)	277(27.2)	220(21.6)	389(38.2)	1,018
	여	23(2.5)	91(9.9)	289(31.6)	225(24.6)	288(31.4)	916

2)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분노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분노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혀 화가 나지 않음이 3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대체로 화가 나지 않음(27.5%), 보통임(26.5%), 가끔 화가 남(12.0%), 항상 화가 남(3.0%)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108).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항상 화가 남에 대한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2-108).

<표 2-108>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분노

구분	N	%		
		2019	2018	2017
전혀 화가 나지 않음	600	31.0	25.8	24.0
대체로 화가 나지 않음	530	27.5	26.1	27.6
보통임	513	26.5	29.9	30.4
가끔 화가 남	233	12.0	14.8	15.0
항상 화가 남	58	3.0	3.4	3.0
합계	1,934	100	100	100

<표 2-109> 성별에 따른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분노 ()백분율

구분		최근 2~3주 동안 느끼는 분노					합계
		항상 화가 남	가끔 화가 남	보통임	대체로 화가 나지 않음	전혀 화가 나지 않음	
성 별	남	39(3.8)	119(11.7)	252(24.8)	259(25.4)	349(34.3)	1,018
	여	19(2.1)	114(12.4)	261(28.5)	271(29.6)	251(27.4)	916

3)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시도를 해 본 경험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시도를 해 본 경험에 대한 응답으로는 응답자의 7.1%(n=136)가 있다고 응답했고(표 2-110),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시도를 해 본 경험이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11).

<표 2-110> 자살 생각·시도를 해 본 경험

구분	N	%		
		2019	2018	2017
없다	1,797	92.9	91.5	91.5
있다	136	7.1	8.5	8.5
합계	1,933	100	100	100

<표 2-111> 성별에 따른 자살 생각·시도를 해 본 경험 ()백분율

구분		자살 생각이나 시도 경험 여부		합계
		있다	없다	
성별	남	80(7.9)	938(92.1)	1,018
	여	57(6.2)	859(93.8)	

4) 분노, 우울, 자살 생각이나 충동 경험 시 도움희망 여부

분노, 우울, 자살 생각이나 충동 등으로 힘든 경험을 하고 있을 시 상담희망 여부에 대한 응답은 도움을 받고 싶다(57.4%), 도움을 받고 싶지만, 주위에 알려질까 봐 걱정되어 망설여 진다(15.6%), 도움 받고 싶지 않다(27.0%)는 순으로 나타났다(표 2-112).

<표 2-112> 힘든 경험을 하고 있을 도움희망 여부

구분	N	%	
		2019	2018
도움을 받고 싶다.	128	57.4	24.1
도움을 받고 싶지만, 주위에 알려질까 봐 망설여진다.	35	15.6	18.5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60	27.0	57.4
합계	223	100	100

라. 학생상담진로센터에 희망하는 프로그램

1) 현재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현재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는 응답자의 34.7%(n=671)가 학업 문제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는 진로문제(33.0%), 기타(13.7%), 교우관계(7.2%), 심리 정서(5.4%), 이성 관계(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113). 단과대학에 따른 현재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조사한 결과, 학업 문제는 모든 단과대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타 단과대학보다 보건의료융합대학, 소프트웨어대학, BNIT융합대학 순으로 나타났고, 진로 문제는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BNIT융합대학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우관계는 의과대학, 보건의료융합대학, 공과대학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교우관계, 이성 관계가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진로문제, 학업 문제, 심리 정서, 교수님과 관계, 가족관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표 2-114).

<표 2-113> 현재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구분	N	%	
		2019	2018
학업 문제	671	34.7	35.5
진로문제	638	33.0	31.0
기타	265	13.7	17.3
교우관계	140	7.2	7.1
심리 정서	105	5.4	-
이성 관계	68	3.5	5.5
가족관계	30	1.6	1.2
교수님과의 관계	17	.9	2.4
합계	1,934	100	100

<표 2-114>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현재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백분율

구분	현재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합계	
	진로 문제	학업 문제	심리 정서	교우 관계	교수님 과 관계	이성 관계	가족 관계	기타		
단과대학	BNIT융합대학	103 (33.0)	113 (36.2)	25 (8.0)	20 (6.4)	3 (1.0)	9 (2.9)	6 (1.9)	33 (10.6)	312
	의과대학	24 (14.6)	57 (34.8)	10 (6.1)	20 (12.2)	3 (1.8)	5 (3.0)	6 (3.7)	39 (23.8)	164
	소프트웨어대학	25 (28.1)	33 (37.1)	3 (3.4)	6 (6.7)	2 (2.2)	7 (7.9)	3 (3.4)	10 (11.2)	89
	사회과학대학	155 (37.2)	141 (33.8)	22 (5.3)	24 (5.8)	3 (0.7)	9 (2.2)	7 (1.7)	56 (13.4)	417
	보건의료융합대학	52 (22.2)	108 (46.2)	6 (2.6)	22 (9.4)	2 (0.9)	8 (3.4)	2 (0.9)	34 (14.5)	234
	문리과대학	96 (43.8)	57 (26.0)	14 (6.4)	13 (5.9)	2 (0.9)	8 (3.7)	0 (0.0)	29 (13.2)	219
	공과대학	183 (36.7)	162 (32.5)	25 (5.0)	35 (7.0)	2 (0.4)	22 (4.4)	6 (1.2)	64 (12.8)	499
성별	남	335 (32.9)	337 (33.1)	54 (5.3)	74 (7.3)	8 (0.8)	51 (5.0)	13 (1.3)	146 (14.3)	1,018
	여	303 (33.1)	334 (36.5)	51 (5.6)	66 (7.2)	9 (1.0)	17 (1.9)	17 (1.9)	119 (13.0)	916

2) 학생 상담센터 프로그램 참여 또는 이용희망 프로그램

학생 상담센터에서 참가 또는 이용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은 개인 상담(32.3%)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심리검사(29.6%), 관심 없음(19.0%), 집단상담(11.0%), 학생 주도적 참여프로그램(8.1%)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115).

<표 2-115> 참여 및 이용희망 프로그램

구분	N	%		
		2019	2018	2017
개인 상담	624	32.3	32.0	38.4
심리검사	572	29.6	31.9	33.5
관심 없다	367	19.0	17.7	15.4
집단상담	212	11.0	9.0	6.4
학생 주도적 참여프로그램	159	8.1	9.4	6.3
합계	1,934	100	100	100

3) 학생 상담센터 방문 시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

학생 상담센터 방문 시 도움받고 싶은 부분에 대하여 진로적성이 응답자(N=1,934)의 42.3%(n=7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학업 및 성적(30.7%), 심리 정서(12.3%), 대인관계(7.4%), 성격(4.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이성 문제(1.4%), 가족 문제(0.3%), 성 관련 문제(0.2%)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116).

<표 2-116> 학생상담진로센터 방문 시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

구분	N	%		
		2019	2018	2017
진로적성	797	41.3	43.4	41.4
학업 및 성적	593	30.7	28.2	30.6
심리 정서	237	12.3	6.3(성격포함)	6.1(성격포함)
대인관계	143	7.4	6.0	7.5
성격	83	4.3	-	-
가치관	45	2.3	2.6	2.5
이성 문제	28	1.4	1.4	2.0
가족 문제	5	0.3	2.4	1.6
성 관련 문제	3	0.2	-	-
기타	-	-	9.7	8.3
합계	1,934	100	100	100

7. 본 설문 응답의 충실성

본 설문 응답에 대한 충실성에 대해 1학기에는 전체 응답자(N=1,934)의 64.3%(n=1,241)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대체로 그렇다(25.0%), 보통이다(9.0%), 대체로 그렇지 않다(1.0%), 전혀 그렇지 않다(0.7%)는 순으로 나타났다. 2학기에는 전체 응답자(N=1,533)의 80.5%(n=1,233)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는 대체로 그렇다(14.8%), 보통이다(3.7%), 대체로 그렇지 않다(0.7%), 전혀 그렇지 않다(0.3%)는 순으로 나타났다(표 2-117).

<표 2-117> 본 설문 응답의 충실성

구분	2019-1학기		2019-2학기	
	N	%	N	%
매우 그렇다	1,241	64.3	1,233	80.5
대체로 그렇다	484	25.0	227	14.8
보통이다	175	9.0	57	3.7
대체로 그렇지 않다	20	1.0	11	0.7
전혀 그렇지 않다	14	0.7	5	0.3
합계	1,934	100	1,533	100

IV. 요약 및 결론

본 조사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진학과 학교만족도

2019학년도 신입생의 전체 응답자(N=1,533)를 대상으로 대학진학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2019학년도 신입생들의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는 부·울·경 지역이 응답자(N=1,533)의 82.1%(n=1,259)로 지난해(80.0%)보다 증가하였고, 대구·경북(6.4%)은 지난해(8.0%)보다 약간 감소하였고, 인천·경기(3.6%) 지역 학생은 지난해(3.3%)보다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학년도 신입생이 수능 이후 인제대학교를 단체로 방문하여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경험은 응답자(N=1,533)의 14.9%(n=228)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139명의 학생이 인제대학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인제대학교 교직원 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개최한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경험은 응답자(N=1,533)의 22.4%(n=343)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240명의 학생이 인제대학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는 지난해에 비하여 감소한 것이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본교 방문 입시설명회와 교직원의 고등학교 방문 입시설명회가 모두 효과적이나 고등학교 방문 입시설명회가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한편 입시 홍보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적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입학 전 본교에 대한 최초의 정보를 얻는 곳은 지난해에 이어 인터넷(32.9%)과 담임 교사 상담(25.6%)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부모님 또는 가족(11.5%), 친구(9.5%)라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하여, 대학 정보 습득에 더욱 정확한 정보 전달 매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합격 가능성과 백병원 재단 이미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학과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합격할 가능성(22.4%)으로 지난해(21.5%)보다 약간 높아졌고, 지난해와 비교하여 취업률 및 취업전망에 대한

응답률은 감소했지만, 적성(20.9%), 학문적 흥미(15.1%)에 대한 응답률은 지난해(19.5%/14.4%)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할 시에 단순히 취업률과 취업전망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할 가능성 및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2019학년도 신입생들은 본교 선택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준 대상으로는 본인 자신의 결정(60.7%)이 지난해(59.2%)보다 소폭 증가하여 여전히 가장 높았고, 가족 및 친지(17.7%)와 고3 담임선생님(9.2%)의 영향 역시 지난해와 비슷하여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다.

본인이 전공하고 싶은 분야와 현재 소속 학과의 일치도는 비슷하게 또는 정확하게 일치한다가 64.6%로 나타났고, 보통이다 이상의 응답률(90.8%)이 지난해(85.9%)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한 것과 연결되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합격한 학과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의 긍정적 응답 69.9%로 지난해(67.7%)보다 소폭 증가하였고, 학과에 만족하지 못할 시 차후 계획으로는 현재 전공으로 졸업 후 해결방안 모색(28.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기타(15.9%), 복수전공(15.7%), 편입(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중도 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진로적성탐색을 통해 복수전공, 연계 전공 또는 전과를 할 수 있도록 정보 및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주고, 전공 관련 비전 제시 및 구체적인 취업 준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한편, 본교 입학 만족도에 대한 응답으로 대체로 만족 및 매우 만족의 긍정적인 응답률(71.1%)이 지난해(50.0%)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대체로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의 부정적인 응답률(3.5%)은 지난해(12.2%)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9학년도 신입생들의 본교 입학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 대학생활

2019학년도 신입생의 전체 응답자(1학기 N=1,934 2학기 N=1,533)를 대상으로 학생 생활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2019학년도 신입생들이 본교 입학 후 가장 알고 싶고 하고 싶은 내용으로는 전체 응답자(N=1,934)의 37.3%가 전공학과에 대한 정보라고 하였고, 그다음으로는 취업 정보, 학사관리, 장학정보, 대외활동 정보, 효과적인 학습 방법 등의 순이었다. 대학 생활 중 가장 하고 싶은 분야는 폭넓은 대인관계(31.0%)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지난해(9.4%)보다 대폭 증가하였고, 다음으로는 전공공부 및 학업, 해외연수,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 등의 순으로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아가 교수에 대하여 가장 기대하는 것은 충실한 강의(49.5%)라는 응답이 지난해(44.6%)보다 높아졌고, 그다음은 취업과 진로지도(24.3%)로 지난해(21.9%)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해외연수에 대한 응답률(20.1%) 역시 지난해(12.6%)보다 증가하여 이를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2019학년도 신입생은 전공과 취업뿐만 아니라 폭넓은 대인관계, 해외연수 등에 다양한 관심과 기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19학년도 신입생에 대해 평생 지도교수제가 대학 생활적응 및 진로준비에 대체로 도움이 된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61.4%(n=1,118), 대체로 도움이 안 된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6.3%(n=122)로 나타나 지난해(48.4%/9.9%)보다 만족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생 지도교수의 지도와 상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대체로 만족 이상 응답은 응답자(N=1,934)의 61.4%로 나타났다. 이는 해가 갈수록 평생 지도교수제가 정착되고 상담에 대한 만족도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니, 앞으로도 학생들의 대학 생활적응 및 진로준비를 도울 실제적인 방안과 그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 된다.

지도교수의 지도와 상담을 받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신입생들은 평생 지도교수님에 대한 친밀감 부족(35.2%)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기타(19.2%), 평생 지도 교수님과 상담시간 맞추기의 어려움(16.6%), 평생 지도교수님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학생과 지도교수 사이의 이러한 거리감 문제 해결을 위한 학과(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동아리 활동이 대학 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응답자(N=1,533)의 48.7%로 지난해(57.8%)보다 낮게 나타났고, 축제 중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는 초청공연(가수)(46.2%) 이 가장 높았고, 선후배와의 만남(14.7%), 가요제(11.5%) 등은 지난해(14.5%/12.9%)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앞으로 활동 하고 싶은 봉사 분야로는 해외 봉사활동(37.9%)(n=58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재능기부활동(교육, 문화, 기술 등)(35.3%), 농촌봉사활동(10.8%), 시설재가 봉사활동(9.7%), 환경정화 활동(6.3%) 순이었는데, 지난해보다 재능기부활동, 환경정화 활동은 소폭 증가했지만, 해외 봉사활동, 농촌봉사활동, 시설재가 봉사활동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생활에서 인간관계를 가장 맺기 힘든 대상은 선후배(26.8%)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교수(24.3%), 동급생(12.9%), 이성 친구(12.4%), 기타(11.9%), 조교(6.0%), 직원(5.7%) 순이었다. 타 단과대학보다 선후배는 BNIT융합대학에서, 교수는 의과대학에서, 조교는 BNIT융합대학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선후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성 친구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후배 교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고등학교와 달리 선후배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입학 초기~1학년의 대학문화는 신입생들에게는 낯설고 적응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신입생들은 동아리 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다양한 대학 생활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통학버스 이용의 편리성에 대하여는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44.1%,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19.7%로 지난해보다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졌으며, 교내 휴식공간 충분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 응답이 45.2%,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 응답이 20.2%로 나타났다. 교내 공간과 기자재의 이용 및 대여의 용이성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53.2%,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9.2%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3. 학습지원

2019학년도 신입생의 전체 응답자(N=1,934)를 대상으로 학습지원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2019학년도 신입생들은 본교 학습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온라인 학습유형 검사(22.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IU-Together(학습 튜터링)(8.2%), 국내 현장체험 활동(6.2%), 학습법 특강(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교에서 참여하고 있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수에 대해서는 1개(11.9%)가 가장 높았고, 2~4개(7.9%), 5~7개(0.8%) 등의 순이었으며, 추가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프로그램 수에 대한 응답으로는 학습 컨설팅(학습 상담 및 학습 코치)(40.6%)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22.3%), 본교 우수학생의 학습법 특강(19.3%), 자기 주도적 프로젝트 교육(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교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가장 만족스러운 요인 및 불만족스러운 요인으로는 모두 예산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9학년 신입생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입생 프로그램 개발(47.6%)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학습 상담(개인 또는 집단)(17.1%),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13.1%) 등의 순이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시간으로는 수요일 오후(20.6%)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월요일 오후(15.9%), 목요일 오후(13.0%), 월요일 오전(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학사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게 되는 방법에 대한 응답으로는 학교 홈페이지(33.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각종 SNS를 통해서(28.0%), 친구를 통해서(23.0%), 학과사무실(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학사제도 시스템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시스템(33.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없음(30.0%), 전자출결 시스템(13.4%),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시스템(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생활보다는 주어진 틀대로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진 타율적인 삶에서, 모든 것들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자기주도적인 대학문화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해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전공공부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학습 부진으로 인한 학습의욕 저하뿐 아니라 무기력한 대학 생활로

인한 중도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습 현황 및 학습부진의 원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며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4. 수업평가

2019학년도 신입생의 전체 응답자(N=1,533)를 대상으로 수업평가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먼저 수업평가는 개인적인 호감보다는 강의의 종합적인 내용을 판단하여 수업평가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68.9%)은 지난해(66.6%)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3.6%)은 지난해(5.7%)보다 낮게 나타나, 2019학년도 신입생들은 2018학년도 신입생들보다 개인적인 호감보다 강의의 종합적인 내용으로 판단하여 수업평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강신청 시 이전 학기 수업평가 결과 고려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이 긍정적인 응답(61.8%)이 지난해(73.6%)보다 낮게 나타났고,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8.9%)은 지난해(1.9%)보다 높게 나타나, 2019학년도 신입생들은 2018학년도 신입생들보다 수강신청 시 이전 학기 수업평가 결과를 고려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평가를 공정하게 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80.3%)이 지난해(54.4%)보다 매우 높아졌고,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1.8%)은 지난해(1.1%)보다 소폭 높게 나타나 2019학년도 신입생들은 2018학년도 신입생들보다 수업평가를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업평가 시 개인적인 호감보다는 강의의 종합적인 내용을 판단하여 평가한다는 응답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그로 인해 공정성에 대한 응답률 역시 지난해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 된다.

이를 통해 볼 때 2019학년도 신입생들은 대체로 강의의 종합적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수업평가를 하고, 대체로 공정하게 수업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신입생들은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업평가라는 학생들의 권리행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업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진로와 취업

2019학년도 신입생의 전체 응답자(N=1,934)를 대상으로 진로와 취업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현재 자신의 진로문제에 가장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으로는 친구(35.9%)가 가장 높았고, 부모나 친지(21.3%), 학교 선배들(18.2%), 진로나 취업 관련 인터넷(15.0%), 전공 교수님(8.5%)으로 나타났다. 진로문제 및 준비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 지원정도 질문에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47.1%(n=911),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9.5%(n=184)로 나타났다.

취업과 진로 컨설턴트와의 상담 경험에 대하여 응답자(N=1,934)의 12.3%인 238명이 참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체로 만족하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9.4%이었고, 대체로 만족하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1.0%로 나타났다. 진로 웹 개발사이트에 대해서는 이용 경험이 없다(64.9%)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진로개발지원 활동 중 대학지원이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는 진로탐색 프로그램(24.0%)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취업 준비 교육프로그램(23.4%), 현장실습 프로그램(10.9%), 전공 관련 진로지도(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적정 학년에 대한 응답으로는 3학년(52.7%)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2학년(28.3%), 1학년(13.1%), 4학년(5.9%)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모든 단과대학에서 3학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1학년은 의과대학이, 2학년은 사회과학대학과 BNIT융합대학이 타 단과대학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해외 취업에 관한 관심과 의사로는 응답자(N=1,934) 중 해외 취업에 관심 있음이 68.6%(n=1,327)였고, 해외 취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이 39.4%(n=762)로 나타났다. 취업하고 싶은 국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미국(26.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캐나다(11.4%), 일본(10.5%), 기타국가(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취업 희망 직에 대한 응답으로는 해외 취업에 관심 없음을 제외하고 전문직(IT, 디자이너 등)(31.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해외 취업에 가장 힘든 점에 대한 응답으

로는 현지 취업 정보 부족(26.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어학 능력 부족(23.2%), 경제적 이유(14.4%), 현지 문화이해 부족(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 장학금 및 도서관

2019학년도 신입생의 전체 응답자(N=1,533)를 대상으로 본교 장학금 및 도서관 관련 생각을 조사하였다.

신입생들의 학비의 주된 조달 방법은 부모·형제(자매) 수입(63.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학금 수혜(22.0%)는 지난해(21.6%)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학자금대출은 감소되고, 본인 아르바이트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을 얻기 위해 학점 관리(성적 우수 장학금 관련)(61.3%)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58.9%)보다 증가하였으며, 외국어 능력향상(5.6%)과 자격증 취득(3.1%)은 지난해(9.0%/3.9%)보다 감소하였고, 노력하지 않음(23.0%)과 근로 활동(교내·교외)(4.4%)은 지난해(20.4%/2.7%)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업 유지에 효과적이고 필요한 장학금 종류에 대한 응답으로는 성적 관련(우수, 향상) 장학금(52.4%)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19.8%), 외국어 능력향상 및 자격증취득 지원 장학금(8.2%), 기타 장학금(7.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학금제도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응답으로는 성적향상 장학금 대상자 확대(46.6%)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다양한 장학종류 개발(16.6%), 인제 장학사정관계 수혜대상자 확대(13.9%), 장학금 1인 수혜금액의 증액(12.5%), 다각적인 장학제도 홍보 노력(10.4%) 순이었다.

신입생들의 도서관 이용 횟수는 1주일에 1~3회(33.0%)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월 1~3회(22.9%), 거의 이용하지 않음(20.6%), 2주일에 1~3회(13.4%), 거의 매일(10.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 방문 시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로는 13:00~17:00에 이용하는 학생이 42.6%로 가장 많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목적은 일반열람실, 개인열람실, 단체열람실 이용(53.5%)이 가장 높았고, 도서관 열람, 대출, 반납(20.0%), 휴식, 친구와의 만남 장소로 활용(12.5%) 등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공지사항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26.5%)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등)(22.5%), 교내 사람들(선후배, 조교,

교수님 등)(17.8%), 도서관 홈페이지(14.3%), 도서관 각종 공지(포스터, 플랜카드)(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에서 확충하여야 할 것에 대해 응답자(N=1,934) 중 벤치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23.2%)(n=448)이 가장 높았고, 일반도서 및 음악, 영화 등의 멀티 미디어자료(19.2%), 일반열람실 환경개선(18.5%), 기타(14.3%), PC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7. 학생상담진로센터 및 심리 건강

2019학년도 신입생의 전체 응답자(N=1,934)를 대상으로 본교 학생상담진로센터 관련 및 심리 정신건강을 조사하였다.

본교 학생상담진로센터 운영에 대하여 전체 신입생 응답자 중 대체로 알고 있음 이상이 응답자의 40.0%(n=773)로 지난해(10.2%)와 비교하여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교 학생상담진로센터가 하는 일에 대하여 대학 생활과 관련된 문제 상담(54.3%)이 가장 높았고, 취업과 진로를 위한 검사와 상담(29.4%),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 발생 시 상담하는 곳(10.1%), 학사 행정이나 학교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곳(6.2%)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입생들은 심리 정신건강의 문제뿐 아니라 대학 생활 전반에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신입생 중 60.3%가 심리적 갈등 및 어려움이 발생 시 심리상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담센터 방문 의향은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 응답률이 50.2%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조금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문가 도움 요청 시 원하는 상담 진행 장소에 대한 응답으로는 교내 학생상담진로센터(46.0%)가 가장 높았고, 요청할 생각 없음(36.5%), 외부 상담센터 연계(17.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외부상담센터를 선호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우수 상담센터를 개발·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체 응답자(N=1,934) 중 최근 2~3주 동안 매우 우울한 편이라는 응답은 3.1%(n=59)로 지난해(3.6%)보다 감소했고, 항상 화가 남이라는 응답 역시 3.0%(n=58)로 지난해(3.4%)보다 소폭 감소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우울감과 분노를 더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신입생보다 소폭이지만 우울과 분노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학 초기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력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대학생활적응력 검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평생 지도교수 및 학생상담진로센터의 상담 지원의 영향으로 생각되며 이에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지원이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신입생 중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시도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7.1%(n=136)로 지난해(8.5%) 비교하여 감소하였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분노, 자살 생각이나 충동 등으로 힘든 경험을 하고 있을 시 심리상담 전문가의 도움 요청 의사에 대한 생각을 조사 결과, 응답자(N=223) 중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응답은 57.4%(n=128), 도움을 받고 싶지만, 주위에 알려질까 망설여진다. 15.6%(n=35), 도움받고 싶지 않다가 27.0%(n=60)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도움을 받고 싶지만, 주위에 알려질까 봐 걱정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우울과 자살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항상 화가 난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할 경우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울과 분노가 높은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자살사고와 경험이 있거나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학생들 역시 평소 주의 깊은 관찰과 지원이 필요하다.

신입생들이 현재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는 학업 문제(34.7%), 진로문제(33.0%), 기타(13.7%), 교우관계(7.2%), 심리·정서(5.4%), 이성 관계(3.5%) 등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상담센터 방문 시 가장 도움받고 싶은 것도 진로적성(44.3%), 학업 및 성적(30.7%), 심리·정서(12.3%)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 신입생들은 진로 및 학업과 더불어 심리·정서에 대한 도움 또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학년도 신입생들이 상담센터에서 이용하기를 가장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개인 상담(32.3%), 심리검사(29.6%)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집단상담(11.0%)에 관한 관심 또한 소폭 증가하였으나, 학생 주도적 참여프로그램(8.1%)은 지난해(9.4%)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2019학년도 신입생들은 학생상담진로센터를 통해 본인들의 진로와

학업 그리고 대학 생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욕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상담센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신입생들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이해하고 건강한 대학 생활과 유능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학과(부), 부서와 연계한 유기적인 지원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신입생들이 자기계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본 설문 응답에 대한 충실성에 대해 1학기 설문에서는 89.3%가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했고, 1.7%만이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을 했으며, 2학기 설문에서는 95.3%가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했고, 1.0%만이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본 설문에 응한 신입생들은 충실하게 설문에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

이윤정, 장현정(2019). 대학신입생들의 자아정체감, 지각된 스트레스, 정서표현 양가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3), 709-714.

2019학년도 재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 조사연구

김동연* · 박지현**

목 차

I. 조사 연구 목적

II. 조사 방법 및 절차

III. 결과해석

IV. 요약 및 결론

I. 조사 연구 목적

본교 인권센터에서는 평등하고 성숙한 성문화를 형성하고 성희롱·성폭력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대학 생활을 위해 본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피해 경험, 대처방법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성 관련 문제를 개인의 일로 치부 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면서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학생들의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여 성희롱·성폭력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 및 교육방법을 찾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나아가 인제대학교 내 건전한 성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 형성에 필요한 제반 정책수립의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 인제대학교 인권센터 과장

** 인제대학교 인권센터 센터장

II. 조사 방법 및 절차

1. 조사 대상

<표 3-1> 응답자 분포

단과대학	학과	N	%
사회과학대학	소비자가족학과	101	1.4
	공공인재학부	262	3.7
	보건행정학과	199	2.8
	사회복지학과	148	2.1
	상담심리치료학과	123	1.7
	신문방송학과	126	1.8
	유아교육과	98	1.4
	경영학부	297	4.2
	국제경상학부	272	3.9
	경영통상학과(야간)	16	0.2
	특수교육과	84	1.2
통계학과	96	1.4	
문리과대학	스포츠헬스케어학과	109	1.5
	인문문화융합학부	245	3.5
	국제어문학부	289	4.1
	의생명화학과	98	1.4
	음악학과	92	1.3
	응용수학과	35	0.5
BNIT융합대학	나노융합공학부	242	3.4
	바이오식품과학부	180	2.6
	제약공학과	251	3.6
	바이오테크놀로지학부	190	2.7
	헬스케어IT학과	69	1.0
공과대학	건축학과	167	2.4
	실내건축학과	117	1.7
	멀티미디어학부	179	2.5
	디자인엔지니어링학과	87	1.2
	산업경영공학과	107	1.5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부	516	7.3
	토목도시공학부	108	1.5
	미래에너지공학과	38	0.5
	환경공학과	116	1.6
	금형·신소재공학과	11	0.2
소프트웨어대학	드론IoT시뮬레이션학부	82	1.1
	컴퓨터공학부	229	3.3
	물리치료학과	146	2.1
보건의료융합대학	보건안전공학과	163	2.3
	의용공학부	247	3.5
	임상병리학과	202	2.9
	작업치료학과	121	1.7
	간호학과	345	4.9
의과대학	의학과	182	2.6
	의예과	146	2.1
	약학대학	111	1.6
	합계	7,042	100

<표 3-2> 응답자의 학년별 분포

구분	N	%
1학년	1,533	21.8
2학년	1,678	23.8
3학년	1,828	26.0
4학년	1,924	27.3
5학년 이상	79	1.1
합계	7,042	100

<표 3-3> 응답자의 성별 분포

구분	N	%
남자	3,204	45.5
여자	3,838	54.5
합계	7,042	100

2. 조사 절차

본 설문조사는 본교 On-Line 시스템(SAIL System)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인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에 앞서 설문조사의 목적과 On-Line 설문조사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각 학과(부)의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성폭력의 정의와 성폭력 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넣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본 조사는 2019년 11월 28일(목) ~ 12월 15일(일), 2020년 1월 3일(금) - 1월 19일(일)까지 실시하였다.

3. 조사 내용

본 조사 연구에서는 재학생들의 1. 성폭력 피해 실태, 2.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 3. 성희롱 예방 교육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설문은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기술자료 분석을 통하여 빈도, 백분율 등을 구하였으며, 교차분석을 통해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결과 값의 분포를 파악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한 자료 처리는 SPSS 26.0K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Ⅲ. 조사 결과

1. 성폭력 피해 실태

가. 성폭력 경험의 유무

재학생을 대상(N=7,042)으로 지난 2019학년도 하계방학 기간에 성폭력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의 5.7%에 해당하는 404명의 학생이 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표 3-4).

<표 3-4> 성폭력 경험 유무

구분	N	%		
		2019	2018	2017
없다	6,638	94.3	92.0	91.5
있다	404	5.7	8.0	8.5
합계	7,042	100	100	100

<표 3-5>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성폭력 경험 여부 ()백분율

구분	성폭력 경험 여부		합계	
	있다	없다		
단과대학	공과대학	95(6.6)	1,351(93.4)	1,446
	문리과대학	55(4.8)	1,083(95.2)	1,138
	보건의료대학	46(5.2)	833(94.8)	879
	사회과학대학	89(5.7)	1,463(94.3)	1,552
	소프트웨어대학	15(5.6)	254(94.4)	269
	약학대학	8(7.2)	103(92.8)	111
	의과대학	54(7.5)	661(92.5)	715
	BNIT융합대학	42(4.5)	890(95.5)	932
학년	1학년	66(4.3)	1,467(95.7)	1,533
	2학년	85(5.1)	1,593(94.9)	1,678
	3학년	106(5.8)	1,722(94.2)	1,828
	4학년	140(7.3)	1,784(92.7)	1,924
	5학년 이상	7(8.9)	72(91.1)	79
성별	남자	245(7.6)	2,959(92.4)	3,204
	여자	159(4.1)	3,679(95.9)	3,838

단과대학에 따른 성폭력 경험 여부는 의과대학이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약학대학,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소프트웨어대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성폭력 경험 여부는 5학년 이상(8.9%), 4학년(7.3%), 3학년(5.8%), 2학년(5.1%), 1학년(4.3%)의 순으로 비교적 학년이 높을수록 성폭력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전체 성폭력 유경험 응답자(N=404) 중 남학생은 7.6%(245명), 여학생은 4.1%(159명)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3-5).

나. 성폭력 유형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 유형을 조사해보았다. 조사 시 표에 제시된 피해 유형(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 또는 성추행, 두 가지 유형 이상, 강제추행, 대가 및 보복성 성희롱, 성폭행 수준 이상)과 그 내용을 설문지에 제시하였으며, 설명을 읽은 후 해당하는 사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3-6> 성폭력 유형

구분	N	%		
		2019	2018	2017
언어적 성희롱	257	55.9	78.0	79.9
시각적 성희롱	86	18.7	9.1	8.3
신체적 성희롱 또는 성추행	67	14.5	9.1	6.1
두 가지 유형 이상	20	4.3	2.0	0.8
강제추행	16	3.5	1.5	1.7
대가 및 보복성 성희롱	9	2.0	1.2	2.2
성폭행 수준 이상	5	1.1	0.1	1.0
합계	460	100	100	100

성폭력 유형별로 보면 신체 미접촉 수준의 피해 발생률은 77.7%였는데, 언어적 성희롱 사례가 55.9%로 가장 많았고, 시각적 성희롱 사례가 18.7%이었다. 신체 접촉 수준의 피해 발생률은 22.3%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신체적 성희롱 또는 성추행 14.5%, 두 가지 유형 이상 4.3%, 강제추행 3.5%, 대가 및 보복성 성희롱 2.0%, 성폭행 수준 이상 1.1% 순으로 나타났다(표 3-6).

<표 3-7>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성폭력 유형 ()백분율

구분	성폭력 경험 시 유형							합계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 또는 성추행	대가 및 보복성 성희롱	강제추행	성폭행 수준 이상	두 가지 유형 이상		
단과 대학	공과대학	60(58.3)	17(16.5)	17(16.5)	1(1.0)	4(3.9)	2(1.9)	2(1.9)	103
	문리과대학	51(51.5)	22(22.2)	13(13.0)	2(2.0)	6(6.1)	0(0.0)	5(5.1)	99
	보건의료융합대학	24(48.0)	12(24.0)	4(8.0)	2(4.0)	4(8.0)	1(2.0)	3(3.0)	50
	사회과학대학	44(53.0)	18(21.7)	16(19.3)	2(2.4)	0(0.0)	1(1.2)	2(2.4)	83
	소프트웨어대학	16(64.0)	3(12.0)	3(12.0)	0(0.0)	1(4.0)	0(0.0)	2(8.0)	25
	약학대학	9(75.0)	2(16.7)	0(0.0)	1(8.3)	0(0.0)	0(0.0)	0(0.0)	12
	의과대학	24(58.5)	6(14.6)	6(14.6)	1(2.4)	0(0.0)	1(2.4)	3(7.3)	41
	BNIT융합대학	29(61.7)	6(12.8)	8(17.0)	0(0.0)	1(2.1)	0(0.0)	3(6.4)	47
학년	1학년	38(55.1)	12(17.4)	12(17.4)	1(1.4)	3(4.3)	1(1.4)	2(2.9)	69
	2학년	61(58.7)	19(18.3)	16(15.4)	1(1.0)	2(1.9)	2(1.9)	3(2.9)	104
	3학년	65(53.3)	24(19.7)	19(15.6)	1(0.8)	4(3.3)	1(0.8)	8(6.6)	122
	4학년	87(56.1)	28(18.1)	20(12.9)	5(3.2)	7(4.5)	1(0.6)	7(4.5)	155
	5학년 이상	6(60.0)	3(30.0)	0(0.0)	1(10.0)	0(0.0)	0(0.0)	0(0.0)	10
성 별	남자	149(60.1)	50(20.1)	27(10.8)	4(1.6)	5(2.0)	3(1.2)	10(4.0)	248
	여자	108(50.9)	36(17.0)	40(18.9)	5(2.4)	11(5.2)	2(0.9)	10(4.7)	212

단과대학에 따른 성폭력 유형의 차이를 보면 약학대학 학생의 75.0%, 소프트웨어대학의 64.0%, BNIT융합대학의 61.7%, 의과대학의 58.5%가 언어적 성희롱을 경험하였고 응답하였고, 시각적 성희롱은 보건의료융합대학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성폭력 경험에 성폭력의 유형을 보면 언어적 성희롱이 모든 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성폭력 유형은 시각적 성희롱이며 세 번째로는 신체적 성희롱 또는 성추행으로 5학년 이상을 제외하고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성폭력 유형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언어적 성희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신체적 성희롱 또는 성추행, 대가 및 보복성 성희롱, 강제추행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3-7).

다. 성폭력의 상대

성폭력의 상대로는 교수가 40.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직원, 친구 및 동료,

초면 또는 모르는 사람, 선후배, 교제 중인 이성 친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8).

<표 3-8> 성폭력의 상대

구분	N	%		
		2019	2018	2017
교수(외래교수 포함)	161	40.1	67.3	71.2
직원 (행정부서, 학과조교, 용역포함)	85	21.2	11.0	10.7
친구 및 동료	73	18.2	10.4	8.8
초면 또는 모르는 사람	44	11.0	0.6	5.2
선후배	30	7.5	7.5	3.1
교제 중인 이성 친구	8	2.0	3.2	0.9
합계	401	100	100	100

<표 3-9>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성폭력 경험 시 상대 ()백분율

구분	성폭력 경험 시 상대						합계	
	교수	직원	친구 및 동료	선후배	교제 중인 이성 친구	초면 또는 모르는 사람		
단과대학	공과대학	35(37.6)	20(21.5)	18(19.4)	8(8.6)	1(1.1)	11(11.8)	93
	문리과대학	27(34.6)	15(19.2)	20(25.6)	6(7.7)	0(0.0)	10(12.8)	78
	보건의료융합대학	16(36.4)	12(27.3)	4(9.1)	6(13.6)	2(4.5)	4(9.1)	44
	사회과학대학	31(41.9)	14(18.9)	15(20.3)	6(8.1)	2(2.7)	6(8.1)	74
	소프트웨어대학	12(50.0)	6(25.0)	1(4.2)	2(8.3)	1(4.2)	2(8.3)	24
	약학대학	5(38.5)	4(30.8)	1(7.7)	1(7.7)	0(0.0)	2(15.4)	13
	의과대학	18(50.0)	5(13.9)	8(22.2)	0(0.0)	1(2.8)	4(11.1)	36
	BNIT융합대학	17(43.6)	9(23.1)	6(15.4)	1(2.6)	1(2.6)	5(12.8)	39
학년	1학년	31(47.0)	9(13.6)	12(18.2)	4(6.1)	2(3.0)	8(12.1)	66
	2학년	28(35.0)	17(21.3)	13(16.3)	10(12.5)	1(1.3)	11(13.8)	80
	3학년	36(34.6)	24(23.1)	23(22.1)	8(7.7)	1(1.0)	12(11.5)	104
	4학년	62(44.0)	31(22.0)	25(17.7)	7(5.0)	4(2.8)	12(8.5)	141
	5학년 이상	4(40.0)	4(40.0)	0(0.0)	1(10.0)	0(0.0)	1(10.0)	10
성별	남자	103(46.6)	58(26.2)	31(14.0)	11(5.0)	2(0.9)	16(7.2)	221
	여자	58(32.2)	27(15.0)	42(23.3)	19(10.6)	6(3.3)	28(15.6)	180

단과대학에 따른 성폭력 경험 시 성폭력의 상대로는 모든 단과대학에서 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로 직원에는 문리과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단과대학이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 및 동료에는 문리과대학이, 선후배는 보건의료융합대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성폭력 경험 상대에 대한 문항은 교수는 다른 학년에 비해 1학년이, 직원은 5학년 이상이, 친구 및 동료는 3학년이, 선후배는 2학년이, 교제 중인 이성 친구

는 1학년이, 초면 또는 모르는 사람은 2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수, 직원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고, 친구 및 동료, 선후배, 교제 중인 이성 친구, 초면 또는 모르는 사람의 유형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3-9).

라. 피해 상황/장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 상황 및 장소를 살펴본 결과 강의실(39.4%)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실험실(19.1%), 도서관(13.0%), 기타(9.6%), 생활관(4.0%), 집(3.7%), 술자리 및 행사 뒤풀이(3.5%), M.T(3.2%), 버스나 지하철(2.1%), 교수연구실(1.9%), 동아리방(0.5%) 순으로 나타났다(표 3-10).

<표 3-10> 성폭력 피해 상황 및 장소

구분	N	%		
		2019	2018	2017
강의실	148	39.4	65.3	69.9
실험실	72	19.1	10.1	10.3
도서관	49	13.0	8.7	7.7
기타	36	9.6	6.6	5.0
생활관	15	4.0	2.8	0.8
집(자취방, 모텔 등 포함)	14	3.7	0.5	-
술자리 및 행사 뒤풀이	13	3.5	1.8	2.0
M.T	12	3.2	1.1	1.5
버스나 지하철	8	2.1	1.8	1.5
교수연구실	7	1.9	1.0	0.8
동아리방	2	0.5	-	-
영화관	-	-	-	2.8
합계	376	100	100	100

단과대학에 따른 성폭력 경험의 피해 상황 및 장소는 강의실이 전체 단과대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약학대학(53.8%), 소프트웨어대학(47.8%)에서 높게 나타났다. 실험실에서는 보건의료융합대학(26.3%)과 BNIT융합대학(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본 결과 성폭력 피해 유형 장소로 역시 강의실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5학년 이상이 44.4%가 강의실에서 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1학년(42.9%), 4학년(41.9%)이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성폭력 피해 유형의 장소는 실험실로 3학년(23.4%)으로 가장 높았고, 5학년 이상(22.2%), 4학년(20.6%), 2학년(17.6%), 1학년(11.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강의실, 실

험실, 생활관, M.T가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술자리, 집, 버스 지하철, 기타의 장소에서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3-11).

<표 3-11>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성폭력 경험 시 피해 상황/장소 ()백분율

구분	성폭력 경험 시 피해 상황 장소											합계
	강의실	실험실	도서관	생활관	M.T	교수연구실	동아리방	술자리	집	버스 지하철	기타	
공과대학	37(41.6)	18(20.2)	13(14.6)	1(1.1)	1(1.1)	1(1.1)	1(1.1)	0(0.0)	4(4.5)	2(2.2)	11(12.4)	89
문리과대학	24(32.9)	15(20.5)	9(12.3)	4(5.5)	1(1.4)	0(0.0)	1(1.4)	4(5.5)	4(5.5)	2(2.7)	9(12.3)	73
보건의료융합대	13(34.2)	10(26.3)	4(10.5)	3(7.9)	1(2.6)	1(2.6)	0(0.0)	1(2.6)	2(5.3)	1(2.6)	2(5.3)	38
사회과학대학	28(40.6)	8(11.6)	13(18.8)	4(5.8)	2(2.9)	1(1.4)	0(0.0)	1(1.4)	4(5.8)	1(1.4)	7(10.1)	69
소프트웨어대학	11(47.8)	5(21.7)	1(4.3)	1(4.3)	2(8.7)	0(0.0)	0(0.0)	0(0.0)	0(0.0)	0(0.0)	3(13.0)	23
약학대학	7(53.8)	1(7.7)	1(7.7)	0(0.0)	2(15.4)	0(0.0)	0(0.0)	1(7.7)	0(0.0)	0(0.0)	1(7.7)	13
의과대학	15(45.5)	5(15.2)	4(12.1)	0(0.0)	0(0.0)	3(9.1)	0(0.0)	3(9.1)	0(0.0)	0(0.0)	3(9.1)	33
BNI융합대학	13(34.2)	10(26.3)	4(10.5)	2(5.3)	3(7.9)	1(2.6)	0(0.0)	3(7.9)	0(0.0)	2(5.3)	0(0.0)	38
1학년	27(42.9)	7(11.1)	5(7.9)	4(6.3)	2(3.2)	1(1.6)	0(0.0)	4(6.3)	4(6.3)	3(4.8)	6(9.5)	63
2학년	28(37.8)	13(17.6)	7(9.5)	1(1.4)	3(4.1)	1(1.4)	2(2.7)	1(1.4)	5(6.8)	4(5.4)	9(12.2)	74
3학년	32(34.0)	22(23.4)	14(14.9)	4(4.3)	3(3.2)	1(1.1)	0(0.0)	4(4.3)	1(1.1)	1(1.1)	12(12.8)	94
4학년	57(41.9)	28(20.6)	22(16.2)	6(4.4)	3(2.2)	4(2.9)	0(0.0)	4(2.9)	4(2.9)	0(0.0)	8(5.9)	136
5학년 이상	4(44.4)	2(22.2)	1(11.1)	0(0.0)	1(11.1)	0(0.0)	0(0.0)	0(0.0)	0(0.0)	0(0.0)	1(11.1)	9
남자	100(46.3)	51(23.6)	28(13.0)	10(4.6)	7(3.2)	4(1.9)	2(0.9)	1(0.5)	2(0.9)	1(0.5)	10(4.6)	216
여자	48(30.0)	21(13.1)	21(13.1)	5(3.1)	5(3.1)	3(1.9)	0(0.0)	12(7.5)	12(7.5)	7(4.4)	26(16.3)	160

마. 경험한 성폭력의 지속 기간

피해의 지속성을 살펴본 결과 1회가 160명(49.4%)으로 가장 많았고, 2회~3회가 94명(29.0%), 4회 이상의 유수한 피해는 70명(21.6%)으로 나타났다(표 3-12).

<표 3-12> 경험한 성폭력의 지속 기간

구분	N	%		
		2019	2018	2017
1회	160	49.4	72.7	73.9
2회~3회	94	29.0	15.1	16.3
4회 이상의 유수한 피해	70	21.6	12.2	9.8
합계	324	100	100	100

바. 피해 상황에서의 대처방법

성폭력 피해 학생들이 피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함이 155명(47.8%)으로 가장 많았고, 비언어적 거부반응 수준의 소극적 대처가 102명(31.5%)이었으며 언어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수준 이상의 적극적 대처 67명(20.7%)으로 조사되었다(표 3-13).

<표 3-13> 피해 상황에서의 대처방법

구분	N	%		
		2019	2018	2017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함	155	47.8	72.4	46.9
비언어적 거부반응 수준의 소극적 대처	102	31.5	18.1	32.7
언어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수준 이상의 적극적 대처	67	20.7	9.5	20.4
합계	324	100	100	100

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

성폭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응답한 149명(39.7%)을 제외하고, 피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성폭력 상황 여부에 대한 확신 부족이 102명(2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폭력 상황이라 확신하였지만 어떠한 조치를 하기 힘든 상황이어서가 88명(23.4%), 확신하였지만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23명(6.1%), 성폭력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서 9명(2.4%), 성폭력 상대가 신분적 우위로 차후에 불이익이 걱정되어서 5명(1.3%) 순으로 대처하였다고 응답하였다(표 3-14).

<표 3-14>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

구분	N	%		
		2019	2018	2017
성폭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함	149	39.7	68.4	5.8
확신이 부족해서	102	27.1	16.8	38.3
확신하였지만 어떠한 조치를 하기 힘든 상황	88	23.4	11.0	30.0
확신하였지만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23	6.1	2.2	18.3
성폭력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서	9	2.4	1.1	1.4
상대가 신분적 우위로 차후에 불이익이 걱정되어서	5	1.3	0.5	6.2
합계	376	100	100	100

2.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

가. 성폭력 발생 시 상황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

성폭력 발생 시 상황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알고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가 3,468명(49.2%)으로 가장 많았고, 알고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대처하기 어려울 것 같다가 2,640명(37.5%), 모른다가 934명(13.3%)으로 조사되었다(표 3-15).

<표 3-15> 성폭력 발생 시 상황 대처방법

구분	N	%		
		2019	2018	2017
알고 있으며 실제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3,468	49.2	41.1	37.8
알고 있으나 실제상황에서 대처하기 어려울 것 같다	2,640	37.5	42.7	45.5
모른다	934	13.3	16.3	16.7
합계	7,042	100	100	100

나. 성폭력 경험 시 사후 대처방법

성폭력 피해를 입을 경우 사후 대처방법을 조사한 결과, 교외 관련 기관에 신고(38.0%)가 가장 높았고, 부모님과 의논(20.9%),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17.0%), 친구와 의논(12.1%), 아무 대처도 하지 않을 것(10.0%), 평생 지도교수와 상담(2.0%) 순으로 나타났다(표 3-16).

<표 3-16> 성폭력 경험 시 사후 대처방법

구분	N	%		
		2019	2018	2017
교외 관련 기관에 신고	2,678	38.0	42.0	41.1
부모님과 의논	1,468	20.9	22.1	20.4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	1,199	17.0	14.8	16.3
친구와 의논	855	12.1	9.7	10.3
아무 대처도 하지 않을 것	699	10.0	9.8	10.5
평생 지도 교수와 상담	143	2.0	1.6	1.4
합계	7,042	100	100	100

3. 성폭력 예방 교육 현황

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경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경험을 조사한 결과, 예방 교육 이수 경험이 1회 2,452명(34.8%), 이수 경험이 없다. 1,886명(26.8%), 2회 1,487명(21.1%), 3회 이상 1,217명(17.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3-17).

나. 가장 도움이 되는 성폭력 예방 교육방법

가장 도움이 되는 성폭력 예방 교육방법을 조사한 결과, 외부전문가의 강의 2,398명(34.1%), 시청각(동영상) 및 토론 교육 1,974명(28.0%), 성폭력 예방 캠페인 1,635명(23.2%), 인권센터 직원 강의 1,035(14.7%) 순으로 나타났다(표 3-18).

<표 3-17>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경험

구분	N	%		
		2019	2018	2017
1회	2,452	34.8	33.1	33.7
없다	1,886	26.8	35.9	34.8
2회	1,487	21.1	19.0	20.8
3회 이상	1,217	17.3	12.0	10.7
합계	7,042	100	100	100

<표 3-18> 가장 도움 되는 예방 교육방법

구분	N	%	
		2019	2018
외부전문가의 강의	2,398	34.1	37.8
시청각(동영상) 및 토론	1,974	28.0	27.8
성폭력 예방 캠페인	1,635	23.2	19.0
인권센터 직원 강의	1,035	14.7	15.5
합계	7,042	100	100

다. 매년 실시하는 예방 교육 도움 유무

매년 실시하는 예방 교육 도움 유무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 3,014명(42.8%), 대체로 그렇다 1,449명(20.6%), 매우 그렇다 1,326명(18.8%), 대체로 그렇지 않다 706명(10.0%), 전혀 그렇지 않다 547명(7.8%) 순으로 나타났다(표 3-19).

<표 3-19> 성폭력 예방 교육의 성희롱 예방 도움 유무

구분	N	%
보통이다	3,014	42.8
대체로 그렇다	1,449	20.6
매우 그렇다	1,326	18.8
대체로 그렇지 않다	706	10.0
전혀 그렇지 않다	547	7.8
합계	7,042	100

4. 본 설문 응답의 충실성

본 설문 응답에 대한 충실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 4,475명(63.6%), 대체로 그렇다 1,573명(22.3%)로 긍정적인 응답이 85.9%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2.7%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 123명(1.7%), 전혀 그렇지 않다 70명(1.0%) 순으로 나타났다(표 3-20).

<표 3-20> 본 설문 응답의 충실성

구분	N	%	
		2019	2018
매우 그렇다	4,475	63.6	54.4
대체로 그렇다	1,573	22.3	26.3
보통이다	801	11.4	15.5
대체로 그렇지 않다	123	1.7	2.4
전혀 그렇지 않다	70	1.0	1.4
합계	7,042	100	100

<표 3-21>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른 본 설문 응답의 충실성 ()백분율

구분	본 설문 응답의 충실성					합계	
	매우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단 과 대 학	공과대학	935(64.7)	313(21.6)	154(10.7)	31(2.1)	13(0.9)	1,446
	문리과대학	678(59.6)	275(24.2)	147(12.9)	22(1.9)	16(1.4)	1,138
	보건의료융합대학	581(66.1)	185(21.0)	88(10.0)	18(2.0)	7(0.8)	879
	사회과학대학	983(63.3)	360(23.2)	169(10.9)	23(1.5)	17(1.1)	1,552
	소프트웨어대학	150(55.8)	65(24.2)	43(16.0)	8(3.0)	3(1.1)	269
	약학대학	66(59.5)	26(23.4)	14(12.6)	3(2.7)	2(1.8)	111
	의과대학	455(63.6)	159(22.2)	84(11.7)	10(1.4)	7(1.0)	715
	BNIT융합대학	627(67.3)	190(20.4)	102(10.9)	8(0.9)	5(0.5)	932
학 년	1학년	1,233(80.4)	227(14.8)	57(3.7)	11(0.7)	5(0.3)	1,533
	2학년	1,093(65.1)	368(21.9)	177(10.5)	27(1.6)	13(0.8)	1,678
	3학년	1,123(61.4)	430(23.5)	224(12.3)	34(1.9)	17(0.9)	1,828
	4학년	988(51.4)	527(27.4)	328(17.0)	48(2.5)	33(1.7)	1,924
	5학년 이상	38(48.1)	21(26.6)	15(19.0)	3(3.8)	2(2.5)	79
성 별	남자	1,963(61.3)	701(21.9)	416(13.0)	77(2.4)	47(1.5)	3,204
	여자	2,512(65.5)	872(22.7)	385(10.0)	46(1.2)	23(0.6)	3,838

단과대학에 따른 본 설문 응답의 충실성은 매우 그렇다가 모든 단과대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BNIT융합대학(67.3%), 보건의료융합대학(66.1%)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본 결과 매우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 1학년(80.4%), 2학년(65.1%), 3학년(61.4%), 4학년(51.4%), 5학년 이상(48.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매우 그렇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응답이 여학생(65.5%)이 높게 응답하였다(표 3-21).

IV. 요약 및 결론

본 조사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 실태

2019학년도 재학생 전체 응답자(N=7,042) 중 5.7%(n=404)가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8학년도 조사 결과(응답자 N=7,531의 8.0%, 602명)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성폭력 경험을 살펴본 결과, 전체 성폭력 경험 응답자(N=404) 중 남학생은 60.6%(n=245), 여학생은 39.3%(n=159)로 남학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예방 및 대처에 대한 교육과 사회 전반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성폭력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다는 의식이 함양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미한 차이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폭력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유형으로는 언어적 성희롱 55.9%, 시각적 성희롱 18.7%, 신체적 성희롱 또는 성추행(1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언어적 성희롱은 지난해보다 감소하였으나 이외의 유형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2019년 조사에서도 2018년도 조사 결과에서도 언어적 성희롱이 가장 빈번히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단과 대학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약학대학이 응답자의 75.0%, 소프트웨어대학이 64.0%, BNIT 융합대학이 61.7%, 의과대학이 58.5%, 공과대학이 58.3%가 언어적 성희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시각적 성희롱의 경우 보건의료융합대학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성폭력 유형에서는 언어적 성희롱은 5학년 이상이 60.0%, 2학년이 58.7%, 4학년이 56.1%, 1학년이 55.1%, 3학년이 53.3% 순으로 나타났다. 시각적 성희롱에 대한 응답률은 5학년 이상이 30.0%로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성희롱 또는 성추행에서는 1학년이 17.4%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성폭력의 유형의 경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신체적 성희롱 또는 성추행, 대가 및 보복성 성희롱, 강제추행, 두 가지 유형 이상에 대한 응답률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요

즘 SNS상에서의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행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등 대학문화 속에 언어적 성희롱이 광범위하게 뿌리내려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성폭력 경험의 상대에 대한 질문에서 교수가 40.1%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지난해 67.3%보다 매우 감소하였으나, 직원이 21.2%로 지난해 11.0%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폭력 상대를 묻는 문항에 '교수'와 '외래교수', '학과 조교'와 '연구조교', '행정부서 직원', '용역직원' 등 세부 구분 없이 '교수'와 '직원'으로만 문항이 제시되어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성폭력 상대 실태조사에 있어 교직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 직원(21.2%)으로 지난해(11.0%), 친구 및 동료(18.2%)로 지난해(10.4%), 초면 또는 모르는 사람(11.0%)의 경우 지난해(0.6%)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학년도에는 단과대학에 따른 성폭력의 상대는 모든 단과대학에서 교수가 높게 나타났고, 직원은 약학대학이 30.8%, 친구 및 동료는 문리과대학이 25.6%, 선후배는 보건의료융합대학이 1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상황 및 장소를 살펴보면, 교내 강의실(39.4%), 실험실(19.1%), 도서관(13.0%), 기타(9.6%), 생활관(4.0%), 집(3.7%), 술자리·행사 뒤풀이(3.5%), M.T(3.2%), 버스나 지하철(2.1%), 교수연구실(1.9%) 순으로 나타났는데, 강의실의 경우 지난해(65.3%)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실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에 따른 성폭력 경험의 피해 상황 및 장소는 모든 단과대에서 강의실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의실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강의실에서는 특히 5학년 이상(44.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강의실(46.3%), 실험실(23.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술자리(7.5%), 집(7.5%), 버스나 지하철(4.4%), 기타(16.3%)에서 높게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교내 공간, 특히 강의실에서의 피해 상황이 매우 빈번히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피해의 지속 기간을 살펴보면 1회가 응답자(n=324)의 49.4%(n=16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2회 이상(29.0%)과 4회 이상(21.6%)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폭력 상황에서의 대처

2019학년도 재학생의 전체 응답자(N=7,042)를 대상으로 성폭력 상황에서의 대처를 조사하였다.

성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의 피해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을 살펴보면, 언어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수준 이상의 적극적 대처(20.7%)는 지난해(9.5%), 비언어적 거부반응 수준의 소극적 대처(31.5%) 역시 지난해(18.1%)보다 매우 증가했지만,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47.8%)는 응답은 지난해(72.4%)보다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성폭력에 대한 확신 부족(27.1%)이 가장 높았고 지난해(16.8%)보다 소폭으로 증가하였고, 조치를 하기 힘든 상황(23.4%)과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움(6.1%), 대처방법을 몰라서(2.4%), 불이익에 대한 걱정(1.3%) 등의 이유 또한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제공하는 예방 교육 및 캠페인활동(성문화 축제, 캠페인, 리플렛 홍보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이 지속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 자체를 의심받거나,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등의 2차 피해와 관련된 피해자 중심의 이해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재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대처능력을 함양시켜야 할 것이다.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및 사후 대처법을 조사한 결과, 알고 있으며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49.2%)는 응답은 지난해(41.1%)보다 증가한 것으로, 반면 알고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대처하기 어려울 것 같다(37.5%)는 응답이 지난해(42.7%), 모른다는 응답(13.3%)은 지난해(16.3%)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내 성폭력 대처방법과 관련된 교육이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폭력 상황을 경험한다면 가장 먼저 취할 사후 대처방법을 조사한 결과, 교외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38.0%(n=2,6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지난해(42.0%) 대비 감소했으며 교내 인권센터 신고는 17.0%(n=1,199)로 지난해(14.8%)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성폭력 범죄의 가해 행태가 흉포화되고, 사건이 더욱 빈번히 발

생하는 등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교내 인권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된다고 할 수 있다.

3. 성폭력 예방 교육 현황

2019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의 전체 응답자(N=7,042)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현황을 조사하였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N=7,042)의 34.8%로 나타났고, 가장 도움이 되는 성폭력 예방 교육방법은 외부전문가 강의(34.1%), 시청각(동영상) 및 토론(28.0%), 성폭력 예방 캠페인(23.2%), 인권센터 직원 강의(14.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본교 인권센터에서는 성폭력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매년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하고 있고, 교수, 직원 등 본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하고 있다. 성폭력 예방 외부 초빙 강사의 경우 전문 강사뿐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찰, 법조인 등 사례를 통한 보다 실질적인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초에는 ‘인제대학교 성폭력 예방과 대응 지침서’를 제작 배포하였고, 교내 구성원의 성인지 능력 함양과 성적으로 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양성평등성문화축제(축제 기간에), 성폭력 예방 캠페인(매 학기 각 1회)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 학기 남녀화장실을 중심으로 중부경찰서, 총학생회와 연합하여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재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캠퍼스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설문 응답에 대한 충실성에 대하여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63.6%였고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2.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본 설문에 응한 신입생 및 재학생들은 충실하게 설문에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

2019학년도 신입생 흡연 · 음주 실태 조사 연구

강임정* · 김상옥** · 황용주***

목 차

I. 조사 연구 목적	II. 조사 방법 및 절차
III. 조사 결과	IV. 요약 및 결론

I. 조사 연구 목적

청소년기 환경에서 흡연·음주는 하나의 일탈 행위로 여겨지지만, 대학교에서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하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시작한 흡연은 평생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대학교 신입생 때부터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이성희, 김영찬, 백민경, 2017). 따라서 본교에서는 신입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대학 생활을 위하여 매년 금연·금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흡연·음주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흡연과 음주 현황 및 추세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들의 흡연·음주 정도와 실태를 파악하고, 흡연과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와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금연·금주 프로그램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교 숙원사업인 그린 캠퍼스 완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인제대학교 학생상담진로센터 전임상담원

** 인제대학교 학생상담진로센터 전임상담연구원

*** 인제대학교 학생취업처 취업진로과 차장

Ⅱ. 조사 방법 및 절차

1. 조사 대상

<표 4-1> 응답자 분포

단과대학	학과	N	%
사회과학 대학	소비자가족학과	21	1.4
	공공인재학부	51	3.3
	보건행정학과	28	1.8
	사회복지학과	34	2.2
	상담심리치료학과	33	2.2
	신문방송학과	24	1.6
	유아교육과	21	1.4
	경영학부	56	3.7
	국제경상학부	40	2.6
	경영통상학과(야간)	-	-
	특수교육과	18	1.2
통계학과	19	1.2	
문리과대학	스포츠헬스케어학과	24	1.6
	인문문화융합학부	58	3.7
	국제어문학부	55	3.6
	의생명화학과	17	1.1
	음악학과	20	1.3
	(응용수학과)	1	.1
BNIT융합대학	나노융합공학부	51	3.3
	바이오식품과학부	35	2.3
	제약공학과	69	4.5
	바이오테크놀로지학부	49	3.2
	헬스케어IT학과	37	2.4
공과대학	건축학과	29	1.9
	실내건축학과	30	2.0
	멀티미디어학부	46	3.0
	디자인엔지니어링학과	22	1.4
	산업경영공학과	25	1.6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부	131	8.5
	토목도시공학부	23	1.5
	미래에너지공학과	21	1.4
	환경공학과	31	2.0
보건의료융합대학	물리치료학과	30	2.0
	보건안전공학과	33	2.2
	의용공학부	54	3.5
	임상병리학과	35	2.3
	작업치료학과	27	1.8
의과대학	간호학과	82	5.3
	의예과	85	5.5
소프트웨어대학	컴퓨터공학부	45	2.9
	컴퓨터시뮬레이션학과	23	1.5
합계		1,533	100

<표 4-2> 응답자의 성별 분포

구분	N	%
남	681	44.4
여	852	55.6
합계	1,533	100

2. 조사 절차

본 설문조사는 본교 On-Line 시스템(SAIL System)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로 실시되었다. 통계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인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에 앞서 설문조사의 목적과 On-Line 설문조사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각 학과(부)의 협조를 구하였다. 본 조사는 2019년 11월 28일(목) ~ 12월 15일(일), 2020년 1월 3일(금) ~ 1월 19일(일)까지 실시하였다.

3. 조사 내용

조사 대상	주요내용		문항 수
신입생	흡연관련	흡연여부, 흡연시기, 흡연동기, 흡연 기간, 금연경험, 교내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및 참여의사	20문항
	음주관련	음주여부, 음주시기, 음주동기, 일주일의 음주 횟수, 금주경험, 음주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피해	

4. 자료 분석

기술자료 분석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빈도와 백분율 등을 구하였으며, 교차분석을 통해 단과대학, 성별 등에 따른 결과 값의 분포를 파악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한 자료처리는 SPSS 26.0K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조사 결과

1. 흡연

가. 흡연 여부

2019학년도 신입생의 흡연상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N=1,533)의 14.4%(n=220)가 흡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3). 성별에 따른 흡연자(n=220) 중 남학생은 70.0%(n=154), 여학생은 30.0%(n=66)이었다(표 4-4).

<표 4-3> 흡연 여부

구분	N	%		
		2019	2018	2017
예	220	14.4	12.9	13.3
아니요	1,313	85.6	87.1	86.7
합계	1,533	100	100	100

<표 4-4> 성별에 따른 흡연 여부

()백분율

구분		흡연 여부		합계
		예	아니요	
성 별	남	154(22.6)	527(77.4)	681
	여	66(7.7)	786(92.3)	852

나. 흡연 동기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흡연 동기에 대한 응답으로는 응답자(N=304) 중 호기심 46.3%(n=141)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스트레스 31.0%(n=94), 주위 사람의 권유 13.2%(n=40), 멋있어 보여서 5.5%(n=17), 기타 4.0%(n=12)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5). 성별에 따른 흡연 동기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호기심, 멋있어서, 주위 권유, 스트레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4-6).

<표 4-5> 흡연 동기

구분	N	%		
		2019	2018	2017
호기심	141	46.3	49.5	48.0
스트레스	94	31.0	22.5	30.3
주위 사람의 권유	40	13.2	19.1	17.2
멋있어 보여서	17	5.5	3.8	1.2
기타	12	4.0	5.1	3.3
합계	304	100	100	100

<표 4-6> 성별에 따른 흡연 동기

()백분율

구분		흡연 동기					합계
		호기심	멋있어서	주위 권유	스트레스	기타	
성 별	남	103(50.2)	11(5.4)	30(14.6)	53(25.9)	8(3.9)	205
	여	38(38.4)	6(6.1)	10(10.1)	41(41.4)	4(4.0)	99

다. 흡연 시기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시작 시기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N=308) 중 31.5%(n=97)가 대학교에 흡연을 시작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29.5%(n=91), 중학교 19.8%(n=61), 초등학교 19.2%(n=59) 순으로 나타났다(표 4-7).

<표 4-7> 흡연 시기

구분	N	%		
		2019	2018	2017
대학교	97	31.5	27.0	26.9
고등학교	91	29.5	33.5	27.3
중학교	61	19.8	39.5	45.8
초등학교	59	19.2	-	-
합계	308	100	100	100

성별에 따른 흡연 시기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고등학교 때 흡연을 시작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대학교 때 흡연을 시작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8).

<표 4-8> 성별에 따른 흡연 시작 시기 ()백분율

구분		흡연 시기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 별	남	42(20.2)	45(21.6)	71(34.1)	50(24.0)	208
	여	17(17.0)	16(16.0)	20(20.0)	47(47.0)	100

흡연 시작 시기에 따른 흡연 동기를 조사한 결과, 대학교 때는 스트레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에는 호기심이 가장 높은 흡연 동기로 나타났다(표 4-9).

<표 4-9> 흡연 시작 시기에 따른 흡연 동기 ()백분율

	흡연 동기					합계
	호기심	멋있어서	주위 권유	스트레스	기타	
초등학교	36(72.0)	10(20.0)	3(6.0)	1(2.0)	0(0.0)	50
중학교	31(53.4)	4(7.0)	17(29.3)	6(10.3)	0(0.0)	58
고등학교	36(40.4)	2(2.2)	14(15.7)	34(38.2)	3(3.3)	89
대학교	30(31.2)	0(0.0)	5(5.3)	53(55.2)	8(8.3)	96

라. 흡연 기간

전체 신입생 응답자(N=305) 중 현재 흡연을 하는 학생의 흡연 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 이하가 56.7%(n=173)로 가장 많았고, 2년~3년 19.0%(n=58), 6년 이상 12.5%(n=38), 4년~5년 11.8%(n=3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10).

<표 4-10> 현재 흡연자의 흡연 기간

구분	N	%		
		2019	2018	2017
1년 이하	173	56.7	51.4	45.0
2년~3년	58	19.0	26.7	23.8
6년 이상	38	12.5	8.7	15.4
4년~5년	36	11.8	13.2	15.8
합계	305	100	100	100

성별에 따른 흡연 기간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년 이하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11).

<표 4-11> 성별에 따른 흡연 기간 ()백분율

구분		흡연 기간				합계
		1년 이하	2년~3년	4년~5년	6년 이상	
성 별	남	96(46.8)	46(22.4)	31(15.2)	32(15.6)	205
	여	77(77.0)	12(12.0)	5(5.0)	6(6.0)	100

마. 교내 금연에 대한 생각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내에서의 금연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비흡연자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금연이 당연하다(69.5%)가 가장 높았고, 그저 그렇다(20.4%), 개인의 성향에 대해 규제를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10.1%) 순으로 나타났다(표 4-12).

<표 4-12> 교내에서의 금연에 대한 생각

구분	N	%		
		2019	2018	2017
비흡연자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하다	1,066	69.5	67.2	69.8
그저 그렇다	312	20.4	22.9	22.1
개개인의 성향에 대해 규제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155	10.1	9.9	8.1
합계	1,533	100	100	100

성별에 따른 교내 금연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여학생(75.2%)이 남학생(62.4%)보다 당연하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그저 그렇다, 개인의 성향이므로 규제가 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4-13).

<표 4-13> 성별에 따른 교내 금연에 대한 생각 ()백분율

구분		교내 금연에 대한 생각			전체
		쾌적한 환경위해 당연	그저 그렇다	개인의 성향, 규제부당	
성 별	남	425(62.4)	170(25.0)	86(12.6)	681
	여	641(75.2)	142(16.7)	69(8.1)	852

흡연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기간에 따른 교내 금연을 조사한 결과, 교내 금연이 당연하다는 응답률은 1년 이하(39.3%)의 흡연자가 가장 높았고, 부당하다는 응답률은 3~6년(55.6%)의 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14).

<표 4-14> 흡연 기간에 따른 교내 금연에 대한 생각 ()백분율

구분	N	교내 금연에 대한 의견					
		2019			2018		
		당연하다	그저 그렇다	부당하다	당연하다	그저 그렇다	부당하다
1년 이하	173	68(39.3)	67(38.7)	38(22.0)	53(35.8)	65(43.9)	30(20.3)
1~3년	58	15(25.9)	27(46.6)	16(27.6)	24(31.2)	30(39.0)	23(29.8)
3~6년	36	5(13.9)	11(30.6)	20(55.6)	10(26.3)	11(28.9)	17(44.7)
6년 이상	38	9(23.7)	12(31.6)	17(44.7)	11(44.0)	4(16.0)	10(40.0)

신입생을 대상으로 현재 흡연 여부에 따른 교내에서의 금연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현재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들뿐 아니라 흡연을 하는 학생들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내 금연이 당연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당연하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표 4-15).

<표 4-15> 현재 흡연 여부에 따른 교내 금연에 대한 생각 ()백분율

구분		교내 금연에 대한 생각			계
		당연하다	그저 그렇다	부당하다	
현재 흡연 여부	예	78(36.8)	71(33.5)	63(29.7)	212
	아니요	1,029(71.7)	307(21.4)	100(7.0)	1,436

바. 교내 흡연 시 학생에 대한 규제

교내 흡연 시 학생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체 응답자(N=1,533) 중 징계(40.2%)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장학금 혜택 제한(26.0%), 기타(21.7%), 학교 비교과 프로그램(해외봉사단, 해외연수 등) 참여 제한(12.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4-16).

<표 4-16> 교내 흡연 시 학생에 대한 규제

구분	N	%	
		2019	2018
징계	616	40.2	32.4
장학금 혜택 제한	399	26.0	25.5
기타	332	21.7	26.6
학교 비교과 프로그램(해외봉사단, 해외연수 등) 참여 제한	186	12.1	15.5
합계	1,533	100	100

<표 4-17> 성별에 따른 교내 흡연 시 규제에 대한 생각 ()백분율

구분		교내 흡연 시 학생에 대한 규제				전체
		장학금제한	비교과참여제한	징계	기타	
성 별	남	188(27.6)	76(11.2)	246(36.1)	171(25.1)	681
	여	211(24.8)	110(12.9)	370(43.4)	161(18.9)	

성별에 따른 교내 흡연 시 규제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장학금 제한, 기타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비교과 참여 제한, 징계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표 4-17).

사. 금연 도전 횟수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금연 도전 횟수에 대한 응답으로는 1회(6.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2회~3회(5.5%), 4회~6회(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18).

아. 금연하게 된 계기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금연 계기에 대한 응답으로는 건강(55.6%)이 가장 높았고, 기타(16.0%), 지인의 권유(13.4%), 사회적 분위기(11.7%), 학교의 금연캠페인(3.3%) 순으로 나타났다(표 4-19).

<표 4-18> 금연을 도전한 횟수

구분	N	%	
		2019	2018
1회	95	39.0	38.9
2회~3회	84	34.6	41.2
4회~6회	64	26.4	19.9
합계	243	100	100

<표 4-19> 금연을 하게 된 계기

구분	N	%	
		2019	2018
건강	133	55.6	57.1
기타	38	16.0	18.0
지인의 권유	32	13.4	11.8
사회적 분위기	28	11.7	9.9
학교의 금연캠페인	8	3.3	3.2
합계	239	100	100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금연 도전 횟수를 살펴본 결과, 금연 경험 없음을 제외하고 남학생과 여학생은 모두 금연 도전 횟수 1회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20).

<표 4-20> 성별에 따른 금연 도전 횟수 ()백분율

구분		금연 도전 횟수			전체
		1회	2~3회	4~6회	
성 별	남	60(36.3)	58(35.2)	47(28.5)	165
	여	35(44.9)	26(33.3)	17(21.8)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금연 계기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건강, 지인의 권유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사회 분위기, 금연캠페인, 기타에 대한 응답률 더 높게 나타났다(표 4-21)

<표 4-21> 성별에 따른 금연 계기 ()백분율

구분		금연하게 된 계기					합계
		건강	사회 분위기	금연캠페인	지인 권유	기타	
성 별	남	92(56.1)	18(11.0)	7(4.3)	23(14.0)	24(14.6)	164
	여	41(54.7)	10(13.3)	1(1.3)	9(12.0)	14(18.7)	

자. 금연 후 재흡연을 하게 된 동기

금연 후 다시 흡연하게 된 동기에 대한 응답으로는 금연 경험 없음 및 유지를 제외하고, 스트레스(62.0%)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인간관계(20.0%), 기타(9.0%), 학업(7.1%)의 가정환경(1.9%) 순으로 나타났다(표 4-22).

<표 4-22> 금연 후 재흡연을 하게 된 동기

구분	N	%		
		2019	2018	2017
스트레스	131	62.0	54.3	57.0
인간관계	42	20.0	27.6	24.0
기타	19	9.0	11.1	11.0
학업	15	7.1	5.5	5.7
가정환경	4	1.9	1.5	2.3
합계	211	100	100	100

성별에 따른 다시 흡연하게 된 동기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인간관계, 스트레스, 가정환경에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학업, 기

타에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4-23).

<표 4-23> 성별에 따른 다시 흡연하게 된 동기 ()백분율

구분		금연 후 다시 흡연하게 된 동기					합계
		인간관계	스트레스	학업	가정환경	기타	
성 별	남	38(28.1)	74(54.8)	7(5.2)	3(2.2)	13(9.6)	135
	여	17(26.6)	34(53.1)	4(6.2)	0(0.0)	9(14.1)	64

차. 학교의 금연 프로그램 참여 의사 유무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내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사를 조사한 결과 관심이 없다(53.9%)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16.5%),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15.5%), 가능하다면 참여하고 싶다(14.1%) 순으로 나타났다(표 4-24).

<표 4-24> 교내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사

구분	N	%		
		2019	2018	2017
관심이 없다	827	53.9	51.3	54.9
적극 참여하고 싶다	253	16.5	16.3	12.6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237	15.5	15.5	12.4
가능하다면 참여하고 싶다	216	14.1	16.9	20.1
합계	1,533	100	100	100

<표 4-25> 성별, 흡연 기간에 따른 금연 프로그램 참여 의사 ()백분율

구분		금연 프로그램 참여 의사				합계
		적극 참여	가능하면 참여	도움 안 될 것 같음	관심 없다	
흡 연 기 간	흡연하지 않음	221(18.0)	138(11.2)	161(13.1)	708(57.7)	1,228
	1년 이하	14(8.1)	52(30.1)	36(20.8)	71(41.0)	173
	2~3년	5(8.6)	11(19.0)	19(32.8)	23(39.7)	58
	4~5년	6(16.7)	11(30.6)	6(16.7)	13(36.1)	36
	6년 이상	7(18.4)	4(10.5)	15(39.5)	12(31.6)	38
성 별	남	126(18.5)	104(15.3)	112(16.4)	339(49.8)	681
	여	127(14.9)	112(13.1)	125(14.7)	488(57.3)	852

흡연 기간에 따른 금연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조사한 결과, 적극 참여 의사는 다른 군보다 흡연 기간이 3~6년인 경우, 가능한 참여는 1년 이하,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1~3년, 관심 없다는 비흡연자 및 흡연 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적극적 참여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25).

2. 음주

가. 음주 여부

2019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N=1,533)의 68.6%(n=1,052)가 현재 음주를 한다고 응답하였다(표 4-26).

<표 4-26> 현재 음주 여부

구분	N	%		
		2019	2018	2017
예	1,052	68.6	65.8	70.6
아니요	481	31.4	34.2	29.4
합계	1,533	100	100	100

<표 4-27> 단과대학, 성별에 따른 음주 여부

()백분율

구분	음주 여부		합계	
	예	아니요		
단과대학	BNIT융합대학	168(69.7)	73(30.3)	241
	의과대학	110(65.9)	57(34.1)	167
	소프트웨어대학	44(64.7)	24(35.3)	68
	사회과학대학	216(70.8)	89(29.2)	305
	보건의료융합대학	127(70.9)	52(29.1)	179
	문리과대학	151(70.2)	64(29.8)	215
	공과대학	236(65.9)	122(34.1)	358
성별	남	440(64.6)	241(34.1)	681
	여	612(71.8)	240(35.4)	852

단과대학에 따른 음주 여부를 살펴본 결과, 보건의료융합대학이 타 단과대학보다 음

주를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과학대학, 문리과대학, BNIT융합대학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음주하는 학생 1,052명 중 여학생은 58.2%, 남학생은 41.8%로 조사되었는데, 전체 남학생 응답자(N=681) 중 음주하는 학생은 440명(64.6%)이었고, 전체 여학생 응답자(N=852) 중 음주하는 학생은 612명(71.8%) 이었다(표 4-27).

<표 4-28> 흡연 여부에 따른 음주 여부 ()백분율

구분		음주 여부		합계
		예	아니요	
흡연 여부	예	185(84.1)	35(15.9)	220
	아니요	867(66.0)	446(34.0)	1,313
합계		1,052	481	1,533

흡연 여부에 따른 음주 여부를 살펴본 결과, 흡연하면서 음주도 하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N=1,533) 중 12.1%(n=185)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흡연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n=220)의 84.1%이며, 음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n=1,052)의 21.0%이다(표 4-28).

나. 음주 시기

2019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음주 시작 시기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N=731) 중 대학교 48.2%(n=352), 고등학교 13.1%(n=201), 중학교 11.6%(n=178) 순으로 나타났다(표 4-29).

<표 4-29> 음주 유경험자의 음주 시작 시기

구분	N	%		
		2019	2018	2017
대학교	352	48.2	62.4	61.6
고등학교	201	27.5	27.2	25.3
중학교	178	24.3	10.4	13.1
합계	731	100	100	100

<표 4-30> 성별에 따른 음주 유경험자의 음주 시작 시기 ()백분율

구분		음주 시기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 별	남	90(15.7)	187(32.6)	296(51.7)	573
	여	88(11.6)	165(21.7)	506(66.7)	759

성별에 따른 음주 시기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고등학교 때 음주를 시작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대학교에 와서 음주를 시작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30). 또한, 흡연 시작 시기에 따른 음주의 시작 시기를 살펴본 결과 대학교와 고등학교는 그 시작 일치도의 비율이 매우 높았고, 흡연 시작 시기가 중학교라는 응답자는 음주 역시 중학교 때 시작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31).

<표 4-31> 흡연 시작 시기에 따른 음주 시작 시기 ()백분율

구분		음주 시작 시기			합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흡연 시작 시기	초등학교	11(20.0)	40(72.7)	4(7.3)	55
	중학교	30(54.5)	17(30.9)	8(14.6)	55
	고등학교	21(24.4)	47(54.7)	18(20.9)	86
	대학교	7(7.8)	30(33.3)	53(58.9)	90
합계		69	134	83	286

다. 일주일에 음주하는 횟수

음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음주하는 횟수를 조사한 결과, 1회(72.2%)가 가장 많았으며, 2회~3회(22.7%), 4회~5회(3.8%), 6회 이상(1.3%)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32). 성별에 따른 음주 횟수를 조사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응답률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났다(표 4-33).

<표 4-32> 일주일에 음주 횟수

구분	N	%		
		2019	2018	2017
1회	812	72.2	73.0	68.4
2회~3회	256	22.7	23.6	26.4
4회~5회	43	3.8	2.3	3.4
6회 이상	15	1.3	1.1	1.8
합계	1,126	100	100	100

<표 4-33> 성별에 따른 음주 횟수

()백분율

구분		일주일 음주 횟수				전체
		1회	2-3회	4-5회	6회 이상	
성 별	남	349(51.2)	111(16.3)	19(2.8)	5(0.7)	484
	여	463(54.3)	145(17.0)	24(2.8)	10(1.2)	642

라. 술을 마시는 이유

신입생 응답자 중 음주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술을 마시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스트레스 해소(38.9%)가 가장 많았으며, 선후배 관계 형성(26.0%), 기타(23.4%), 주위의 권유로(7.5%), 습관적으로(4.2%)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34).

마. 금주하게 된 계기

신입생 응답자 중 음주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주를 하게 된 계기를 조사한 결과, 건강(61.7%)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25.4%), 사회적 분위기(10.3%), 지인의 권유(1.8%), 학교의 금주 캠페인(0.8%)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35).

<표 4-34> 술을 마시는 이유

구분	N	%	
		2019	2018
스트레스 해소	467	38.9	35.5
선후배 관계 형성	312	26.0	26.0
기타	281	23.4	27.6
주위의 권유로	90	7.5	7.8
습관적으로	49	4.2	3.1
합계	1,199	100	100

<표 4-35> 금주를 하게 된 계기

구분	N	%	
		2019	2018
건강	306	61.7	78.2
기타	126	25.4	-
사회적 분위기	51	10.3	14.1
지인의 권유	9	1.8	1.4
학교 금주 캠페인	4	0.8	6.3
합계	496	100	100

성별에 따른 술을 마시는 이유를 알아본 결과,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스트레스 해소와 습관, 주위 권유, 기타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선후배 관계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표 4-36).

<표 4-36> 성별에 따른 술을 마시는 이유 ()백분율

구분		술을 마시는 가장 큰 이유					합계
		선후배 관계	스트레스	습관	주위 권유	기타	
성 별	남	145(28.8)	187(37.1)	21(4.2)	38(7.5)	113(22.4)	504
	여	167(24.0)	280(40.3)	28(4.0)	52(7.5)	168(24.2)	695

성별에 따른 금주 경험이 있는 학생의 금주 계기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건강, 금주 캠페인, 지인 권유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사회적 분위기, 기타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4-37).

<표 4-37> 성별에 따른 금주 계기 ()백분율

구분		금주하게 된 계기					전체
		건강	사회 분위기	금주 캠페인	지인 권유	기타	
성 별	남	144(64.9)	22(9.9)	3(1.4)	6(2.7)	47(21.0)	222
	여	162(59.1)	29(10.6)	1(0.4)	3(1.1)	79(28.8)	274

바. 다시 음주하게 된 계기

신입생 응답자 중 금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음주하게 된 계기를 조사한 결과 인간관계(40.8%)가 가장 많았으며, 스트레스(31.6%), 기타(21.9%), 학업(5.7%)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38).

<표 4-38> 음주를 다시 하게 된 계기

구분	N	%		
		2019	2018	2017
인간관계	184	40.8	48.5	43.6
스트레스	143	31.6	29.6	25.1
기타	99	21.9	17.9	23.9
학업	26	5.7	3.8	6.4
가정환경	0	0	0.2	1.0
합계	452	100	100	100

성별에 따른 다시 음주하게 된 계기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인간관계

로 인해 다시 음주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표 4-39).

<표 4-39> 성별에 따른 다시 음주하게 된 계기 ()백분율

구분		다시 음주하게 된 동기				합계
		인간관계	스트레스	학업	기타	
성 별	남	89(42.2)	64(30.3)	13(6.2)	45(21.3)	211
	여	95(39.4)	79(32.8)	13(5.4)	54(22.4)	241

사. 음주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피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음주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조사한 결과, 건강을 해침이라는 응답이 56.0%로 가장 높았고, 싸움(19.6%), 성추행(9.3%), 기타(7.8%), 말다툼(7.3%)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40).

<표 4-40> 음주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피해

구분	N	%		
		2019	2018	2017
건강을 해침	859	56.0	54.9	62.5
싸움	300	19.6	20.9	14.7
성추행	142	9.3	8.2	6.7
기타	120	7.8	8.4	9.7
말다툼	112	7.3	7.6	6.4
합계	1,533	100	100	100

<표 4-41> 성별에 따른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생각 ()백분율

구분		음주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피해					전체
		건강	싸움	말다툼	성추행	기타	
성 별	남	352(51.7)	144(21.1)	70(10.3)	52(7.6)	63(9.3)	681
	여	507(59.5)	156(18.3)	42(4.9)	90(10.6)	57(6.7)	852

성별에 따른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싸움, 말다툼, 기타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았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건강, 성추행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4-41).

아. 음주로 인한 학업 방해 경험

신입생 응답자 중 음주로 인한 학업 방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없었음(66.6%)이 가장 많았으며, 가끔 있었음(28.1%), 잦은 편(3.5%), 매우 잦은 편(1.8%)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42).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없었음, 매우 잦은 편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4-43).

<표 4-42> 음주로 인한 학업 방해 경험

구분	N	%		
		2019	2018	2017
없었음	1,021	66.6	64.2	63.1
가끔	431	28.1	31.1	31.9
잦은 편	53	3.5	3.1	3.5
매우 잦은 편	28	1.8	1.6	1.5
합계	1,533	100	100	100

<표 4-43> 성별에 따른 음주로 인한 학업 방해 경험

()백분율

구분		음주로 인한 학업 방해 경험				전체
		없었음	가끔 있음	잦은 편	매우 잦음	
성 별	남	452(66.4)	194(28.5)	26(3.8)	9(1.3)	681
	여	569(66.8)	237(27.8)	27(3.2)	19(2.2)	852

3. 본 설문 응답의 충실성

본 설문 응답에 대한 충실성을 조사한 결과, 신입생 전체 응답자(N=1,533) 중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은 95.3%,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이 응답은 1.0%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44).

<표 4-44> 본 설문 응답의 충실성

구분	N	%
매우 그렇다	1,233	80.5
대체로 그렇다	227	14.8
보통이다	57	3.7
전혀 그렇지 않다	11	0.7
대체로 그렇지 않다	5	0.3
합계	1,533	100

IV. 요약 및 결론

본 조사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흡연 및 음주 실태

2019학년도 신입생 전체 응답자(N=1,533)를 대상으로 흡연 및 음주 실태를 조사하였다.

2019학년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N=1,533) 중 흡연자는 14.4%(n=220)로 지난해 흡연자(12.9%)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N=1,533) 중 남학생은 22.6%(n=154), 여학생은 7.7%(n=66)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자(n=220) 중 남학생이 70%(n=154), 여학생이 30%(n=66)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흡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남학생과 여학생 흡연율(68.9%/31.1%)과, 비슷한 수준이나 남학생 흡연율은 소폭 증가하였고, 여학생 흡연율은 소폭 감소하였다.

전체 응답자(N=1,533) 중 음주를 하는 학생은 68.6%(n=1,052)로 지난해 음주를 하는 학생(65.8%)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응답자(N=1,533) 중 남학생 64.6%(n=440), 여학생 71.8%(n=612)가 현재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하는 학생(n=1,052) 중 남학생이 41.8%(n=440), 여학생이 58.2%(n=612)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음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음주율(41.5%/58.5%)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난해와 비교하여 흡연율과 음주율이 모두 비슷한 수준이지만 소폭씩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흡연율은 남학생이, 음주율은 여학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흡연 여부에 따른 음주 여부를 살펴본 결과, 흡연하면서 음주도 하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N=1,533)의 12.1%(n=185)로 이는 흡연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n=220)의 84.1%이며, 음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n=1,052)의 21.0%인 것으로 나타나, 흡연하는 경우 음주를 같이할 확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2. 흡연 및 음주 시기

2019학년도 신입생 전체 응답자(N=1,533) 중 흡연 및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및 음주 시기를 조사하였다.

흡연의 시작 시기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N=308) 중 대학교 31.5%(n=97), 고등학교 29.5%(n=91), 중학교 19.8%(n=61), 초등학교 19.2%(n=59)가 각 시기에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흡연 시기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고등학교, 여학생은 대학교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대학교에서 시작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의 경우 시작 시기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N=731) 중 대학교 48.2%(n=352), 고등학교 27.5%(n=201), 중학교 24.3%(n=178)가 각 시기에 음주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고등학교 때 음주를 시작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대학교에서 음주를 시작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미루어 볼 때 흡연과 음주는 모두 대학생 시기에 시작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중·고등학교 시기에 시작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흡연과 음주를 시작하는 시기가 대학교 시기로 나타났으나, 청소년기부터 이미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흡연과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및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알리는 예방 교육이 청소년기부터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대학 입학 이후 흡연과 음주를 시작하게 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음주 중심의 대학문화에 변화가 필요함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내의 금연, 금주 프로그램의 활성화뿐 아니라 그 외 학생들의 금연, 금주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3. 흡연 및 음주 동기

2019학년도 신입생 전체 응답자(N=1,533) 중 흡연 및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및 음주의 동기를 조사하였다.

흡연 동기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N=304) 중 호기심이 46.3%(n=1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스트레스 31.0%(n=94), 주위 사람의 권유 13.2%(n=40), 멋있어 보여서 5.5%(n=17), 기타 4.0%(n=12)의 순으로 나타났다. 흡연하게 된 동기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호기심과 스트레스에 대한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호기심으로 인한 흡연은 남학생의 50.2%(n=103), 여학생의 38.4%(n=38)로 나타났고, 스트레스로 인한 흡연은 남학생의 25.9%(n=53), 여학생의 41.4%(n=41)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호기심, 주위 권유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멋있어서, 스트레스, 기타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신입생들의 음주 동기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N=1,199) 중 스트레스 해소가 38.9%(n=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선후배 관계 형성 26.0%(n=312), 기타 23.4%(n=23.4), 주위의 권유 7.5%(n=90), 습관적으로 4.2%(n=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하게 된 동기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스트레스와 선후배 관계에 대한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로 인한 음주는 남학생의 37.1%(n=187), 여학생의 40.3%(n=280)로 나타났고, 선후배 관계로 인한 음주는 남학생의 28.8%(n=145), 여학생의 24.0%(n=167)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선후배 관계, 습관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 기타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주위 권유에 대한 응답률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흡연 시기에 따른 흡연 동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호기심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의 경우 비교적 호기심과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의 경우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호기심에서 시작된 흡연과 음주가 대학생 시기에 이르면 새로운 대학 문화와 더불어 습관화되고 일상화되는 것으로 사료 되며, 흡연과 음주 모두 스트레스와 직결되는 것으로 이에 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 및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4. 금연 및 금주에 대한 생각

2019학년도 신입생 전체 응답자(N=1,533)를 대상으로 금연 및 금주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신입생들의 교내에서의 금연에 대한 생각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9.5%(n=1,06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의 75.2%(n=641), 남학생의 62.4%(n=425)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당연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흡연 기간이 1년 이하인 흡연자가 다른 군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들뿐 아니라 흡연을 하는 학생들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내 금연이 당연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흡연자 중 36.8%는 교내 금연이 당연하다고 했으나 29.7%는 부당하다고 하여 비흡연자(71.7%/7.0%)와 큰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에서 흡연 시 규제에 대한 생각으로는 응답자(N=1,533) 중 징계가 40.2%(n=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장학금 혜택 제한 26.0%(n=399), 기타 21.7%(n=332), 학교 비교과 프로그램(국제봉사단, 해외연수 등) 참여 제한 12.1%(n=186) 순으로 나타나 적절한 규제에 대해서도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장학금 제한과 기타에 대한 응답률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제한과 징계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금연경험자의 금연 계기는 응답자(N=229) 중 건강(55.6%)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기타(16.0%), 지인의 권유(13.4%), 사회적 분위기(11.7%) 순으로 응답했는데, 학교의 금연캠페인은 불과 3.3%에 그쳤다. 금연 도전 횟수는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횟수와 상관없이 금연 도전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고, 금연 계기 또한 남학생이 건강, 사회적 분위기, 금연캠페인, 지인 권유 등 모든 문항에서 여학생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음주하는 학생들의 주 음주 횟수는 응답자(N=1,126) 중 1회가 72.2%(n=812)로 가장 많았고, 2~3회 22.7%(n=256), 4~5회 3.8%(n=43), 6회 이상 1.3%(n=15) 순이었는데, 일주일에 음주 횟수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금주하게 된 계기는 응답자(N=496) 중 건강(61.7%)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25.4%), 사

회적 분위기(10.3%), 지인의 권유(1.8%) 순이었는데 학교 금주 캠페인은 불과 0.8%에 그쳤다. 성별에 따른 금주 계기에 대해서는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건강, 금주 캠페인, 지인 권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사회적 분위기 및 기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연 및 금주 후 다시 흡연 또는 음주를 하게 된 동기로는 흡연의 경우 응답자(N=211) 중 스트레스(62.0%)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인간관계(20.0%)로 나타났다. 음주의 경우 응답자(N=452) 중 인간관계(40.8%), 스트레스(31.6%) 등으로 나타나 흡연과 음주 모두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입생들은 새로운 환경인 대학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더불어 개인 가족 환경 및 학교생활(진로, 학업, 대인관계 등), 나아가 미래와 관련된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음주·흡연문화 대신 이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과 고민을 토로하고 발전시킬 새롭고 창의적인 대학문화의 대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 된다. 또한, 더욱 많은 학생이 금연·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입생 전체 응답자(N=1,533) 중 30.6%(n=469)의 학생들이 금연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 33.2%에 비하여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참여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연과 금주 모두 건강을 위한 것이 가장 큰 계기가 됨을 볼 때, 앞으로도 금연·금주 캠페인 시 흡연 및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례 중심의 교육과 홍보 등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높은 금연·금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음주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조사한 결과, 건강을 해침(56.0%)이 가장 높았고, 싸움, 성추행, 기타, 말다툼 순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싸움, 말다툼, 기타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았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건강, 성추행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음주로 인한 학업 방해 경험은 잦은 편이 3.5%(n=53), 매우 잦은 편이 1.8%(n=2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도한 음주는 자신을 스스로 통제 불능 상태에 놓이게 할 가능성을 매우 높이고, 그로 인해 사건·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므로 신입생들의 건강한 대학 생활뿐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 진출과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다면 자주, 적극적으로 금주 캠페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설문 응답에 대한 충실성에 대하여 신입생 응답자(N=1,533) 중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95.3%,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은 1.0%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

이성희, 김영찬, 백민경(2017). 대학 신입생 흡연자의 흡연특성, 건강상태와 금연의도.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 미디어논문지, 7(12), 601-610.

학생생활연구 제24호 2020. 02

인쇄일 : 2020. 02.

발행일 : 2020. 02.

발 행 : 인제대학교 학생상담진로센터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607

Tel. 055-320-3533

Fax. 055-334-3538

발행인 : 배 성 윤

※비매품(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